

바른역사학술원
2023년 정기 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사기》 해석의 새로운 국면”

<https://www.youtube.com/live/wmLZttwbJs4?feature=share>

- 일시: 2023년 2월 17일(금) 14:00~18:00
- 장소: 온라인 &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 주최: 바른역사학술원
- 후원: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 한국리터러시학회 외
200여개 학술 및 역사 사회단체 참여

“《사기》 해석의 새로운 국면”

2023년 <바른역사학술원> 봄학술대회 일정표

- 일시: 2023년 2월 17일(금) 14:00~18:00
- 장소: 온라인 &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 주최: 바른역사학술원
- 후원: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 한국리터러시학회 외
200여개 학술 및 역사 사회단체 참여

- 차 례 -

14:00~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이덕일(순천향대, 바른역사학술원장) ■ 내빈인사 허성관(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14:20~15:10	<p>황제의 실존성과 민족 귀속성에 관한 소고</p> <p>토론: 오종홍(성균관대)</p>	김명옥(건국대)
15:10~16:00	<p>중산국 고찰</p> <p>토론: 김수지(순천향대)</p>	송기섭(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16:00~16:50	<p>《사기》로 본 고대 요동</p> <p>토론: 박종민(순천향대)</p>	최원태·정암(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16:50~17:10	휴식	
17:10~17:40	<p>종합토론</p> <p>사회 : 이덕일(순천향대, 바른역사학술원장)</p>	
17:40~1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윤리교육 이찬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바른역사학술원 총무이사) 	
1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 및 공지사항 이덕일(순천향대, 바른역사학술원장) 	

■ 발표 및 토론

포스트 《사기》 해석의 새로운 국면

사회: 임종권(한국국제학연구원)

김명옥(건국대): 황제의 실존성과 민족 귀속성에 관한 소고 -----

[토론] 오종홍(성균관대)

송기섭(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중산국 고찰 - -----

[토론] 김수지(순천향대)

최원태·정암(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기》로 본 고대 요동 -----

[토론] 박종민(순천향대)

■ 연구윤리교육

이찬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바른역사학술원 총무이사)

황제의 실존성과 민족 귀속성에 관한 소고

김명옥(건국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사마천이 지은 《사기》 권1은 황제, 제전욱, 제국, 제요, 제순의 사적을 기록한 〈오제본기〉이다. 본기는 제왕들의 사적인데, 이는 한족의 역사가 고대 황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들의 조상은 황제라는 사마천의 의도가 담겼다. 그런데 사마천과 달리 손씨의 『계본』과 후한말 서진 초의 학자인 황보밀(215~282)은 오제를 소호·제전욱·제국·제요·제순이라고 했다.

오제 이전에 삼황이 있었는데, 황보밀과 계씨는 태호복희와 신농염제 그리고 황제를 삼황이라고 했고, 사마정은 복희·여와·신농을 삼황이라고 했다. 학자들마다 다르나 삼황에 복희와 신농은 공통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①여와 ②수인 ③황제 ④공공 ⑤축융) 등이다.¹⁾ 즉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할 당시에 삼황 오제에 관해서 여러 설이 있었는데, 사마천이 자료를 수집한 후 취사 선택해서 삼황은 지우고 황제를 한족의 조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사마천이 ‘황제’를 화하족의 시조로 세운 이후 황제의 실존성 여부에 대한 논쟁은 있었어도 한족이라는 황제의 민족 귀속성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화하족의 시조로 유지되고 있다. 황제가 부각된 시기는 청말 때부터이다. 양육강식의 자연세계를 사회 발전에 접목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따르면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 된다. 사회진화론으로는 ‘문명’의 한족(漢族)이 ‘야만’스러운 만주족의 지배를 받는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어지는데, 이 문제를 청말 지식인들은 황제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반만주족주의인 혁명파는 황제가 한족만의 조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유신파는 한족뿐만 아니라 여타 중국 내의 모든 종족의 시조로서 황제를 호명해서 황제를 외세에 저항하는 기점으로 삼고자 했다. 외세를 만주족으로 보느냐 아니면 서양세력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황제 신화”²⁾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었다.”³⁾ 시조 황제가 묘족과 훈족을 물리치고 제국을 건국했고, 그 후손인 진시황과 한고조가 외세를 물리치고 중원을 통일한 역사에서 보이듯이 외세를 물리치는 천부적인 특성으로 황제 후손인 중국인들이 뭉쳐서 외세에 대항하자는 것이다.⁴⁾

그러나 민국 이후 고사변파는 황제의 실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사변학파는 “황제의 전설은 제나라 사람의 저작에서 처음 보”⁵⁾이며 “제나라 동쪽 야설”⁶⁾에 불과하다고 했다. 황제

1) 김명옥, 「동아시아 난생신화와 중국 한족(漢族)과의 관계 연구」, 『문화와 융합』 제42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815쪽.

2) 심송교, 조우연 역, 「“나의 피 軒轅에 바치리라”」, 『역사민속학』 제2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303쪽.

3) 심송교, 조우연 역, 「“나의 피 軒轅에 바치리라”」, 『역사민속학』 제2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303쪽.

4) “우리 황제시조님께서 파미르고원에서 동방으로 나오셔, 남으로는 묘민(苗民)을 쫓고, 북으로는 獯鬻을 몰아내고, 중심에 제국을 건립하셨다. 그 정신을 후손들이 물려받았으니, 전국시대 여러 관대(冠帶)의 제후국들이 …오랑캐를 물리치고 국토를 넓혀갔던 것이다. 진의 시황제와 한의 무제 시기에 이르러서는 변방에 명성을 떨치고 중국의 새로운 기원을 열어갔다.” 〈攘異篇〉, 《民心》 2期, 1911년 4월 (《辛亥革命前十年間時論選集》 3卷, 824쪽을 심송교, 조우연 역, 「“나의 피 軒轅에 바치리라”」, 『역사민속학』 제2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306-307쪽에서 재인용.

5) 黃帝之傳說初見於齊人之著作. 楊寬, 〈中國上古史導論〉, 《古史辨》 冊7, 1942(民國 30年), 開明書店,

가 중국 민족의 시조로 추앙된 것은 청말에 중국지식인들이 중국 민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는데, “현실정치 내지는 공동체 관계의 수요에 의해서 창조”⁷⁾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황제는 ‘만들어진’ 것이며, 중국이 근대적 ‘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신화를 역사화했다고 한 것인데, 김선자⁸⁾, 홍윤희⁹⁾, 이유진¹⁰⁾ 등은 근대 외세의 침략에서 중국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이 필요했고 그것이 황제였다는 것이다. 황제를 역사로 보느냐, 또는 신화로 보느냐는 진실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프레임들의 담론 배경에는 ‘염황의 자손’이라는 중국인들의 민족정체성과 관련되며, 다민족 국가를 유지하는 민족 통합의 ‘문화부호’로서 황제가 자리한다는 것이다.¹¹⁾

황제는 근대애야 비로소 중국인(민족)의 공동시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왕명가는 ‘화하’ 또는 ‘중국’의 형성과정을 살피면서 근대와 똑같은 현상이 이미 전국시대 말에서 한나라 초기에 있었다고 했다. 전국말 진한초기에 이미 황제가 중국인의 공동시조로 만들어졌는데, 사마천이 ‘황제’를 종족기원으로 삼아 정사를 창조해 역사를 신화전설과 분리시켰다는 것이다.¹²⁾

정말 황제는 만들어진 신화인가? 또 황제는 한족의 시조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전자는 황제의 실존성을, 후자는 황제의 민족 귀속성에 관한 질문이다. 실존성에 대한 질문은 역사의 신화, 신화의 역사의 담론의 일종일 것이다. 필자는 신화는 역사에서 재료를 뽑아 만든 이야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흩어지고 완전하지 않지만, 전해오는 문헌과 금석문 등은 황제의 실재를 말한다고 여긴다. 이것은 문자가 없던 시절 오랜 시간 동안 집단기억에 의해 전승되다가 잊혀지고 흩어져 그 잔존들만 전해 오던 것을 채록해 문자로 기록한 구비전승의 특성이다. 또한 역사는 신화의 재료이기 때문에 역사가 선행되어야만 그것이 재료를 삼아 신화¹³⁾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 귀속성에 관한 질문은 황제가 한족임을 밝히는 심승교의 ‘구조적 기억 상실’과 왕명가의 ‘황제와의 반부(연줄 만들기)’ 방법을 통해 황제가 동이족임을 반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다.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할 때의 고민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 사례가 황제 민족귀속을 밝히려는 다양한 방법론이다.

황제의 민족 귀속성에 관해서 낙빈기는 1980년대에 금문 연구를 통해 황제 및 오제가 모두 동이족이라고 했고¹⁴⁾, 이덕일은 문헌 조사를 통해 삼황 및 오제는 물론 하·상·주 3대 제왕들

193쪽.

6) 齊東野語耳. 楊寬, 〈中國上古史導論〉, 《古史辨》冊7, 1942(民國 30年), 開明書店, 193쪽.

7) 심승교, 조우연 역, 「“나의 피 軒轅에 바치리라”」, 『역사민속학』 제2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275쪽.

8) 김선자, 「황제신화와 국가주의- 중국신화 역사화 작업의 배경 탐색 : 하신의 『論政治國家主義』」, 『중국어문학논집』 31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5.

9) 홍윤희, 「1920년대 중국, ‘국가의 신화’를 찾아서- 胡適, 魯迅, 茅盾의 중국신화 단편성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28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4.

10) 이유진, 「끊임없는 담론-신화의 역사화, 역사의 신화화」, 『중국어문학논집』 24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3.

11) 이유진, 「끊임없는 담론-신화의 역사화, 역사의 신화화」, 『중국어문학논집』 24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3. 이유진은 하상주단대공정 이후 중국학계에서는 고힐강과 호적 등의 고사변학파가 三代에 대한 부정으로 중화문화와 중국민족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하상주단대 공정으로 하·은·주의 단대가 확정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대의 확정으로 “오제시대를 역사로 복원하여 중국인 스스로 염황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적 근거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민족단결과 국가통일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12) 왕명커(王明珂), 조연우 옮김, 「‘염황자손(炎黃子孫)’과 관련된 근대 ‘네이션’ 관념 구축의 고대적 기반-황제(黃帝)와의 연줄 만들기[攀附]에 대해」, 『黃帝,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학술정보, 2009.

13) 여기에서 신화는 문자로 기록한 역사 이전의 선사시대의 역사를 뜻한다.

14) 낙빈기, 김재섭·최영택·홍천표 옮김, 『금문신고』, 한국금문학회, 2020.

이 모두 동이족이라고 했다.¹⁵⁾ 이 연구는 낙빈기와 이덕일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진행될 것이다.

2. '조상 시조로 만들어진 황제'설의 기원

사마천(BC145~AD86?)은 그의 자서전인 「태사공자서」에서 “나는 황제(黃帝)를 거쳐 한나라 무제(武帝)의 태초(太初)에 이르기까지를 기술해서 마쳤다. 총 130편이다.”¹⁶⁾라고 『사기』에 대해서 말했다. 「오제본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직 옛날의 황제(黃帝)는 하늘을 본받고 땅을 법칙으로 삼았는데, 전욱(顓頊), 제곡(帝嚳), 요(堯), 순(舜), 4명의 성인(聖人)이 차례를 따라 각각 법도를 성취했다. 당(唐)의 요(堯)임금이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었으나 우(虞)의 순(舜)임금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한 제왕의 공적을 아름답게 여겨서 이를 기록해서 길이 전할 것이다. 이에 「오제본기」를 지어 첫 번째에 둔다.¹⁷⁾

한나라의 역사는 황제로부터 시작되어 전욱, 제곡, 요, 순으로 이어졌다는 선언이다. 황제는 『사기』 이후에 2,000여 년 동안 한나라의 조상시조로서 그 자리가 굳건해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의 조상시조 황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 갈래에는 크게 황제의 실존성과 화하족 기원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들이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황제를 포함한 상고시대의 제왕들 실존성에 대한 근현대 연구자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하나는 청말 외세에 관한 저항적 관점에서, 민국 이후 화하족(한족)의 기원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황제의 실존성을 인정한다.

다른 하나는 황제는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것인데, 의고파는 상고에 관한 이야기가 후대로 내려올수록 자세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의고파가 보기에 고대인들은 “허황된 이야기를 지어내기 좋아한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¹⁸⁾ 있는 듯하다. 그들은 “춘추 이전 사람들의 기록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춘추시대 사람들이 날조한 것이라고 한다거나, 전국시대 이전 사람들의 기록에 없으므로 반드시 전국시대 사람들이 날조한 것이라고”¹⁹⁾ 본다.

근대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현대 학자들은 황제를 만들어진 신화, 만들어진 한족의 조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만들어진 시기에 관해서는 엇갈린다. 일부는 근대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일부는 전국말 한나라 초기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전자와 후자 둘다 황제를 한족의 시조로 만들어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실존성은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왕명가에 따르면 황제를 조상으로 삼고자 한 ‘조상 창조’는 근대의 발명이 아니라 고대역사와 역사 기억을 계승하는 작업이었다. “‘황제’를 종족기원으로 하는 논술 방식이 ‘근대’뿐만 아니라 전국시대(戰國時代) 말에서 한(漢)나라 초기에”²⁰⁾ 이미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하(華夏) 또는 중국, 중원이라는 관념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국 시기부

15) 이덕일, 『사기, 2천년의 비밀』, 만권당, 2022.

16) 余述歷黃帝以來至太初而訖 百三十篇

17) 維昔黃帝 法天則地 四聖遵序 各成法度 唐堯遜位 虞舜不台 厥美帝功 萬世載之 作五帝本紀第一

18) 서옥생, 조우연 옮김, 『중국 전설시대와 민족형성』 상, 학고방, 66쪽.

19) 서옥생, 위의 책, 72쪽.

20) 왕명가, 조우연 역, 「‘염황자손(炎黃子孫)’과 관련된 근대 ‘네이션’ 관념 구축의 고대적 기반-황제(黃帝)와의 연줄 만들기[攀附]에 대해」, 『黃帝,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218쪽.

터 한 대에 이르는 시기의 ‘화하’ 관념”은 “사실상 ‘화하’ 관념에 대한 진일보한 정의(定義)였으며 재해석”²¹⁾이었다.

화하관념의 형성이 ‘황제 조상설’에 영향을 끼쳤다는 왕명가의 논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황제에 관한 초기 문헌에서 황제는 여러 제왕 중의 하나로 거론되었다. 2)전국시대 이후에 나타난 문헌에 황제는 가문의 시조와 제왕적 성격이 드러난다. 3)염제와 황제의 형제관계로 묘사 된 것은 황제 시대의 통일과 문명, 진보 및 그 역사적 성격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4) ‘화하’ 또는 ‘중국’ 개념은 정치적 통일성과 화하에 대한 동질성 인정을 배경으로 해서 전국시대말 한나라 초에 형성되었다. 5) ‘화하’개념이 형성되면서 황제를 시조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제왕들의 계보가 만들어졌다. 6)주나라 왕실의 성씨가 ‘희’성이기 때문에 황제의 성씨도 희성으로 인식했다.²²⁾

1)~3)은 같은 맥락인데, 문자 기록이나 그 기록에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실존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초기문헌에 황제가 제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제왕적 성격이 드러난 것은 문자 탄생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대체로 한자는 황제의 사관인 창힐이 만들었다고 전한다.²³⁾ 황제 시기에 문자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지 않았을 것이며, 문자를 사용하는 자들도 한정되었을 것이다.²⁴⁾ 이를테면 제정일치 사회에서 종교적 주판자가 제의에서 상징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또한 초기 문자로는 기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글자로 모든 역사를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창힐이 문자를 만들었어도 여전히 역사 기록은 기억에 의한 구비전승 방식이 주류였을 것이다. 서옥생도 “고대 문헌에 상고시대 전설이 수록되어 전해지는데, 사건 발생 당시에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록되지 못한 사료이다.”²⁵⁾ 라고 했다. 그는 이 시대를 전설시대라고 하면서 ‘반경이 은으로 천도하기 이전’까지를 하한선으로 잡았다.²⁶⁾ 즉 창힐 이후에 상나라의 갑골문자가 발전해서 오늘날 한자로 발전했는데²⁷⁾, 문자로 기록하기까지의 역사는 대체로 구비 전승되다가 문자가 보편화 되면서 흩어져 전승되어온 것을 채록해서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전국시대의 문헌에 황제의 제왕적 성격, 문명의 진보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후대에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전국시대에 문자가 보편화 되면서 구전되어온 역사가 채록돼서 기록된 것으로 봐야 한다.

21) 왕명가, 조우연 역, 「‘염황자손(炎黃子孫)’과 관련된 근대 ‘네이션’ 관념 구축의 고대적 기반-황제(黃帝)와의 연줄 만들기[攀附]에 대해」, 『黃帝,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165쪽.

22) 왕명가, 조우연 역, 「‘염황자손(炎黃子孫)’과 관련된 근대 ‘네이션’ 관념 구축의 고대적 기반-황제(黃帝)와의 연줄 만들기[攀附]에 대해」, 『黃帝,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149-158쪽.

23) 『설문해자』 서(敍) 黃帝之史 蒼頡

24)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지 500여 년이 지난 1945년 해방직후 미군정기 초에 우리나라 문맹률은 80%에 육박했다. 이항재와 이희수는 해방직후에 12세 이상 총 인구의 약 78%인 800만 인구가 문맹자였는데, 여기에 학력 아동 중 불 취학 아동자 수가 상당함으로 이것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항재·이희수, 「미군정기 성인 문맹퇴치 운동의 정치적 동인」, 『학생생활연구』 1집, 순천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4.

25) 서옥생, 조우연 역, 『중국 전설시대와 민족형성』 상, 학교방, 2012, 9쪽.

26) 서옥생, 조우연 역, 『중국 전설시대와 민족형성』 상, 학교방, 2012.

27) 정문은 “대문구문화는 중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양저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중략) 뒤에 산둥 용산문화의 발전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갑골문자의 만듦을 이끌어낸 것이다.”라고 했다. 張文, 「大汶口文化陶尊符號試解」을 진태하, 『한자는 우리의 조상 동이족이 만들었다』, 명문당, 2019, 39-40쪽에서 재인용.

4)~6)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적 통일성과 화하에 대한 동질성 인정을 배경으로 ‘화하’개념이 형성되면서 성씨가 만들어지고, 성씨라는 혈연적 기반을 통해 조상 시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중국 보학은 춘추전국시기와 한대에 집대성 되었다. “좌구명이 편찬하였다고 전해오고 『세본』 氏姓篇에서 비롯”²⁸⁾ 됐다는 것이다. 동한시대 응소(153~196)는 『풍속통의』 안에 춘추전국시대와 한대의 보학을 집대성해서 성씨편을 수록했는데, 이 책은 중국보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본래 30권이었는데, 당나라까지 전해지다가 송대에 10권만 전해졌다.²⁹⁾ 주지하다시피 『사기』의 삼가 주석자들은 응소의 말을 인용했는데, 응소는 한나라 전장(典章:제도과 문물)에 매우 박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학이 춘추전국시기와 한대에 형성되었다고 해서 그 때에 만들어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낙빈기는 금문 연구를 통해 성씨가 염·황시대부터 있었다고 했다. 고대의 금석문은 씨칭을 의미하며 혼인 등이 이루어질 때 혹은 매우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 씨칭을 새겨 넣은 그릇을 만들었다고 했다.³⁰⁾

사마천은 「오제본기」에서 “황제는 소전의 아들인데 성은 공손이고 이름은 현원이다”³¹⁾고 했다. 현원에 대해서 사마정(679~732)은 황보밀(215~282)의 말을 인용하여 “황제는 수구에서 태어났는데 희수(姬水)에서 잘랐다. 그로 인해 성으로 삼았다.”³²⁾라고 했다. “본래의 성은 공손인데, 희수에서 오래 살아서 성을 희(姬)로 바꾸었다”³³⁾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염제와 황제 때에 성씨가 나타났는데, 성씨 사용은 왕족 중심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성씨의 유래에 대해서 장열(667~730)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옛날에는 오랑캐들과 마찬가지로 성씨가 없었습니다. 태어난 곳에 따라 염제가 강씨를, 황제가 희씨를 칭하면서부터 성씨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 후 천자께서 덕 있는 자를 세우고 그 출생지에 따라 성씨를 하사했습니다. 황제에게 아들 스물다섯이 있었는데, 성씨를 얻은 자가 열 넷입니다. 덕이 같으면 성씨 또한 같고, 덕이 다르면 성씨 또한 달리했습니다. 그 후부터 혹은 관직에 따라, 혹은 국명에 따라, 혹은 왕부 이름에서 따다가 가문의 성씨로 하사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성씨가 된 것입니다. 당, 우에서 전국시대에 이르는 동안, 성씨의 사용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주나라가 쇠하고, 열국이 곧 멸하자 사람들은 옛 나라의 이름을 따서 성씨로 사용해, 양한 무렵에 이르러서는 사람들마다 모두 성씨가 있게 되었습니다. ³⁴⁾

장열에 따르면 염제와 황제가 강씨, 희씨로 칭하면서 성씨가 처음 생겨났다. 염제는 강수에서 살았고, 황제는 희수에서 기거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성씨가 된 것이다. 성씨 유래는 출생지에 따라 성씨를 하사하다가 이후에 관직과, 국명, 왕부 등에 따라 하사했는데, 전국시대에 성씨가 점차 많아졌다고 했다. 현원이나 염제가 사는 지역 이름을 따서 생겨난 성씨 유래는 관습이 되어 전국시대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자가 없던 시대에 성씨의 연원은

28) 안광호, 「응소의 『풍속통의』에 수록된 ‘姓氏篇’의 유실과 輯佚」, 『전북사학』 제62호, 전북사학회, 2021, 156쪽.

29) 안광호, 「응소의 『풍속통의』에 수록된 ‘姓氏篇’의 유실과 輯佚」, 『전북사학』 제62호, 전북사학회, 2021.

30) 낙빈기, 김재섭·최영택·홍천표 옮김, 『금문신고』, 한국금문학회, 2020.

31) 『사기』 黃帝者 少典之子 姓公孫 名曰軒轅

32) 『사기색은』 黃帝生於壽丘 長於姬水 因以為姓

33) 『사기색은』 是本姓公孫 長居姬水 因改姓姬

34) 『新唐書』 說曰 古未有姓 若夷狄然 自炎帝之姜 黃帝之姬 始因所生地而為之姓 其後天子建德 因生以賜姓 黃帝二十五子 而得姓者十四 德同者姓同 德異者姓殊 其後或以官 或以國 或以王父之字 始為賜族 久乃為姓 降唐 虞 抵戰國 姓族漸廣 周衰 列國既滅 其民各以舊國為之氏 下及兩漢 人皆有姓

구전되었던 것인데, 구전 되어 내려온 “사료는 대부분 해당시기 역사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적(史實的) 연원을 갖고 있”³⁵⁾다. “이는 후대의 2차 수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산재되어 나타나는 자료로서…소박한 특징이 있다.”³⁶⁾

조상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고대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기억이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데는 각종의 장치가 필요하다. 상징, 텍스트, 그림, 의례, 기념비, 장소 등이 그것이다. 그러한 문화적 표현물들은 실상 제도적인 장치이다. 따라서 집단적 기억은 대부분 제도적 기억이다.”³⁷⁾ 조상에 대한 제사는 제도적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대 유물의 많은 부분이 제기라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신이 된 조상을 기리는 의식은 전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다. 『국어』를 보자.

유우씨는 황제에게 체제를 지내고, 전욱에게 조제를 지내며, 요에게 교제를 지내고 순에게 종제를 지냈다. 하후씨는 황제에게 체제를 지내고 전욱에게 조제를 지내며, 곤에게 교제를 지내고 우에게 종제를 지냈다. 상나라 사람들은 순에게 체제를 지내고, 설에게 조제를 지내며, 명에게 교제를 지내고, 탕에게 종제를 지냈다. 주나라 사람들은 곽에게 체제를 지내고, 직에게 교제를 지내며, 문왕에게 조제를 지내고 무왕에게 종제를 지낸다.³⁸⁾

체·교·종·조는 하늘에 제사하여 조상을 배향하는 것을 말한다.³⁹⁾ 유우씨는 황제의 손자인 전욱의 후손이다. 그래서 황제와 전욱에게 제사한 것이다. 즉 후손이 선조를 배향한 것인데, 이러한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제기와 같은 유물들은 제사의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사라는 실천적 행위가 전해지다가 문자로 기록된 것이다. 제사라는 제도가 황제의 실존성 즉, 우(虞)·하·상·주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다.

초기 문헌에 비해 후대의 문헌에 나타난 황제의 제왕적 모습은 문자 보급과 관련이 있다는 점, 전국말 진한대에 성과 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조상 만들기’를 통해 황제가 만들어졌다는 설은 여러 학자들이 참고한 보화에 관한 문헌을 통해서 ‘조상 만들기’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다. 제기가 제도적 기억이라는 점 등도 황제 실존성을 말해주는데, 허구적인 인물로 보기 어렵다.

3. 황제는 ‘만들어’졌나?

황제의 실존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오제본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다. 성은 공손이고 이름은 헌원이다. … 헌원시대에 신농씨의 세상이 쇠약해져서 제후들이 서로 침략해서 죽이고 백성들에게 포학했지만 신농씨는 정벌하지 못했다. …또 염제가 제후들을 업신여기고 침략하려하자 제후들이 모두 헌원씨에게 돌아갔다. 헌원씨는 이에 … 곰과 말곰과 비와 휴와 추와 호랑이를 훈련시켜서 염제와 파천들에서 싸웠다. 세 번을 싸운 뒤에야 마침내 뜻을 얻었다. ⁴⁰⁾

35) 서옥생, 조우연 역, 『중국 전설시대와 민족형성』 상, 학고방, 2012, 10쪽.

36) 서옥생, 조우연 역, 『중국 전설시대와 민족형성』 상, 학고방, 2012, 10쪽.

37) 김학이, 「얀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서양사연구』 제33집, 2005, 235쪽.

38) 『國語』 魯語 上, 有虞氏 禘黃帝而祖顓頊 郊堯而宗舜 夏后氏 禘黃帝而祖顓頊 郊鯀而宗禹 商人 禘舜而祖契 郊冥而宗湯 周人 禘嚳而郊稷 祖文王而宗武王

39) 동양고전종합db, db.cyberseodang.or.k

40) 黃帝者 少典之子 姓公孫 名曰軒轅 … 軒轅之時 神農氏世衰 諸侯相侵伐 暴虐百姓 而神農氏弗能征

소전에 관해서 『사기집해』 주석자인 배인은 초주(?~270)를 인용해 “유웅국 군주인 소전의 아들”이라고 했다. 유웅국에 대해서 황보밀(215~282)은 하남이 신정이라고 했다.⁴¹⁾ 『사기색은』 주석자인 사마정도 “소전은 나라이름이고 사람 이름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⁴²⁾고 했다. 또 『국어』 진어(晉語)를 인용해 ‘소전이 유교씨의 딸에게 장가 들어 황제와 염제를 낳았다.’고 했다.

배인과 사마정은 초주(?~270)를 인용했다. 『고사고』를 쓴 초주는 촉(蜀) 땅 사람인데 “위나라에서 산기상시(散騎常侍)의 벼슬로 불렸으나 제수되지는 않았다.”⁴³⁾고 했다. 배인 뿐만 아니라 사마정도 어디에 근거했는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국어』는 서기전 350년경 노나라 좌구명이 썼다고 전해지므로, 서기전 109년에서 서기전 99년으로 추정되는 『사기』 편찬 시기보다 250여년이 앞선 책이다.

위의 인용문은 「오제본기」 첫 부분인데, 「태사공자서」에 사마천이 『사기』를 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천하에서 유실된 옛 전적을 망라해서 왕들의 발자취와 흥기한 바를 시작을 캐묻고 끝을 살피며 흥망성쇠를 보고 관찰해서 행사(行事)들을 논하여 고증했다.”⁴⁴⁾

사마천은 『사기』를 편찬할 당시 여러 자료를 보고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사기』를 기술했다. ‘유실된 옛 전적’이란 진시황이 분서갱유로 소실된 문헌과 자연적으로 소실된 문헌 등일 것이다. 사마천의 표현대로라면 그 당시에 상고사에 대해서 전해져 오던 것이었을 것이다.

사마천의 집안은 주나라 때부터 대대로 사관을 역임했었다.⁴⁵⁾ 그의 말에 따르면 전욱 때 중(重)과 여(黎)가 관장하던 하늘과 땅의 일을 그 후손들이 주나라 선왕(宣王 서기전 828~서기전 782)년까지 맡았는데, 선왕 때 중과 여의 후손들이 직분을 잃고 사마씨가 사관으로 종사하게 되었다고 했다.⁴⁶⁾ 따라서 사마천도 대대로 가업을 잇기 위한 수업을 받았다. “나이 10세에 고문(古文)을 암송했다.”⁴⁷⁾는 그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마천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역사에 관해서는 많이 듣고, 보았을 것이며, 그도 태사공이 되었기 때문에 왕실에 있던 역사서들을 읽었을 것이다.

그래서 「표」를 작성하면서 “하, 은, 주의 3대(三代)는 아주 옛날이어서 연기(年紀)를 고찰할 수는 없다. 대개 보첩(譜牒)이나 옛 소문에서 취하고 여기에 근본을 두어 대략 미루었다.”⁴⁸⁾고 했다. 족보와 옛 소문을 참고해서 서술했다는 것이다. 사마천은 20세부터 역사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여러 곳을 다녔다.

… 炎帝欲侵陵諸侯 諸侯咸歸軒轅 軒轅乃… 教熊羆貔貅獬虎 以與炎帝戰於阪泉之野 三戰 然後得其志

41) 譙周曰「有熊國君 少典之子也」皇甫謐曰「有熊 今河南新鄭是也」

42) 『서기』, 「오제본기」【索隱】少典者 諸侯國號 非人名也 又案 國語云「少典娶有蟠氏女 生黃帝、炎帝」

43) 『사기』, 「오제본기」.

44) 「태사공자서」罔羅天下放失舊聞 王迹所興 原始察終 見盛觀衰 論考之行事

45) 사마천은 「태사공자서」 사관의 역사를 기술하는데, 전욱시대의 중과여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계승하다가 주나라 선왕대 그들이 직분을 잃고 사마씨가 대대로 사관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사마씨의 후손들을 열거해서 부친인 사마담에 이르기까지 서술한다.

46) 「태사공자서」昔在顓頊 命南正重以司天 北正黎以司地 唐虞之際 紹重黎之後 使復典之 至于夏商 故重黎氏世序天地 其在周 程伯休甫其後也 當周宣王時 失其守而為司馬氏 司馬氏世典周史

47) 「태사공자서」年十歲則誦古文

48) 「태사공자서」維三代尚矣 年紀不可考 蓋取之譜牒舊聞 本于茲 於是略推

20세에 남쪽으로 강수(江水)와 회수(淮水)를 유람하고, 회계(會稽)에 올라 우혈(禹穴)을 찾아보고 구의(九疑)를 살펴보았으며, 원수(沅水)와 상수(湘水)에서 배를 타고 다녔다. 북쪽으로 문수(汶水)와 사수(泗水)를 건넜고, 제(齊)나라와 노(魯)나라의 도읍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공자(孔子)의 유풍(遺風)을 관람했다. 향사(鄉射)의 예를 추(鄒)와 역(嶧)에서 익혔으며, 피(邶)와 설(薛)과 팽성(彭城)에서 운수가 나빠서 심한 고생하다가 양(梁)나라와 초(楚)나라를 거쳐서 돌아왔다.⁴⁹⁾

사마천이 답사를 다닌 곳과 다니면서 겪었던 여러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 역사 현장을 답사하는 일은 역사적 사건의 사료와 현장을 고증하는 작업이자,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건들, 그 지역에서 전승된 역사를 듣는 작업이다. 사마천 시기에 문자 사용자는 소수 유생 및 지배층이었을 것이며, 대다수의 백성은 문맹이었을 것이다. 즉 사마천은 오랜 사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을 입으로 전승되었던 것들을 답사현장에서 들었을 것이다. 서옥생의 말을 빌리자면 “‘구전’되어 내려온 사료”를 사마천이 참고한 것이다.

구전 된 사료는 채록자에 따라 다른데, 황제의 어머니도 그렇다. 『국어』에서는 유교씨의 딸이라고 했고 『사기정의』의 주석자 장수절은 “어머니는 부보”⁵⁰⁾라고 했는데, 장수절은 “살펴보 니[案]”라고 해서 여러 문헌들을 참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부보는 유교씨의 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단지 『국어』에서는 유교씨의 딸로, 장수절은 부보라고 이름을 쓴 것이다. 그런데 『제왕세기』에서 염제의 “어머니는 임사(任似)인데 유교씨의 딸이고 이름은 여등(女登)이며 소전의 비”라고 했다. 염제와 황제가 형제라면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란 말이다.

사마천이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이야기 속에, 여러 문헌들 속에, 답사현장에서 들은 이야기 속에는 빠짐없이 황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오제의 첫번째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염제나 황제는 실존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존재하지 않은 인물의 어머니 이름까지 전승될 리가 없다. 만약 황제나 염제가 만들어진 인물이라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딱 떨어지게 같이 지었을 것이다.

『사기정의』에서 장수절은 사마천이 사기를 지을 때 『세본』 및 『대대례기』에 근거해서 「오제본기」를 썼다고 했다.⁵¹⁾ 그런데 공안국의 『상서』 서와 황보밀의 『제왕세기』 손씨가 주석한 『세본』은 모두 황제를 삼황이라고 했고, 오제의 첫머리에 소호를 세웠다. 여러 전적에 황제가 기술되어 있어서 황제의 실존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제의 실존성을 알 수 있는 단서는 금문인데, B.C.356년, 제위왕(齊威王)이 금문(銘文)을 만들어 이르기 “오직 내(인제)가 돌아가신 부친을 빛내고 고조황제의 세계를 계승하여 제한 공 진문공의 공업을 어루만져 본받겠다”⁵²⁾라고 했다. 또 『국어』 노어(魯語)에서는 “우씨가 있어 황제에 제사 지내고 전옥을 조상으로 모시며, 또 요임금에게 제사지내고, 순임금을 조상으로 모신다. 하우씨는 황제에게 제사지내고 전옥을 조상으로 모신다.”⁵³⁾는 기록이 있다.

사마천은 『사기』를 쓴 이유, 자신과 같이 마음이 답답하고 맺힌 것이 있는 저자들이 쓴 책을 열거하면서 “노(魯)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은 눈이 멀자 『국어』가 있게 했다.”⁵⁴⁾라고 했다.

49) 「태사공자서」 二十而南游江淮 上會稽 探禹穴 闢九疑 浮於沅湘 北涉汶泗 講業齊魯之都 觀孔子之遺風 鄉射鄒嶧 扈因鄆薛彭城 過梁楚以歸

50) 「오제본기」, ‘황제’조 母曰附寶

51) 『正義』…案 太史公依世本 大戴禮 以黃帝 顓頊 帝嚳 唐堯 虞舜為五帝

52) 其惟因揚考, 紹踵高祖黃帝, 米嗣桓, 文 顧頡剛, 「黃帝」, 『史林雜識初編』, 臺北影印本, 無出版年, 179쪽을 심송교, 2008, 275쪽에서 재인용.

53) 『국어』 노어 상 有虞氏 禘黃帝而祖顓頊 郊堯而宗舜 夏后氏 禘黃帝而祖顓頊

『국어』를 봤다는 의미다. 마음이 답답하고 맺힌 것이란 사마천이 이릉의 사건에 연류되어 궁형을 당한 일이다. 이릉은 흉노 정벌에 나섰다가 항복했는데, 그를 위해 아무도 변명해 주지 않았지만 오직 사마천만이 이릉을 옹호했다가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사형 대신에 궁형을 당한 것이다.

서옥생은 상고시대의 역사 연구방법론에서 금석문에 보이는 『금문상서』, 『주역』의 괘효사, 『시경』, 『좌전』, 『국어』, 『산해경』 등 전진시기 저술들을 1등급 사료로 꼽았는데,⁵⁵⁾ 전설시대의 사적들은 역사시대의 사료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1차사료에 가깝다⁵⁶⁾라고 했다.

따라서 사마천이 여러 전적을 보고, 옛 소문을 참고하여 「오제본기」를 쓴 점, 전진 시대 전적들이 황제의 사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지 않은 채 기술되어 있다는 점, 즉 오래된 전설이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1차 사료가 된다는 점에서 황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실존인물이다.

4. 한족의 기원에 관한 사마천의 고민 그리고 현재

사마천이 『사기』를 쓴 배경이다.

나의 선조는 주(周)나라의 태사(太史)였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일찍이 공로와 명예를 우(虞)와 하(夏)에서 나타냈으며 천관(天官)의 일을 맡았다. 후세로 오면서 쇠약해졌으니 나에게서 끊어지려는가? 너는 돌아가 태사(太史)가 되어 우리의 조상을 계승하거라! ... 지금 한(漢)나라가 일어나 천하는 하나로 통일되었고, 밝은 군주와 어진 임금과 충신과 의사(義士)가 있는데도 내가 태사(太史)가 되어 역사를 논하여 기술하지 못했으니, 천하의 글이 폐해질까 봐 나는 심히 두렵다. 너는 그것을 생각하라!⁵⁷⁾

사마천 아버지 사마담의 말이다. 사마담은 태사령이었는데, 진시황이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봉선에 따라가지 못했다. 그가 주남(지금의 낙양)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마담은 이것이 한이 되어 사마천에게 태사가 되어 가업을 계승하라고 한 것이다. 사마담의 유언대로 사마천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만에 태사령이 되어 역사의 기록과 석실(石室) 및 금궐(金匱) 속의 글을 철집(綴集)했다.”⁵⁸⁾고 했다. 이에 관해서 사마정은 “석실과 금궐은 모두 나라에서 책을 저장하는 곳이다.”⁵⁹⁾라고 했다. 여순은 철집에 관해서 구서(舊書)와 고사(故事)를 살펴서 차례로 기술한 것이라고 했고 소안도 모아서 엮은 것을 말한다고 했다.⁶⁰⁾ 즉 나라의 오래된 책과 오래된 사건을 두루 살피고 통달해서 차례로 엮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마천이 한나라의 역사를 쓰려는 마음은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을 것이다.

사마천은 한나라의 역사를 정리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한족의 기원이었다. “한나라

54) 「태사공자서」 左丘失明 厥有國語

55) 서옥생, 84쪽. 『산해경』, 「대황경」 이하는 후한 시기의 첨삭을 거쳤다고 내용상 후한시기의 의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56) 서옥생, 앞의 책, 84쪽

57) 「태사공자서」 余先周室之太史也 自上世嘗顯功名於虞夏 典天官事 後世中衰 絕於予乎 汝復為太史 則續吾祖矣 …今漢興 海內一統 明主賢君 忠臣死義之士 余為太史而弗論載 廢天下之史文 余甚懼焉 汝其念哉

58) 「태사공자서」 卒三歲而遷為太史令 紬史記 石室金匱之書

59) 「태사공자서」 抽徹舊書故事而次述之

60) 「태사공자서」

는 오제(의 쇠미해진) 유업을 잇고 3대(하, 은, 주)의 단절된 사업을 이었다.”⁶¹⁾는 서술은 이러한 고민의 반영이었다. 그런데 서술을 하려다 보니 황제의 민족 귀속성이 문제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사마천은 여러 전적을 살폈고, 20세부터 여러 지역을 답사했었다. 그러나 보고 듣고 확인하면 할수록 한족의 기원은 알 수 없었고, 상고시대는 모두 동이족의 역사임을 확인할 뿐이었다.⁶²⁾

그래서 황제와 치우의 전투를 한족과 이족의 싸움으로 묘사했다.⁶³⁾ 그러나 탁록지전은 동이족 간의 전투였다. 치우는 “구려의 임금”⁶⁴⁾ 으로 동이족의 수장이 명백했고 황제 또한 동이족이었다.⁶⁵⁾ 「오제본기」는 황제의 후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조는 황제의 정비가 되어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천하를 얻었다. 그 첫째가 현효인데, 이이가 청양이다.⁶⁶⁾

현효 청양에 대해서 사마정은 “현효는 제국의 조부이다. 살펴보니 황보밀과 송충은 모두 현효와 청양이 소호”⁶⁷⁾라고 했다. 그런데 사마천은 본기 아래에 청양이 소호가 아니라는 뜻으로 “현효는 제위에 오르는 것을 얻지 못했다”⁶⁸⁾라고 했는데 또 이곳에서는 현효가 청양이라고 하면서 현효와 청양은 한사람이라고 했다. 즉 사마천은 ‘소호=현효=청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황제의 민족 귀속성을 증명하고, 한나라의 고대사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소호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소호는 동이족이 명백하기 때문이다.⁶⁹⁾ 한나라의 입장에서 소호가 황제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들의 고대사는 동이족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마정은 송충을 인용해서 “황제를 계승해 즉위했다”라고 했다. 송충뿐만 아니라 “자료수집이 취미였던”⁷⁰⁾ 황보밀의 『세왕세기』에서도, 손씨의 『세본』에서도 “소호는 황제의 아들이다. 이름은 설이고 자는 청양이다. 황제가 몰하자, 설이 섰는데, 금덕으로써 왕이 되어 금천씨라고 부른다.”⁷¹⁾라고 해서 소호-전욱-제국-요-순으로 오제를 설정했다. 전욱은 소호의 조카이고, 제국은 소호의 손자이다. 요는 소호의 증손자이다. 순은 전욱의 6세손이다. 황제의 아들은 소호이며, 소호는 동이족이 명백하고 전욱은 황제의 손자이다. 낙빈기는 염제의 뒤를 이어 소호가 계승했다고 했다. 지금의 동이박물관은 임기시에 있는데, 복희를 비롯해 염제, 소호, 전욱, 제국, 요, 순 등을 모두 동이족이라고 표시하고 있다.⁷²⁾

좌구명이 공자의 『춘추』를 해석한 『좌전』 「노소공17년(서기전 525)」조에도 담국(郟國)의 제후인 담자(郟子)가 노국(魯國)의 제후 소자(昭子)에게 “우리고조 소호씨가 즉위하셨”다고 했다.

61) 維我漢繼五帝末流 接三代(統)(絕)業

62) 이덕일, 『사기, 2천년의 비밀』, 만권당, 2022. 이덕일은 문헌자료와 현장답사 등을 통해 삼황 오제의 민족 귀속성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63) 이덕일, 『사기, 2천년의 비밀』, 만권당, 2022.

64) 孔安國曰「九黎君號蚩尤」是也

65) 이덕일은 삼황오제 뿐 아니라 치우의 민족 귀속성을 논증하고 있다. 이덕일, 『사기, 2천년의 비밀』, 만권당, 2022. 38-166쪽을 참고할 것.

66) 『사기』 「오제본기」 嫫祖為黃帝正妃 生二子 其後皆有天下 其一曰玄囂 是為青陽

67) 『사기색은』 玄囂 帝嚳之祖 案 皇甫謐及宋衷皆云玄囂青陽即少昊也

68) 『사기색은』 今此紀下云「玄囂不得在帝位」則太史公意青陽非少昊明矣 而此又云「玄囂是為青陽」

69) **소호가 동이족임을 밝히는 논문 쓸 것, /////**

70) 서옥생, 앞의책, 85쪽.

71) 『帝王世本』 少昊 黃帝之子 名契 字青陽 黃帝沒 契立 王以金德 號金天氏

72) 임기동이문화박물관편, 『도설동이』, 2015. **//// 원문 넣기**

담국 제후인 담자가 노국의 제후 소자에게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소호가 황제의 아들이며 제위에 오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사마천이 몰랐을 리가 없다. 사마천은 “화하족의 역사를 서술”하려는 의도에서 제위에 오른 소호를 삭제한 것이다.⁷³⁾

사마천은 염제도 이러한 이유로 황제의 형제가 아닌 것으로 서술했을 것이다. 사마천은 염제가 쇠약해지자 황제가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염제와 파천들에서 세 번 싸워 제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그런데 사마천은 ‘염제와 황제의 형제’설에 관한 기록을 봤거나,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마천 보다 600여년 뒤의 장수절이 여러 전적에서 확인했다면, 사마천이 못 봤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마천은 위의 주석자들도 알 수 있었던 ‘염제와의 형제설’을 삭제했다. 『국어』에는 ‘황제와 염제가 형제’라고 했는데, 사마천은 「오제본기」에서 그 사실을 서술하지 않았다.⁷⁴⁾

아마도 유교적 관점에서 고대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다. 염제와 황제가 형제라고 서술하면 황제가 형인 염제의 왕위를 찬탈하게 된다. 즉 시조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염제가 동이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삭제 했을 것이다. 낙빈기는 염제가 “산동 곡부에 도읍을 건설했다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내려온 정설”⁷⁵⁾이라고 했다. 서옥생도 산동성 곡부는 “동이집단의 본거지”⁷⁶⁾라고 했다. 샤를 세노보(Charles Seignobos)는 “현존하는 문헌에 어떠한 사건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염제는 상고시대의 인물이다. 문헌자료가 없다고 해서 구전된 자료까지 무시할 근거도 없다는 말이다.

염제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물에 빠져 죽어서 작은 새가 되었는데 정위라고 한다. 정위는 물에 빠져 죽은 것이 한이 되어, 바다를 메우려고 날마다 작은 돌이나 나뭇가지를 입에 물었다 바다를 메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⁷⁷⁾ 임기시 동이박물관에는 정위를 동이족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황제와 소호처럼, 딸인 정위가 동이족인데 아버지인 염제가 한족일 리가 없다. 따라서 염제가 동이족임이 명백함으로 염제와 황제가 형제라면 황제를 한나라의 시조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형제설 대신에 제왕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으로 설정했을 것이다.

한편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신화 속에는 내재된 역사가 상징성을 띠 수밖에 없는데, 부보가 “기(祁) 들판에 가서 큰 번개가 북두추성을 감싸는 것을 보고 감응해서 임신해 24개월 만에 수구에서 황제를 낳”⁷⁸⁾은 것도 그리하지만 태어날 때 얼굴에 일각(日角; 이마 중앙의 뼈가 해모양으로 돌은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다⁷⁹⁾는 기록은 하늘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번개는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개시를 상징”⁸⁰⁾하며 이마 중앙의 뼈가 해모양으로 돌는 것은 하늘과의 연관성을 말한다. 즉 하늘 또는 하늘의 자손임을 나타낸 것이다. 빛에 의한 감응신화 및 난생신화는 동이족 신화의 특징이다.⁸¹⁾

73) 이덕일, 「『사기』 「오제본기(五帝本紀)」 황제(黃帝) 및 전욱(顓頊)에 관해서」, 『역사와 융합』 제 6집, 바른역사학술원, 2020; 이덕일, 『사기, 2천년의 비밀』, 만권당, 2022.

74) 염제의 민족 귀속성 때문이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후술하고 여기에서는 실존성에 관해서 먼저 살핀다.

75) 낙빈기, 김재섭·최영택·홍천표 옮김, 『금문신고』, 한국금문학회, 2020, 204쪽

76) 서옥생, 앞의 책, 104쪽.

77) 정재서 옮김, 『산해경』, 민음사, 1996.

78) 「오제본기」, ‘황제’조 母曰附寶，之祁野，見大電繞北斗樞星，感而懷孕，二十四月而生黃帝於壽丘

79) 사마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기연구실 옮김, 『신주 사마천 사기』 1,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2020, 114쪽.

80) 『한국문화상징사전』 1, 두산동아, 1992, 335쪽.

그런데 사마천과 똑 같은 ‘화하족’의 기원에 대한 고민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마천이 황제를 한족의 조상으로 세웠지만, 고대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황제의 후손들은 모두 동이족이기 때문이다. 근현대 학자들은 황제를 화하족의 조상으로 확고히 하면서, 대신 황제의 후손에 대한 민족 귀속성을 의심한다. 황제와 그의 후손과의 관계를 1)동이족과 화하족이 융합되었다고 하거나 2)동이족이 황제를 중심으로 혈연맺기를 하거나 3)황제의 뛰어난 문화를 선향해 자기 조상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기억을 상실’해서 황제의 ‘잊혀진 후손’이 되었다는 것이다.

서옥생은 화하집단이 오늘날의 섬서성 황토고원지대에서 기원했는데, 희씨 성을 가진 황제와 강씨 성을 가진 염제가 황하 연안을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염제집단은 중원으로 황제집단은 그 북쪽으로 진출했는데, 염제는 토착세력인 동이족과 맞닥뜨려 충돌하다가 동이집단을 이끈 치우에게 대패 당한다. 염제집단은 북방의 황제집단에 구원을 요청하고, 참전한 황제집단은 처음에는 염제집단과 충돌하지만, 염제집단을 수용하고 남쪽으로 가 치우가 이끄는 동이족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황제는 동이족 중에서 상대적으로 협조적이었던 소호에게 옛 동이집단 통치권을 위임해서 큰 충돌 없이 두 집단이 하나의 집단으로 동화되었다는 것이다.⁸²⁾ 이러한 해석은 서옥생의 고민의 반영이다. 그의 딜레마는 황제를 한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소호는 동이족이 명백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소호가 황제의 아들이라는 기록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황제가 치우와 전투에서 승리한 후 동이족 중에서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소호에게 동이통치권을 위임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 요, 순, 우 시대에 묘족과 충돌이 있었는데, 화하족이 대파해서 묘족의 일부를 서북쪽으로 이주시켰고,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서야 화하, 동이, 묘만이 완전히 동화되어 진·한시기 이후에 ‘중국인’으로 지칭되는 집단이 되었다는 것이다.⁸³⁾

서옥생은 화하족의 기원에 대한 의문과 황제의 아들이 소호라는 기록을 황제가 치우를 물리치고 통치권을 소호에게 이임했다는 것으로 해결하고 이후 세 집단이 동화가 되어 현재의 화하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추군맹도 “화하족은 중국 원시 사회 말기에 있어서 중원의 염제, 황제 집단을 기초로 하여 동방 일부 이인집단(소호와 소호 일파)과 남방 일부 묘만집단(여와와 반호 일파)을 융합해서 형성 되었다”⁸⁴⁾고 하였다.

심송교는 중국의 근대학자들이 “黃帝”라는 기호(심불)를 이용하여 ‘구조적 기억상실’의 메카니즘을 가동시켜 “...기억을 창조”해 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기억상실의 메카니즘은 한 대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구조적 기억상실’은 “‘조상의 잊혀진 후손’을 되찾는 방식으로 집단적 기억을 바꾸어”⁸⁵⁾ 놓는 것이다. 가령 중앙의 지배적인 A라는 존속과 주변부의 B라는 존속이 있다고 하자. B라는 주변부의 존속들은 A라는 지배적인 존속들에게 인정을 받고 포섭되고자 할 때, 그들은 A조상에서 기원한 가상의 조상을 창조하여 A화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B라는 존속은 “스스로 과거에 대한 ‘구조적 기억 상실’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반

81) 김명옥, 「동아시아 난생신화와 중국 한족과의 관계 연구」, 『문화와 융합』 42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김명옥, 「한국과 일본 천손강림신화로 본 니니기노미코토 원적 연구」, 『문화와 융합』 43권 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82) 서옥생, 앞의 책, 28-29쪽.

83) 서옥생, 앞의 책, 2012.

84) 추군맹, 「華夏族起源考論」, 진태하, 『한자는 우리의 조상 동이족이 만들었다』, 명문당, 2019, 35쪽에서 재인용.

85) 심송교, 조우연 역, 「나의 피 軒轅에 바치리라」, 『역사민속학』 제2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321쪽.

면 A라는 존속은 B라는 조속을 포섭할 때, 그들의 조상에서 파생된 후손이 B의 존속임으로 그들을 새로이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구조적 기억상실의 메커니즘은 현실정치에 따라서 작동한다.

그런데 구조적 기억상실의 메커니즘을 가동하려면 공인된 조상 기호(심볼)가 필요하며 “연대가 오래 되고, 모호한 것일수록 효과적인데, 그런 의미에서 黃帝는 아주 이상적인 대상”⁸⁶⁾이다. 황제의 세계가 상세하지 않고, 확실치 않아 고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황제의 기억은 구조적으로 기억을 상실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그리하기 때문에 사마천이 소호를 지우고 황제를 한족의 시조로 만든 점은 당시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족 조상시조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지만 뚜렷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다.

고대에서 성씨는 씨족의 계보를 알려주는 지표인데, 황제는 희수(姬水)에서 일어났고, 염제는 강수(姜水)에 기반을 두었는데. 황제의 성씨는 ‘희’이고, 염제의 성씨는 ‘강’이다.⁸⁷⁾ 『국어』에 따르면 “황제의 아들은 25명 중 성씨를 얻은 자가 14명이고, 도합 열두 성씨인데, 희(姬), 유(西), 기(祁), 등(滕), 잠(箴), 임(任), 순(荀), 희(僖), 길(姁), 현(嬪), 의(依)이다.”⁸⁸⁾ 그러니까 황제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는 성이 열두 성인 것이다. 성에 대해서 『춘추좌전』에서 천자가 제후에게 출생한 지명으로 성을 하사한다고 했다. 또 성은 백대를 계승하고 이어진다고 했다. 배인이 인용한 『춘추좌전』을 보자.

“『춘추좌전』에는… ‘천자는 덕이 있는 사람을 제후로 삼을 때 출생한 지명으로 성을 하사하고, 내려준 토지로서 씨의 이름을 명합니다. 제후는 자를 씨로 삼는데 이를 따라 족명으로 삼습니다. 관직으로 대대로 공로가 있으면 벼슬 이름으로 족명을 삼기도 하는데 고을 이름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은공(隱公)이 그의 자로 족명을 삼아 전시(展氏)로 하라고 명했다. 이런 것으로 말한다면 천자는 성을 하사하고 씨를 명하고 제후는 족명을 명하는 것이다. 족명이란 씨의 별명이다. 성이라 백세를 거느리고 묶어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다. 씨란 자손이 나온 바를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본』의 편(編)에는 “성씨를 말하면 위로 두고 씨를 말하면 아래에 두는 것이다.”라고 했다.⁸⁹⁾

『춘추좌전』 소공 28년에 주나라는 점차 사방을 정벌해서 종친을 봉분했는데 71개국을 세웠고 그 중 희씨 성을 가진 나라가 40에 달했다.⁹⁰⁾ 주나라가 황제와 혈연으로 연결하고자 한다면, 71개국 모두 희성 국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왜 40개국만 종친인 희성으로 봉분했겠는가? 성씨에 관한 보학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희씨가 국성인 나라는 모두 황제의 후손이다. 당시 성씨는 일부 지배층이나 왕조에서만 사용했다.

제사는 국가의 큰 제도이고, 제도로써 정치가 이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를 신중히 해서 국가 典法으로 삼거늘, 지금 까닭 없이 전법을 가하는 것은 정치의 마땅함이 아니다. 성스런 왕께서 제사를 제정함에 백성에게 법을 베풀었으면 제사 지내고, 죽음으로

86) 심송교, 조우연 역, 「“나의 피 軒轅에 바치리라”」, 『역사민속학』 제2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321쪽.

87) 『국어』 黃帝 以姬水成 炎帝 以姜水成 … 黃帝爲姬 炎帝爲姜

88) 『국어』 黃帝之子 二十五宗 其得姓者十四人 爲十二姓 姬西祁己滕箴[箴]任荀僖姁依是也

89) 『사기집해』 春秋左傳 … 天子建德 因生以賜姓 胙之土而命之氏 諸侯以字爲氏 因以爲族 官有世功 則有官族 邑亦如之 公命以字爲展氏 以此言之 天子賜姓命氏 諸侯命族 族者 氏之別名也 姓者 所以統繫百世 使不別也 氏者 所以別子孫之所出 故世本之篇 言姓則在上 言氏則在下也

90) 서옥생, 앞의 책, 37쪽

일을 부지런히 했으면 제사 지내고, 애써서 나라를 안정시켰으면 제사 지내고, 큰 재앙을 잘 막았으면 제사 지내고, 큰 근심을 잘 막았으면 제사 지내니, 이 族類가 아니면 제사 지내는 典法에 들지 못한다.⁹¹⁾

제사는 국가의 제도이며 전법이기 때문에 같은 족류가 아니면 제사 지내는 규범이나 법칙에 들지 못한다고 했다. 즉 제사를 지내는한 구조적으로 기억을 잇을 수가 없다. 제사 대상을 기억할 때 그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송교의 이론을 응용한 왕명가는 ‘구조적 기억상실의 메커니즘’을 반부(攀附 연출 만들기) ‘라는 명칭으로 사용한다. ‘구조적 기억상실의 메커니즘’ 상실된 기억 공간을 의도적으로 다른 조상을 세우거나 후손을 넣어서 조상을 왜곡한다면 반부는 핏줄로 황제와의 연출 만들기이다. 반부에 관한 설명을 보자.

“반부(攀附)는 일종의 모방(模倣)욕구나 갈망에서 비롯되는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어떠한 신분이나 이익과 보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반부의 대상은 곧 정치, 사회 및 문화적으로 월등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되는 상징체로 설정된다. … 즉 중국문화의 우월함으로 인해 주변 이민족들이 이를 학습, 모방하게 되는 데 그것이 곧 한화라는 것이다. … 문화나 동질성 인정과 관련된 반부(攀附) 욕망은 그 행위를 하는 자와 받는 자의 사회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정치적으로 ‘변경’ 지역을 정복·통치하거나, 혹은 ‘한인’들이 변경지역의 ‘토착민’과 ‘토착문화’에 대해 폄하하고, ‘변경 집단’에 대한 ‘한인’들의 문화 우월성을 주장함으로써 비롯된다.”⁹²⁾

사마천이 『사기』를 지을 때 자료를 편집하여 목적성을 가진 사회기억을 재창조 했다는 것이다. 그는 황제를 “혼란의 시대를 종말”시킨 “영웅적 행적에 대한 묘사를 통해” “영웅적 조상의 통치 영역을 확인함으로써 영웅과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후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었다. 이를 통해 황제에 대한 기억이 확대 강조 되면서 화하에 대한 동질성이 확고해졌는데, 그 예로 하상주 3대가 황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禹)임금이 황제의 현손이라는 것, 상나라 시조 간적이 제국의 차비라는 것, 주나라 시조 기의 어머니가 제국의 원비라는 것이 그것이다. 또 이족인 형만의 땅에 나라를 세운 점을 들고 있다. 태백과 중옹이 주나라 태왕의 아들로 황제와 혈연적 연결고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초나라, 진(秦)나라가 전욱의 후손이라는 연출 만들기를 통해서 화하와의 동질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⁹³⁾

그런데 “반부의 대상은 곧 정치, 사회 및 문화적으로 월등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되는 상징체로 설정”된다고 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반부는 모방의 욕구인데, 월등한 동이족이 문화적으로 월등한 화하족이 되고 싶어 모방하고 학습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은 중국인들도 인정하듯이 동이문화이다. 중국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양사영은 삼척층 문화를 말하는데, 양소문화(BC 5000~BC 3000), 용산문화(BC 2300~BC 1800), 상문화(BC 1600~BC 1046)는 서로 연결돼있다고 했다. 상나라는 공인된 동이족 국가이다. 즉 양소문화에

91) 『國語』 魯語 上, 夫祀 國之大節也 而節 政之所成也 故 慎制祀 以爲國典 今無故而加典 非政之宜也 夫聖王之制祀也 法施於民則祀之 以死勤事則祀之 以勞定國則祀之 能禦大災則祀之 能扞大患則祀之 非是族也 不在祀典

92) 왕명가, 조우연 역, 「‘염황자손(炎黃子孫)’과 관련된 근대 ‘네이션’ 관념 구축의 고대적 기반-황제(黃帝)와의 연출 만들기[攀附]에 대해」, 『黃帝,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203쪽.

93) 왕명가, 159-167쪽.

서 상문화까지 연결돼있는 이 문화들이 동이족의 문화라는 뜻이다.

한편, 양소문화와 용산문화 사이에 후기 신석기 문화인 대문구문화(BC 4300~BC 2300)가 발굴되었는데, 중국의 사학자 정문(長文)은 소호족의 문화라고 단정했다.⁹⁴⁾ 선진사와 민족사를 전공한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당가홍도 “대문구문화와 용산문화의 자료를 볼 때 최소한 이 시기의 동이족 문화는 서로부터 동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으로부터 서로 발전해 간 추세가 뚜렷”⁹⁵⁾하다고 했다.

대문구문화는 제기를 비롯한 도기와 문자와 금속제련 기술 등의 문명 발생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로 진입하는 사회발전 단계를 보여준다.⁹⁶⁾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도구에 새겨진 부호들은 문자 발생요소일 터인데,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부호가 발전해서 갑골문자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경제도 중국문자는 동이족이 다 창조 했다고 했다.

우리나라(중국) 문자는 동이인이 다 창조 한 것인데, 설이 널리 보급한 까닭에 조자(造字)의 공이 설에게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고문을 대략 비교한즉, 동이가 문자의 지혜에 대해서는 서하(西夏)보다 우세하였으며, 동이인이 이미 교육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제가(諸夏)가 동이의 문화를 전적으로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 공자는 은나라 사람이며 창힐의 후예요, 상탕의 자손이다. 송(宋)에서 노(魯)로 이사하였으니, 곧 지금의 상구에서 곡부로 옮긴 것이다. 곡부는 소호의 고도이며, 상구는 삼박의 중심이며, 모두 동이문화의 발원지이다.⁹⁷⁾

대만의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문자(한문)는 동이족이 창조한 것인데, 이를 수용한 것은 한족임을 알 수 있다. 복희는 8괘를 만들었고, 황제는 산을 개척해서 길을 통하게 했고, 누조는 누예를 쳤으며, 신농은 농사와 의술을 발전시켰다. 우는 황하의 물줄기를 다스려서 홍수 피해를 줄여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다. 복신문화, 양소문화, 대문구문화 용산문화 상문화의 유물에는 의식용 제기가 많다. 제사 의례 문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토착민 및 두령가문에서는 한족의 문화를 모방 및 그에 반부(攀附)하여 한족과 연관되는 조상의 기원을 만들어냄으로써, 상대적으로 한족의 문화와 거리가 먼 집단을 향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한다.”⁹⁸⁾는 표현은 한족의 문화가 어떤 기반에 세워졌는지를 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경제는 “무공면에 있어서는 제하(諸夏)가 비록 승리를 획득했으나 문화 방면에 있어서는 동이에 동화되었다.” 라고 했다. 물론 이경제도, 황제를 화하족의 조상으로 보고 무공은 제하가 승리했다고 한 것이다.

한족의 조상을 황제로 세운 것은 사마천이 없는 선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고유한 한족의 집단적 기억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것은 도그마가 되어 절대적 위치에 있다. 현대 학자들은 여러 방법론, 구조적 기억 상실, 반부 등의 방법론으로 한족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황

94) 長文, 「大汶口文化陶尊符號試解」을 진태하, 『한자는 우리의 조상 동이족이 만들었다』, 명문당, 2019, 39쪽에서 재인용.

95) 당가홍, 「동이(東夷)와 그 역사적 지위-《동이고국사론(東夷古國史論) 서언(序言)》」, 『이하동서설』, 우리역사재단, 2011, 254-255쪽.

96) 원중호, 「중국 신석기 시대 사회구조에 대한 연구-교동반도 대문구문화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제 8권 제1호(통권 21집),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97) 李敬齋, 「整理文化中途自述」을 진태하, 『한자는 우리의 조상 동이족이 만들었다』, 명문당, 2019, 41쪽에서 재인용. 인용자 강조.

98) 王明珂, 조우연 역, 「‘염황자손(炎黃子孫)’과 관련된 근대 ‘네이션’ 관념 구축의 고대적 기반-황제(黃帝)와의 연줄 만들기[攀附]에 대해」, 『黃帝,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209쪽.

제의 민족 귀속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화하의 기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화하족 기원에 관한 연구의 근본은 황제에 있다. 사마천이 황제를 한족 조상의 기원으로 세운 이후 황제의 민족 귀속성을 말하지 않고 한족의 기원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여 년 전에 사마천이 한 고민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황제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이러한 고민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해결할 수 없다. 1차사료가 존재하는 한 중국은 황제가 동이족이라는 민족 귀속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5. 결론

황제의 실존성과 민족귀속문제는 고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문제다. 황제의 실존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고사변학파 이후 화하족의 기원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황제가 만들어진 시조인데, 만들어진 시기는 청말이라고 하거나, 전국시대말 진한초라고도 한다. 그러나 서옥생은 황제 시대를 전설시대로 규정하면서 전설시대는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구비전승되는 역사시대라고 했다. 황제의 실존성을 인정한 것이다.

한데, 지금까지 황제의 실존성 여부에 대한 논쟁은 있었지만, 황제의 민족 귀속성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사마천은 『사기』 곳곳에 황제의 민족 귀속성과 관련된 수수께끼들을 남겨 놓았고, 삼가주석자들은 고대의 여러 전적을 통해 황제가 동이족임을 서술해 왔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사마천은 『사기』를 편찬할 당시에 한족의 조상은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했을 것이다.

사마천 집안은 대대로 사관이었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문헌을 보았을 것이다. 또 20세부터 역사현장 답사를 통해 ‘구전되어 내려온 사료’를 접했을 것이다. 여러 정황은 사마천이 황제가 동이족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 듣고 확인하면 할수록 한족 조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마천은 한족 조상에 관한 궁금증을 황제와 치우의 전투로 묘사해 한족과 동이족의 전투로 만들었다.

그러나 탁록지전은 동이족 간의 전투였는데, 동이족으로 유명한 소호가 황제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마천은 「오제본기」에서 현효가 청양이가고 했는데, 항보밀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현효와 청양이 소호라고 밝혔다. 소호는 너무나 유명한 동이족이기 때문에 그 종족을 한족으로 바꿀수 없어서 사마천은 그를 삭제하고 황제를 한족의 시조로 삼았다.

사마천이 『사기』를 지을 당시의 고민은 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한족의 시조는 황제인데 그의 후손들은 동이족이기 때문이다. 현대에서 화하족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황제와 그 후손 동이족들 간의 관계를 해명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서옥생은 황제와 염제족이 섬서성 황토고원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황제는 동북쪽으로 이동하고, 염제는 동남쪽으로 이동해서 치우와 싸웠는데, 패하자자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황제가 참전하여 치우를 물리치고 동이족 중에 비교적 협조적인 소호에게 통치권을 위임했다고 해석했다.

심송교는 ‘구조적 기억상실’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한다. 동이족은 한족으로 포섭되고자 한족의 조상에서 기원한 가상의 조상을 창조해서 한족화 되었다고 한다. 황제의 세계가 상세하지 않고 고증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왕명가는 반부를 통해 동이족이 한족과의 혈연적 연결고리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반부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월등한 위치에 있는 대상을 모방하고자 하는데, 양사영은 삼척층 문화가 동이문화라고 했다. 이후에 발굴된 대문구문화도 동이족문화이다. 즉 동이족이 한족보다 문화 선진족이었다. 우수한 동이족의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면서 중국은 동이족과 한족이 융합되어 화하족을 형성하였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한족의 조상 기원인데, 황제의 민족귀속성을 말하지 않고 한족의 기원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데에 있다. 사마천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화하의 기원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발터 벤야민은 역사의 연속성을 파괴한 ‘메시아적 시간 개념’을 말한 바 있다.⁹⁹⁾ ‘메시아적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각에서 그동안 잘못 인식되었던 것을 다시 되돌릴 구원의 시간이다. 즉 사마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황제를 중국의 조상의 여겼던 관념에 대한 단절이 필요하다. 중국 고대 문명을 연 황제는 동이족이었는데, 사마천 이후 한족의 조상으로 둔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제 황제를 중국의 시조로 여겨왔던 ‘역사적 연속성’을 해체하고, 동이족으로서의 문화기호로 구축해야 할 시간이다.

99) 김영룡, 「‘지금 이때’와 ‘남은 시간’-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관하여」에 나타난 성스러운 구원의 시간 연구」, 『카프카 연구』 34집, 한국카프카학회, 2015.

[토론]

“황제의 실존성과 민족 귀속성에 관한 소고” 토론문

오종홍(성균관대)

이 논문은 중국 화하족의 시조라고 알려진 황제헌원이 과연 실존했던 인물인가, 그리고 그가 정말 화하족인가 아니면 화하족과 대척점에 있던 동이족인가를 밝히려는 연구로 보인다. 본 논문의 핵심은 황제가 동이족임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토론문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연구자는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황제가 실존 인물임을 밝혔다. 이어 그가 동이족임을 논증하였다. 문헌 자료와 동이족의 것으로 보이는 고고 유물, 동이족 관련하여 중국 현지를 답사한 자료, 시조 탄생설화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증명해 나가는 것이 강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황제=동이족 논거에는 토론자가 수긍하기 어려운 몇 가지가 보인다.

연구자가 제시한 황제가 동이족이라는 논거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산둥성 임기시 동이박물관에서 동이족 태호복희, 염제, 소호 등 인물들을 나열하였다.

둘째, 산둥성 임기시 동이박물관에서 염제의 딸, 정위를 동이족이라고 한다. 염제와 황제는 형제다. 그러니 황제는 동이족이다.

셋째, 소호는 동이족이다. 그런데 소호는 황제의 아들이다. 그러니 황제는 동이족이다.

넷째, 산둥성 일대 고대 문화 유물, 유적이 동이족의 것인데 이 시기에 황제가 활동하였다.

이 네 가지 논거 중에서 황제가 동이족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첫째 논거는 엄밀히 말해서 근거가 될 수 없다. 동이 박물관에서 동이족이라고 하니 황제도 동이족이라는 것은 그냥 주장일 뿐이다. 물론 동이 박물관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을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려면 박물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시하는지까지 밝혀야 한다.

두 번째 논거도 마찬가지다. 염제의 딸, 정위가 동이족이라고 한 것은 동이 박물관의 주장이다. 염제의 딸이 동이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1차 사료나 고고학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연구자는 『국어』¹⁰⁰⁾의 기록을 근거로 염제와 황제가 형제라는 것까지 밝혔다. 여기서 정위가 동이족이라는 것을 1차 문헌자료, 고고학 자료 등으로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셋째 논거에서는 소호가 동이족이라는 1차 문헌자료, 또는 고고학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렵다면 중간에 연결고리를 넣어서 논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이족 수장 중의 하나가 치우천왕인데 치우천왕은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훈에 따르면 14세 자오지 한웅천왕이다. 한웅천왕을 상징하는 것은 새다. 만주 평강지역서 나온 금동패 장식에는 독수리가 곰, 범, 이리를 감싸고 있다. 독수리가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온 한웅천왕을 상징한다. 고구려 벽화 중 각

100) “戰國(公元前475年-公元前221年)”, ctext(국어, 논어상).

저층 벽화의 신령한 나무에 새가 앉아 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는 곰과 범이 있다. 이 나무의 새가 한웅천왕이다. 이찬구 박사에 따르면 동이족의 숭배 동물이 새이고 조이족으로 통한다. 이러한 내용을 새를 숭배하는 소호에게 적용하였다면 소호가 동이족이라는 것을 논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논거는 연구자가 제시한 동이족의 양소문화(BC 5000~BC 2700)가 황제가 활동하던 시기(대략 서기전 3천년경)와 중첩되니 황제가 동이족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양소문화는 지역은 산서성 황하 중류 지역이고 황제가 활동한 지역은 탁록으로써 현재 하북성 북경 인근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황제가 동이족이라는 근거는 연구자가 제시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황제가 동이족임을 밝히려면 먼저 동이족이 화하족과 다른 점이나, 동이족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예를 들어 신체적 특징으로 새끼발가락이 발톱이 갈라져 있다든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궁뎅이에 푸른 반점이 보인다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황제가 이러한 특징이나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대입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방법인데 이러한 동이족의 신체적 특징과 기준을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5천 년을 웃도는 시대 인물인 황제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기록이 없는 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신에 황제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이 동이족이라는 기록을 제시하여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제시한 위 네가지 방법이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토론자가 연구자가 제시한 논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연구자의 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한 것일 수 있으니 토론자가 제시한 것에 오해가 있거나 모르고 쓴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기 바란다.

중산국(中山國) 고찰

송기섭(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1. 서론	3) 세계 및 흥망사
2. 건립에서 멸망까지	3. 멸망 이후의 중산
1) 형성배경 및 민족의 실체	4. 결론
2) 위치비정	

1. 서론

중산국은 중국 북방의 유목민족 적족(狄族)의 한 갈래인 백적(白狄)이 처음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일대에 세워 선우(鮮虞)라고 하였고, 서기전 507년 선우가 진나라 평중에 출병하여 진군을 대파하고, 그 이듬해 중인성(中人城[지금의 당현 서북 栗山])에 도읍함으로써 선우중산, 또는 중산(中山)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중산이라는 용어는 중인성 안에 산(山)이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써 지금의 산서성(山西省)과 하북성(河北省) 일대에 자리 잡고 활약하는 시대를 연다. 그 후, 서기전 414년에 중산무공(中山武公)이 즉위하고, 위(魏)나라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 산서성 오대산 기슭에서 태항산맥을 넘어 동쪽의 평야(平野)지대인 고(顧[지금의 정주])에 자리 잡음으로써 중산시대가 된 것이다. 이때 무공은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라의 안정을 꾀했으나, 결국 무공 6년(기원전 406년) 위(魏)나라 장군 악양(樂羊)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 이후 환공(桓公, 재위 BC 380~BC 340)이 태항산맥(太行山脈) 동쪽 기슭 영수로 무리를 이끌고 이동하여 기원전 380년 무렵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고, 한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국시대 8웅에 치부될 만큼 강성한 때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중산국의 사적은 《좌전》, 《사기(史記)》 등에 단편적인 사실만 언급되어 있을 뿐 사료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은 까닭에 그 실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사마천이 방대한 사적을 서술하면서도 짧지 않은 역사와 중원문화와 북방문화가 교차하는 중산국을 소홀히 다루었는데, 이는 북방의 적족(狄族)이 세운 나라이고, 참고할 수 있는 사료와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중산을 빼버리고 전국(戰國) 8웅이 아닌 7웅으로 정리한 것은 진나라가 통일하기 70여 년 전, 나라의 존재가 없어짐으로써 드라마틱한 요소가 적다는 판단에서 중산국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된다. 중원(中原)의 문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선(朝鮮), 흉노(匈奴), 남월(南越) 등을 〈열전〉 속에 포함하면서도 이마저도 배제하였으니, 이러한 의심이 가게 하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1973년 중산 지방의 유물유적을 발굴하기 이전까지는 중산국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석가장시의 인근에서 중산국 시대의 고성과 왕릉이 발굴되었고, 이곳에서 중산국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오으로써 중산국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발굴된 유물에서 유목과 농경이 융합된 문화가 확인되었고, 정(鼎) 등의 동기(銅器)에 새겨진 명문(銘文)에서 효충(孝忠) 문화를 알게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문화를 알게 하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은(金銀) 목걸이, 옥패 등이 다수 출토되어 중산국의 생활 수준을 짐작할 수 있으며, 화폐를 사용했던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중산국과 관련한 연구서 및 논문이 출현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주기상

(朱岐祥)의 〈중산국사이명고(中山國史彙銘考)〉¹⁾, 단연근(段連勤)의 〈북적족여중산국(北狄族與中山國)〉²⁾, 노홍창(路洪昌)의 〈전국중산국약간역사문제고변(戰國中山國若干歷史問題考辨)〉³⁾, 양박(楊博)의 〈진대중흥여춘추중산상관역사문제(晉代中山與春秋鮮虞相關歷史問題)〉⁴⁾, 정미(程薇)의 《清華簡〈繫年〉與晉伐中山》⁵⁾ 등이 있어 문헌적 연구에 진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강윤옥(姜允玉)의 〈전국시대 중산국 청동기명문(青銅器銘文) 이체자(異體字) 고술(考述)〉⁶⁾과 〈전국시대 중산국 銘文에 나타난 음운현상 고찰〉⁷⁾, 그리고 학위[석사]논문으로 제유미(諸裕美)의 《전국 중산국과 그 문자 연구》⁸⁾가 있는데, 제유미의 학위논문만 문헌에 의한 사술(史述)이 약간 이루어졌을 뿐, 그 외의 논문 모두가 유물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중산국의 유적유물에 관한 논문으로 편중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료(史料) 부족과 중국의 역사라는 인식으로 관심도가 떨어진 까닭에 있을 것이다.

필자도 또한 중산에 대해 어렵듯이 알고 있는 부류 중 한 사람이었다. 관심을 품게 된 것은 《사기》를 접하고 나서인데, 접하면 접할수록 미스터리해 휩싸이게 되었고, 그럴수록 더욱 흥미로움을 느꼈다. 이에 이러한 미스터리를 한하나 풀어본다는 심정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두려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본고(本攷)에서 1차 적으로 사료가 부족하나마 문헌을 바탕으로 삼아 나라 생성 과정부터 멸망 이후까지, 위치, 흥망 등의 변천사를 고찰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서술해 보고자 한다.

2. 건국에서 멸망하기까지

1) 형성배경 및 민족의 실체

중산국이 가장 먼저 《사기》에 기록된 것은 진(秦)나라 소양왕(昭襄王) 때이다. 〈진본기〉의 소양왕 8년(서기전 299년)에 “조나라에서 중산국을 쳐부수자 그 군주가 도망하여 마침내 제나라에서 죽었다.”⁹⁾와 11년에 “제(齊), 한(韓), 위(魏), 조(趙), 송(宋)과 중산(中山), 다섯 나라가 함께 진(秦)나라를 공격해 염지(鹽氏)까지 이르렀다가 돌아갔다.”¹⁰⁾라는 문장이 이것이다. 여기에서 중산은 당시 진(秦), 초(楚), 송(宋), 제(齊), 한(韓), 위(魏), 조(趙), 연(燕) 등의 나라와 함께 거명될 만큼의 위상이 있었던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사마천은 이들의 나라와는 달리 〈진본기〉에 단편적으로 취급하였고, 또한 〈세가〉에서도 〈조세가〉, 〈위세가〉, 〈전경중완세가〉에 몇 문장만 단편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까닭에 《사기》에 기록된 내용만

-
- 1) 주기상(朱岐祥), 《중산국고사이명고(中山國史彙銘考)》, 자인본(自印本), 1984.
 - 2) 단연근(段連勤), 《북적족여중산국(北狄族與中山國)》, 하북인민출판사, 1982.
 - 3) 노홍창(路洪昌), 《전국중산국약간역사문제 고변(戰國中山國若干歷史問題考辨)》
 - 4) 양박(楊博), 〈진대중흥여춘추중산(晉代中山與春秋鮮虞) 상관역사문제(相關歷史問題)〉, 출토문헌 제8집(2018)
 - 5) 정미(程薇), 〈청화간〈계년〉여진벌중산(清華簡〈繫年〉與晉伐中山)〉, 심수대학학보, 2012.
 - 6) 강윤옥, 〈전국시대 중산국 청동기명문(青銅器銘文) 이체자(異體字) 고술(考述)〉, 《중어중문학》, 한국중어중문학회, 1994, 제15~16 합집(合集).
 - 7) 강윤옥, 〈전국시대 중산국 銘文에 나타난 음운현상 고찰〉, 《중어중문학》, 한국중어중문학회, 1995, 제17집
 - 8) 제유미, 《전국 중산국과 그 문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 9) 사마천, 《사기》, 〈진본기〉. 趙破中山 其君亡 竟死齊(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기연구실, 〈신주사기〉, 〈진본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p189.
 - 10) 앞의 책. 齊韓魏趙宋中山五國 共攻秦 至鹽氏而還(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기연구실, 〈신주사기〉, 〈진본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p191.

가지고는 중산국의 존재와 약간의 역사적 사건만 대략 알 수 있을 뿐,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산국에 대하여 통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적(事績)의 자료와 이를 연구한 학자들의 자료를 살필 수밖에 없다.



[지도1] 전국시대 주요국가

중산국이 형성된 배경에 관해서 살펴보면 중산국을 선우(鮮虞)의 후신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각종 사료를 통한 많은 사학자의 고증에서 이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대체로 춘추시대 말기에 백적의 선우가 지금의 섬서성 북쪽 내몽고 지역에서 산서성과 하북성 일대로 이동하여 터를 잡았고, 무공(武公)이 산서(山西)성 태원(太原)의 동북쪽 오대산(五臺山) 자락 선우수(鮮虞水)의 부근에서 즉위한 후 진(晉)나라의 압박으로 인하여 태행산을 넘어 하북(河北)성에 고(顧)에 자리 잡고 나라의 안정을 꾀함으로써 중산국이 되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선우라는 용어는 이미 춘추시대의 사서, 《좌전(左傳)》과 《국어(國語)》에 등장하고 있다. 《좌전(左傳)》 소공(昭公) 12년 조에 “진(晉)나라 순오(荀吳)가 제나라 군사와 만나는 척하고 선우에게 길을 빌려서 마침내 석양(昔陽)으로 들어갔다.”¹¹⁾라고 했고, 소공 13년 조에도 “선우인이 진군(晉軍) 전부가 출동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변경을 경계하지 않고, 또 무비(武備)도 보수하지 않으니, 진나라 순오가 저옹(著雍)에서 상군(上軍)을 거느리고 가서 선우에 침입하여 중인(中人)에 이르렀으며, 충거(衝車)를 달려 적인(狄人)을 공격해서 대승하고, 많은 사람과 재물, 적의 군사를 사로잡아 돌아갔다.”¹²⁾라고 했다. 《국어(國語)》, 〈정어(鄭語)〉에서도 주나라 북쪽에 선우가 위치하였다고 기록하여 당시 선우국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소공 13년 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우와 중산국이 일체이고 중인에 거주하는 사람을 적인(狄人)으로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우의 민족성에 관해서 주장하는 것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한 부류는 기자의 후예설이다. 응소(應劭)는 《풍속통의(風俗通義)》에서 “선우는 기자의 후예이고 자성(子姓)이다.”¹³⁾라고 하였고, 《선우황비문(鮮虞璜碑文)》에도 “(선우)의 이름은 황이며, 자는 백겸이다. 그의 선조는 은나라 기자(箕子)의 후예에서 나왔다.”¹⁴⁾라고 하여 선우가 상나라 계통의 동이족

11) 좌구명, 《左傳》昭公十二年. 晉荀吳僞會齊師者 假道於鮮虞 遂入昔陽

12) 앞의 책, 昭公十三年. 鮮虞人聞晉師之悉起也 注 而不警邊 且不修備 注 晉荀吳自著雍以上軍侵鮮虞 及中人 驅衝車 大獲而歸

13) 응소, 《風俗通義》. 鮮虞為箕子後代 為子姓

14) 《선우황비문》. 君諱璜 字伯謙 其先祖出于殷箕子之苗裔

임을 밝힌 것이다. 또 한 부류는 백적이라는 설이다. 《세본(世本)》, 〈씨성(氏姓)〉편에는 “선우는 희성(姬姓)이고 백적(白狄)이다.”¹⁵⁾라고 하였고, 〈조세가〉의 집해(集解) 주(注)에서 무공에 관하여 “서광은 서주 환공(桓公)의 아들이다. 환공은 효왕(孝王)의 아우이고 정왕(定王)의 아들이라고 말했다.”¹⁶⁾라고 하였으나, 색은(索隱)에서 “살펴보니 중산은 옛 선우국으로 희성이다. 《세본(世本)》에서 이르되 중산 무공이 고(顧)에 거처했고 환공 때 영수로 옮겼으며 조나라 무령왕에게 멸망했는데, 누구의 자손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서광이 서주 환공의 아들이라고 했으나 또한 근거한 바가 없으니, 대개 그 실상을 능히 알지 못했을 따름이다.”¹⁷⁾ 라고 하여 희성을 인정하면서도 서광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중산국의 민족성에 관하여 자성(子姓)나, 희성(姬姓)이나를 가지고 논란이 많다.

물론 선우국이 중산국의 전신이라는 것과 선우가 진(晉)나라의 압박으로 산서(山西)성 태원(太原)의 동북쪽 선우수(鮮虞水)의 부근에 있다가 태행산을 넘어 하북(河北)성에 자리 잡은 백적민족이라는 설에 대해서 대체로 일치한다. 이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한동안 선우, 중산으로 함께 불린 점 등, 여러 정황에서 백적의 이동설에 다수의 학자가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논란은 《풍속통의(風俗通義)》와 《선우항비문(鮮虞璜碑文)》¹⁸⁾에는 기자의 후에이며 자성(子姓)이라고 하고, 《세본(世本)》, 〈씨성(氏姓)〉편과 《사기》의 집해·색은에서는 희성(姬姓)이라고 한데서 중산국의 민족성에 관하여 모순이 생긴다.

《백도백과》에는 백적(白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왜 희성인가에 관해 종합한 두 가지 견해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중산의 무공(武公)이 주문왕의 15번째 아들 필공(畢公) 고(高)의 후손 필만(畢萬)의 후예라는 설이다. 또 하나는 주문왕이 동생 곽중(虢仲)에게 서곡국을 봉하여 서곡국의 역대 국군(國君)을 세습하게 하고, 주왕조의 경사직을 겸직하게 했다. 동시에, 삼공의 한 사람으로 주왕조의 남정북전(南征北戰)과 동토서살(東討西殺)하는 일과 부정을 응징하는 임무를 맡겼는데, 주선왕 때 곽국(虢國)의 곽계자(虢季子) 백(白)이 북쪽으로 흉노를 방어하다가 내몽골 살랍제현 오소하와 유계하의 삭방성 뒤에 남아 있었고, 일부의 세력이 섬서성 북쪽으로 나아가 머무르게 되었다는 설이다.¹⁹⁾ 즉 필만(畢萬)의 후예나 곽국의 일부 세력이 섬서(陝西)성 북쪽으로 가서 백적(白狄)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나라 왕족으로 분봉한 나라의 성씨를 희씨로 설정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사료로 충분하지 않고, 또한 필만의 후예는 진(晉)나라가 3분 되었을 때, 위나라의 군주로 즉위한 사람[문후]으로 수차 침공하여 산서성 일대의 백적이 중산으로 이동해야 할 만큼 압박한 역사적 사실로 보더라도 신뢰하기가 힘들다. 즉 후자도 그 근거로써는 희성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양옥승은 《사기지의(史記志疑)》에서 서주의 후손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백적(白狄)의 무리이다. 후대의 인식도 적(狄)이나 용(戎)의 무리라고 했다²⁰⁾며 집해와

15) 《세본》, 〈씨성〉편. 鮮虞 姬姓 白狄也

16)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기연구실, 《신주사기》 21권, 〈조세가·정세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p180. 徐光曰 西周桓公之子 桓公者 孝王弟而定王子

17) 앞의 책. 按 中山 古鮮虞國 姬姓也 系本云 中山武公居顧 桓公徙靈壽 爲趙武靈王所滅 不言誰之子孫 徐光云西周桓公之子 亦無所據 蓋未能得其實耳

18) 《선우항비문(鮮虞璜碑文)》은 지금의 천진시 무청현에서 발견된 비로 서기 165년에 세워진 비이다. 이 비문에 “그 선조는 은나라에서 나온 기자의 후예이다.(其先祖出于殷箕子之苗裔)”라는 명문이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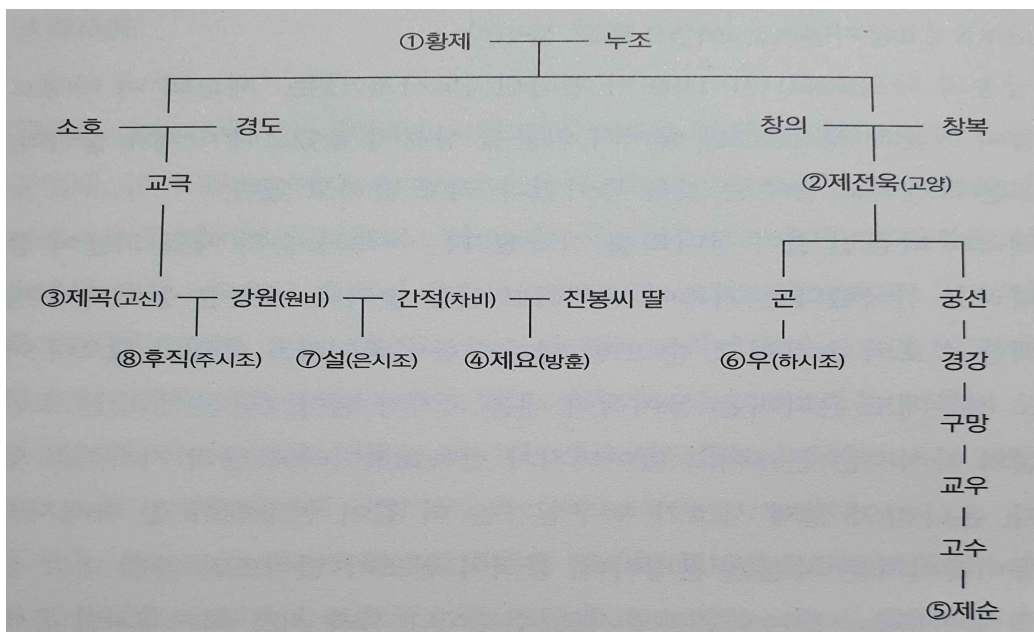
19) 《백도백과》, <https://baike.baidu.com>. 白狄의來歷 也有說是來自周文王封給弟弟虢仲的西虢國 西虢國歷代國君世襲兼任周王朝卿士一職 同時又是三公之一 擔負為周王朝南征北戰東討西殺以懲罰不庭的任務 可能是周宣王時期虢國國君虢季子白北禦獫狁 在內蒙古薩拉烏素河榆溪河朔方城之後 其部分後裔就留在陝北了

20)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기연구실, 《신주사기》 21권, 〈조세가·정세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색은의 주장을 비판하며 백적의 무리로 단정하였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 민족이 자성(子姓[이적(夷狄)])이나 희성(姬姓[화족(華族)])아나의 실체를 논한다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기연구실에서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사마천의 《사기》를 토대로 《신주사기》에서 분석한 결과 이족(夷族)과 화족(華族)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規準)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화(華)와 이(夷)를 가리게 된 것은 공자의 존주대의(尊周大義) 사상에서 움을 틔웠고 후대로 내려오면서 좀 더 확대되었다. 특히 사마천은 문명과 비문명, 우월성과 비속함의 구도로 더욱 고착시킴으로써 한족의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속셈을 도구화시킨 것이다. 역사의 시작을 삼황(三皇)이 아닌 오제(五帝)의 황제부터 하였고, 동이(東夷)의 표상 소호를 슬쩍 현효라는 이름으로 개조함으로써 알지 못하게 함은 물론, 실질적 오제의 시작이 소호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삭제하고 황제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데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또 황제로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치더라도 황제의 자식이 소호와 창익인데, 하나는 이(夷)고 다른 하나는 화(華)란 말인가. 도표를 살펴보면 그 모순된 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표1] 사마천이 설정한 오제 및 하은주 시조 계보도²¹⁾

2) 위치비정

《國語》〈鄭語〉에 정환공은 (주유왕의) 사제가 되어 서주 민중과 동주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나 당시 주왕실은 매우 어지러웠고 환란이 많았다. 이에 그는 이러한 환란에서 피할 수 있는 법을 물었는데, 사백이 대답한 내용을 보자.

p180~181.

21)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기연구실, 《신주사기》 3권, 〈은본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p14. 이 도표는 황제(黃帝)부터 주(周) 시조까지 〈오제본기〉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주왕실은 곧 쇠락하고 융과 적들은 반드시 번창할 것이나,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성주(成周)의 남쪽으로는 형만, 신, 여, 응, 등, 진, 채, 수, 당, 북쪽으로는 위, 연, 적, 선우, 노, 낙, 천, 서, 포, 서쪽으로는 우, 곽, 진, 외, 진, 곽, 양, 위, 예, 동쪽으로는 제, 노, 조, 송, 등, 설, 추, 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 중 (제후가) 주왕의 지자(支子), 모제(母弟), 조카와 외삼촌이 아니라면 만, 형, 융, 적인입니다. 친척이 아니면 모질고 고집스러워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제수 · 낙수 · 황하 · 영수의 사이로 가야 할 것입니다.²²⁾



[지도2] 춘추시대 백적(白狄)의 위치

22)《國語》,〈정어(鄭語)〉 16권.王室將卑 戎狄必昌 不可遏也 當成周者 南有荊蠻申呂應鄧陳蔡隨唐 北有衛燕狄鮮虞潞洛泉徐蒲 西有虞隰晉隗霍楊魏芮 東有齊魯曹宋滕薛鄒莒 是非王之支子母弟甥舅也 則皆蠻荊戎狄之人也 非親則頑 不可入也 其濟洛河潁之間乎

오태하 서남쪽의 청수하(淸水河)를 가리킨다.])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름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적(史籍)을 통해서 이를 입증할 만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국어》의 〈제어(齊語)〉편에 “춘추시대 제환공(齊桓公)이 동남쪽으로 래(萊), 거(莒), 서이(西夷), 오(吳), 월(越) 등 31개의 나라를, 남쪽으로 초나라를, 북쪽으로 산융(山戎)과 고죽(孤竹)을 정복하고 서쪽으로 백적의 땅을 정벌하여 빼앗았다.”²³⁾라는 기록, 서기전 530년에 “진(晉)나라 장군 순오가 선우에게 고나라 도읍 석양[지금의 하북성 진주시]을 치겠다고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²⁴⁾는 기록, “진나라 순오가 저옹으로부터 상군을 이끌고 선우를 침략해 중인[지금의 하북성 당현 서북쪽에 이르러서 충거를 물고 다투고 전리품을 크게 획득하여 돌아왔다.”²⁵⁾는 기록, 서기전 507년에 “선우 사람이 진나라의 군사를 평중[하북성 당현의 서북쪽]에서 무찔렀다.”²⁶⁾는 기록, 서기전 459년 ~ 서기전 457년에 “진나라가 중산을 공격해서 궁어의 언덕[지금의 하북성 역현 경내]을 빼앗았다.”²⁷⁾는 기록, 서기전 457년에 “진나라가 신치목자를 파견하여 적(翟)을 공격해서 좌인(左人), 중산(中山)을 빼앗았다.”²⁸⁾는 기록, 《후한서(後漢書)》 〈정국지(鄭國志)〉에 “신시에 선우정이 있고, 옛나라는 자성이다.”²⁹⁾라는 기록으로 보아 선우·중산의 위치를 태행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서성[태행산맥 서쪽]과 하북성[중산] 일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논점, 선우가 백적의 후손으로서 이곳으로 이동하여 정착한 것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이곳 선우수 가에 정착하고 살았느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백적이냐, 기자의 후손이냐와 관련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다. 연구가 미진하여 가부를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서주의 후손이라는 것은 터무니없고 백적(白狄)의 무리라고 주장하는 양옥승의 말에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백적의 땅에서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 한다. 만약 이곳으로 이동하여 정착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도권 밖의 처지에서 제도권으로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방외의 민족에서 중원의 민족으로 입성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지도3] 선우의 위치



[지도4] 선우중산의 위치

- 23) 좌구명, 《국어》 〈제어(齊語)〉, 東南多有淫亂者萊莒徐夷吳越 一戰帥服三十一國 遂南征伐楚 濟汝逾方城望汶山 貢絲于周而反 荊州諸侯莫敢不來服 遂北伐山戎制令支斬孤竹而南歸 海濱諸侯莫敢不來服 與諸侯于是飾牲為載 以約誓于上下庶神 與諸侯戮力同心 西征攘白狄之地
- 24) 좌구명, 《좌전(左傳)》 〈소공(昭公)〉 12년조, 晉荀吳僞會齊師者 假道於鮮虞 遂入昔陽
- 25) 앞의 책 13년조, 晉荀吳自著雍以上軍侵鮮虞 及中人 驅衝競 大獲而歸
- 26) 좌구명, 《좌전(左傳)》 〈정공(定公)〉 3년조, 鮮虞人敗晉師於平中
- 27) 《죽서기년(竹書紀年)》 荀瑤伐中山 取窮魚之丘在
- 28) 열어구, 《열자(列子)》 〈설부편(說符篇)〉, 趙襄子使新穉穆子攻翟 勝之 取左人中人
- 29) 사마표, 《후한서(後漢書)》 〈정국지(鄭國志)〉 新市有鮮虞亭 故國 子姓

기원전 414년 선우국은 진(晉)나라와의 대립으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게 된다. 결국 진(晉)나라의 압박으로 이동을 하는데, 중산무공이 태원의 오대산 기슭에서 태행산맥을 넘어오게 된다. 이에 중산국의 위치를 알게 해주는 문헌의 기록이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면 중산국의 영역이 그려진다.

《후한서》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북평(北平)이 중산국에 속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후한서》, 〈제기제일상(帝紀第一上)〉편의 주(注)에서 “북평은 중산국에 속하는데, 지금의 이주 영락현이다.³⁰⁾”라고 하였고, 《자치통감(資治通鑑)》 40권에서도 “북평은 중산국에 속하는데, 지금의 이주 영락현이다.”³¹⁾라고 했다. 북평은 지금의 하북성 서쪽 래원(涿源)현인데, 태행산(太行山), 연산(燕山), 항산(恒山)의 세 산이 만나고, 거마하(拒馬河), 이수(易水), 래수(涑水)의 근원이 되는 곳이다. 보정시에서 서북쪽으로 약 200Km정도의 거리로 태행산맥 동쪽 기슭이 된다.

《세본(世本)》에는 “중산무공은 고(顧)에 거주했고, 환공이 영수(靈壽)로 옮겼다.”³²⁾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유(高誘)는 고(顧)를 노로중산(盧奴中山)이라고 했는데, 노로중산은 곧 지금의 정주(定州)시를 가리킨다. 또 《사기》〈위세가〉에 “악양이 위문후의 장군이 되어 중산을 정벌하여 취하니 위문후가 악양을 영수에 봉했다.”³³⁾라고 했다. 영수는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평산현(平山縣)으로 하북성 중서부, 호타하의 북쪽이고 서쪽에는 태행산에 접해 있는 곳이다. 중국의 《유기백과(維基百科)》에서는 “하북성 중부 태행산 동쪽 기슭의 일대에 위치하여 중산국은 당시 조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³⁴⁾라고 했다.

《사기》〈조세가〉에는 “지금 중산국은 우리의 배 속에 있고, 북쪽으로는 연나라가 있다.”³⁵⁾라고 조무령왕이 대신 누완(樓緩)에게 계책을 말하는 데에서 중산국을 에워싸고 있음을 알게 한다.



[지도5] 태행산맥 동쪽으로 이동한 중산의 강역

30) 범 열, 《후한서》, 〈제기제일상(帝紀第一上) 광무제(光武帝)〉, 北平 縣 屬中山國 今易州永樂縣也.

31) 사마광, 《자치통감(資治通鑑)》 권40, 北平 縣 屬中山國 今易州永樂縣也.

32) 《세본(世本)》, 中山武公居顧 桓公徙靈壽

33) 사마천, 《사기》〈악의열전〉,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기연구실, 《신주사기》 22권, 〈위세가〉,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 p220.) 樂羊為魏文侯將 伐取中山 魏文侯封樂羊以靈壽

34) 《유기백과(維基百科)》, <https://zh.wikipedia.org>, 位於今河北省中部太行山東麓一帶 中山國當時位於趙國和燕國之間

35) 사마천 《사기》〈조세가〉, 今中山在我腹心 北有燕(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기연구실, 《신주사기》 21 권, 〈조세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p220.)

중산국의 유물유적이 발견된 곳도 중산국의 한 위치가 된다. 1973년부터 중산지역의 유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하북성 석가장시에서는 적석묘 및 많은 동이족의 유물이 발굴됨으로써 중산국의 영지였음을 추정하게 한다.

이상에서 나오는 지명을 토대로 지도를 작성해 보면 중산무공이 태항산 동쪽 산록으로 이동한 이후의 위치를 [지도5]로 비정할 수 있다.

3) 세계(世系) 및 흥망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산국은 선우국의 후신이다. 사적을 통하여 살펴보면 국명이 선우 → 선우중산 → 중산으로 변천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좌전》〈소공(昭公)〉 20년 조의 두예(杜預)의 주(注)에서 “백적의 별종이다.”³⁶⁾라고 했으며, 《사기》〈조세가〉의 색은에서도 “중산은 옛날 선우국으로 희성이다.”라고 한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즉 중산국은 옛 선우국으로 백적(白狄)의 별종이라는 것이다.

선우라는 명칭은 《좌전》 노소공(魯昭公) 편에 처음 나타나고 《국어》, 《세본》《전국책》 등 몇몇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 산서성과 하북성 일대로 이동하여 정확한 이후 사적의 단편적 기록을 통하여 선우중산의 국세(國勢)의 성쇠를 어렵듯이 판단할 수는 있다. 앞에서 언급한 춘추시대 제환공(齊桓公)이 백적의 땅을 정벌했다는 기록, 진(晉)나라 장군 순오가 선우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기록, 순오가 저웅으로부터 상군을 이끌고 선우를 침략해 중인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크게 획득하여 돌아왔다는 기록, 선우 사람이 진나라의 군사를 평중에서 무찔렀다는 기록, 진나라가 중산을 공격해서 궁어의 언덕을 빼앗았다는 기록, 진나라가 신치목자를 파견하여 좌인(左人), 중산(中山)을 빼앗았다는 기록이 이것이다. 그러나 세계(世系)에 관하여 문공(文公)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 없다. 이에 중산 군주의 명칭이 문헌에 나타나 있는 것을 거론해 보면 《사기》〈조세가〉에서 현후 10년(기원전 415년)에 중산무공이 처음 즉위했다는 기록과 중산무공이 고(顧)에 거주했고, 환공(桓公)이 영수로 천도했다는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여기에서 중산무공이 태항산맥 서쪽 오대산 기슭에서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도6] 백적(白狄)과 중산무공의 이동경로

36) 유 향, 《전국책(戰國策)》 권33, 〈중산(中山)〉, 杜預云 鮮虞 白狄別種.

위에서 언급했듯이 문헌에 기록된 중산의 군주는 무공과 환공뿐이다. 그러나 중산왕 조(轡)가 제작한 방호(方壺)의 명문(銘文)에서 “오직 나의 황조이신 문공과 무공, 조고 환공, 선고 성공께서는 순수한 덕(德)이 있어, 유훈으로 그의 자손들에게 베풀었다.”³⁷⁾라고 하여 그 세계(世系)가 문공 → 무공 → 환공 → 성공 → 조왕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헌이나 명문(銘文)을 통해서 세워진 계보를 바탕으로 각 군주의 역사적 사건 사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대 군주, 문공(文公, ?~ 서기전 415년)

재위 기간은 알 수 없다. 중산왕 조(轡) 때 만든 방호(方壺)의 “생각하건대 짐의 선조 문공과 무공, 조고 환공과 선고 성공께서 순수한 덕이 있고, 유훈을 남겨 그의 자손들에게 베풀었다.”³⁸⁾라는 명문 때문에 중산문왕의 존재가 드러났다.

* 제2대 군주, 무공(武公, 서기전 415년 ~ 서기전 406년)

서기전 414년에 위(魏)나라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오대산 기슭에서 무리를 이끌고 태행산맥을 넘어 고(顧)에 정착한다. 여기에서 나라의 안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서기전 408년부터 서기전 406년까지 3년에 걸친 위(魏)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 제3대 군주, 환공(桓公, 서기전 380년 ~ 서기전 350년쯤)

무공이 기원전 406년 위나라에게 멸망 당한 후 후손[아들이나 손자로 추정]인 환공이 20여 년의 공백기 동안 재건에 힘쓴 결과 기원전 380년경 중산국의 3대 군주로 즉위한다. 처음에 고(顧)에 도읍했으나 곧바로 영수(靈壽, 지금의 하북성 평산현 북동쪽)로 옮겼고, 서기전 377년과 서기전 376년에 방자(房子, 지금의 하북성 고읍현 남서쪽), 중인(中人, 지금의 하북성 당현 남서쪽) 두 곳에서 조나라 군대와 교전을 벌였으며, 서기전 369년에는 남쪽에 장성을 쌓아 조나라를 방어했다. 약 30여 년 동안 그는 중원의 문화를 받아들여 중산(中山)을 강성하게 함으로써 제후(諸侯)의 반열에 올랐다.

* 제4대 군주, 성공(成公, 서기전 349년쯤 ~ 서기전 329년)

환공의 아들이다. 재위 기간은 약 20여 년이었으며 아들 조왕(轡王)이 즉위한 후 성왕으로 추존되었다. 사마희(司馬喜)를 재상으로 삼고 서기전 332년에 제, 위와 연합하여 조나라를 토벌했다. 중산왕 조(轡)의 정(鼎)에는 환공과 성공의 치적에 대해 “옛날 나의 선조 환왕과 선고 성왕께서 몸소 사직을 힘써 지키고, 사방으로 (선정을) 행하여 나라를 진무(鎮撫)했다.”³⁹⁾라고 했다. 조무령왕은 “지난날[서기전 332년 때의 사건을 말함.] 중산은 제나라의 강한 군사를 등에 업고, 우리 땅을 사납게 침략해 우리 백성을 포로로 잡았으며, 물을 끌어다 호성(鄘城)을 포위했다.”⁴⁰⁾라고 하며 중산국을 정벌하는 빌미로 삼고 그 후 수차례 침범한다.

* 제5대 군주, 중산왕조(中山王轡, 서기전 328년 ~ 서기전 310년쯤)

재위기간은 18년쯤 된다. 성공의 아들로 정권을 세습하고 나서 중산국을 가장 강성한 국가로 만들었다. 사마주(司馬駒)를 재상으로 삼아 북쪽으로는 연나라를 공격하고, 남쪽으로는 조나라를 침략해서 중산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1978년 중산왕묘를 발굴하여 세 건의 청동기와 많은 유물을 출토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중산왕 조(轡) 때 만든 정(鼎)의 명문에 “14년 중산

37) 중산조왕(中山轡王), 방호(方壺)의 명문. 惟朕皇祖文武桓祖成考 是有純德 遺訓以施其子孫

38) 1970년대 발굴한 중산왕 조(轡)의 ‘방호(方壺)’의 명문에 “惟朕皇祖文武桓祖成考 是有純德 遺訓以施其子孫”라고 기록되어 있다.

39) 1970년대 발굴한 중산왕 조(轡)의 ‘鼎’에 “昔者 吾先祖桓王 昭考成王 身勤社稷 行四方以憂勞邦家”라고 기록되어 있다.

40) 사마천, 《사기》〈조세가〉(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기연구실, 《신주사기》 21권 〈조세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p236.) 先時中山負齊之疆兵 侵暴吾地 係累吾民 引水圍鄘

왕 조가 정을 만들었다. … 지금 나의 노주(老耑, 사마주)가 친히 3군의 무리를 이끌고 가 의롭지 못한 나라(연나라)를 쳤는데, 채찍을 떨치고 방울을 흔들며 국경을 열어 사방 수백 리와 성 수십 개를 빼앗고, 적을 이겨서 나라를 확장했다.”⁴¹⁾ 또 “연나라의 좋은 쇠를 택하고 주조하여 술향아리를 만들고 제사 지내는 절차를 두니 본받고 높일 만해서 상제께 흠향하고 선왕께 제사 지낸다.”⁴²⁾라고 기록하여 연나라를 침략하여 양질의 쇠를 가져와 정(鼎)과 방호(方壺)를 제작하였음을 알렸다. 이때가 제선왕 6년(서기전 314년)이다. 또 《사기》〈진시황본기〉에도 중산국의 위상을 알게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맹상군(孟嘗君), 평원군(平原君), 춘신군(春申君), 신릉군(信陵君) … 이들은 합종책을 맹약하고 연횡책을 이탈하여 한(韓), 위(魏), 연(燕), 초(楚), 제(齊), 조(趙), 송(宋), 위(衛), 중산(中山)의 군사들을 연합했다.’⁴³⁾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지도7] 중산유물 출토지

** 제6대 군주, 중산왕 효왕(中山王孝王, 서기전 309년쯤 ~ 서기전 299년)

중산왕 조(覺)의 맏아들이다. 재위 기간은 11년 가량이다. 서기전 306년, 중산은 조나라에게 침략을 당하여 조나라 군사가 영가(寧葭, [지금의 석가장시 서북쪽])에 이르러 북쪽으로 수십 리를 진격했다. 서기전 305년, 조나라 무령왕이 군사를 둘로 나누어 양쪽으로 중산을 공격한다. 무령왕군은 호성(鄆城), 석읍(石邑) 등을 공격하고, 우전군(牛翦軍)은 단구(丹丘), 화양(華陽), 치새(鴟塞)를 공격함으로써 빼앗겼다. 이어 서기전 303년, 301년, 300년, 5차례 침략을

41) 1970년대 발굴한 중산왕 조(覺)의 ‘鼎’에 “中山王覺作鼎 … 今吾老耑親率三軍之眾 以征不義之邦 奮袍振鐸 關啟封疆 方數百里 列城數十 克敵大邦”라고 기록되어 있다.

42) 1970년대 발굴한 중산왕 조(覺)의 ‘鼎’에 “擇燕吉金, 鑄為彝壺, 節於禮□, 可法可尚, 以饗上帝, 以祀先王”라고 기록되어 있다.

43) 사마천, 《사기》〈진시황본기〉(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가연구실, 《신주사기》 5권 〈진시황본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p329.) 齊有孟嘗 趙有平原 楚有春申 魏有信陵 … 并韓魏燕楚齊趙宋衛中山之衆

당함하여 중산(中山)의 영토는 크게 축소되었고, 국력 또한 크게 약화되었다. 서기전 299년에 결국 중산왕(麴蟠)이 제나라로 도망갔다. <진본기>의 소양왕 8년에 조나라에서 중산국을 쳐부수자 그 군주가 도망하여 마침내 제나라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 제7대 군주 중산왕 상(尙, 서기전 229년 ~ 서기전 226년)**

중산국의 마지막 군주로 재위 3년이다. 서기전 226년 조나라에 멸망 당하고, 부시현(膚施縣)으로 옮겨졌다고 기록했으나, 그의 생사(生死)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여씨춘추(呂氏春秋)》 16권 <선직람(先識覽)> 편에 “아마도 ‘상(尙)’이 마지막 군주의 몸이 되었을진저.”⁴⁴⁾라고 하여 중산국의 마지막 군주가 누구인지를 드러냄으로써 그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선우의 나라가 세워진 이래 중산국이 조나라의 침략으로 무너질 때까지 민족의 대이동과 부침(浮沈)을 거듭하며 굴곡진 역사를 근 500년 동안 향유(享有)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표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대	사건 년도	사적 기록 내용	출전 및 근거
선우시대	전 774년	성주(成周)의 북쪽으로 위, 연, 적, 선우, 노, 낙, 천, 서, 포가 있다고 함.(선우라는 용어 처음 등장)	국어
	전 680년경	춘추시대 제환공(齊桓公)이 서쪽으로 백적의 땅을 정벌하여 빼앗음.	국어
	전 530년	진(晉)의 순오가 선우에게 고나라 도읍 석양을 치겠다고 길을 빌려달라고 함. 돌아오다가 진에게 침략당함.	춘추좌전
선 우 · 중 산시대	전 507년	선우 사람이 진나라의 군사를 평중에서 무찌름.	좌전
	전 459년 ~ 전 457년	진나라에게 중산을 공격 당해 궁어[窮魚之丘]을 빼앗김	죽서기년
	전 457년	진나라의 신치목자에게 좌인(左人)과 중산(中山)을 빼앗김.	열자
중산시대	전 414년	중산무공 초립(初立), 오대산 기슭에서 고(顧)로 이동하여 정착.	조세가
	전 406년 ~ 전 403년	위나라가 악의를 장군으로 삼아 3년 전쟁. 패배하여 멸망함.	악의열전
	전 380년	20여 년만에 나라를 재건하고 환공 즉위. 그후 중산왕 조(釐)에 이르기까지 전성기를 이룸.	전국책 등
	전 377년 ~ 전 376년	방자(房子)와 중인(中人), 두 곳에서 조나라 군대와 교전함.	조세가
	전 369년	조나라 국경과 장성을 구축함.	조세가
	전 332년	제, 위와 연합하여 조나라를 토벌.	조세가
	전 323년	중산 조(釐)왕 시기 제, 위, 조, 연과 함께 왕의 칭호를 받음.	전국책
	전 314년	제나라와 손잡고 연나라를 침공하여 북쪽으로 500리, 성 10곳을 빼앗음.	조(釐)왕의 정(鼎)
	전 306년 ~ 전 300년	조나라에게 5차에 걸쳐 침략당함. 영토와 국력 축소됨.	조세가
	전 299년	중산왕(麴蟠)은 제나라로 도망가 죽음을 당했다는	진본기

44) 여불위, 《여씨춘추》 16권 <선직람(先識覽)>, 其尙終君之身乎

	기록이 있음.	
전 296년	조나라에게 멸망당함	조세가

[표2] 선우 중산국의 흥망사 년표

3. 멸망 이후의 중산

중산은 태행산맥 동쪽에 위치한 땅으로 서고동저(西高東低)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원래 오제(五帝) 중 하나인 요임금이 당후(唐侯)가 되어, 나라를 세웠던 곳이다. 그래서 요산(堯山)과 당현(唐縣)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춘추시대 말기 이곳에 선우가 섬서성 북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지금의 산서성과 하북성 일대에서 정착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전국시대가 된 후 위(魏)나라의 잦은 침입으로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중산무공이 즉위한 직후 태행산맥을 넘는데, 이곳이 중산이다. 그는 고(顧)를 도움으로 삼고, 환공은 재건에 성공한 후 한때 왕의 칭호를 사용할 만큼 위(魏), 조(趙), 제(齊), 연(燕)나라 등과 대등한 위상을 자랑하였다. 하지만 서기전 306년부터 지속적인 침략으로 국력이 급속도로 쇠진하였고, 서기전 296년에 급기야 조나라 무령왕에게 완전히 정복당함으로써 중산국의 막을 내리고, 조나라의 관할지(管轄地)로 귀속됨으로써 중산 땅은 왕조, 또는 시대에 따라 달리 불리게 된다.

〈진시황본기〉에 중산과 관련한 기록으로는 “진왕 정 19년(서기전 228년), 왕전, 강외가 조나라 땅 동양(東陽)을 모두 평정하고, 조나라 왕 천(遷)을 사로잡았다. 군사를 이끌고 연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중산에 주둔했다.”⁴⁵⁾라는 내용이 보인다. 왕전과 강외로 하여금 조나라를 공격하게 해서 정복하고 그 군사를 중산에 주둔시켰다는 내용이다. 진시황은 제나라 정복을 마지막으로 통일한 후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郡縣制)를 시행하는데, 전국을 36개 군으로 편성하면서 중산을 항산군(恒山君)이라고 명명했다.

한나라 고조는 초패왕 항우를 무너뜨리고, 중원을 통일하면서 군국제(郡國制)를 시행하게 되는데, 중산은 진나라가 편제한 것에 따라 그대로 항산군으로 명명했으나, 이후 때, 항산국으로 승격하고 초대왕으로 유불의(劉不疑)를 삼았다. 효무제 때 항산을 상산으로 개명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중산을 국으로 승격시키고 항산을 상산(常山)으로 개명한 이유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효문제의 휘(諱)가 유항(劉恒)이므로 기휘(忌諱)하기 위한 것이다.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 하편에 “고제께서 다스리던 군으로 효경제 3년에 나라로 삼았으며, 왕망(王莽) 때는 상산(常山)이라 불렀고, 기주(冀州)에 귀속하였다.”⁴⁶⁾라고 했다. 그리고 노로(盧奴), 북평(北平), 북신성(北新城), 당(唐), 심택(深澤), 고행(苦陘), 안국(安國), 곡역(曲逆), 망도(望都), 신시(新市), 신처(新處), 무극(毋極), 육성(陸成), 안험(安險), 14현을 편속하였는데, 이곳을 황제의 원유(園囿)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중산이라는 용어는 지명이 없어졌음에도 항산과 함께 통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서(史書)에서 이 용어가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효무본기〉에서 눈에 띄는데, “중산에 이르렀을 때 날씨가 맑고 따듯했다.”,⁴⁷⁾ “이것은 중산에 황백운이 하늘에서 내려

45) 사마천, 《사기》〈진시황본기〉(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가연구실, 《신주사기》 5권 〈진시황본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p64.) 十九年, 王翦, 羌瘃盡定取趙地東陽, 得趙王. 引兵欲攻燕, 屯中山.

46) 《한서(漢書)》, 〈한서지리지하(漢書地理志下)〉, 高帝郡 景帝三年爲國 莽曰常山 屬冀州

47) 사마천, 《사기》〈효무본기〉(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가연구실, 《신주사기》 9권 〈효무본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p64.). 至中山晏溫

와 덮을 때,”⁴⁸⁾라는 문장이 이것이다.

후한(後漢) 때에는 진정국(眞定國)을 상산군(常山郡)에 병합하고, 군을 상산국(常山國)으로 하였으며, 삼국(三國)시대에는 상산군의 남서쪽을 나누어 낙평군(樂平郡)을 설치했고, 원지현(元氏縣)을 조나라에 귀속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남북조 시대에 북주(北周)는 항주(恒州)로 개칭했고, 수(隋)나라 때에는 항산군으로 칭했으며, 당나라는 건립하고 나서 군(郡)을 주(州)로 개칭하여 항주라고 하였다가 당현종(唐玄宗) 천보(天寶) 원년에 항주를 상산군으로 칭했다.

중산국 멸망 후부터 당(唐) 시대까지 중산에 관한 지명의 변천사를 살펴 보았다. 이를 정리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대	진(秦)	전한(前漢)	후한(後漢)	삼국(三國)	북주(北周)	수(隋)	당(唐)
지명	항산군	상산군 진정국 상산국	상산국	상산군	항주	항산군	항주 상산군

[표3] 중산에 관한 시대, 왕조별 지명의 변천

4. 결론

중산국은 한때 전국 8웅의 나라로 거명할 만큼 국세가 있었고, 삶의 수준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에도 《사기》 등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대체로 단편적이고, 〈중산국〉 편을 할애하고 있는 사서에서도 일화류(逸話類)만을 서술하고 있을 뿐, 서사적인 면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중산국에 관한 문헌적인 연구 부문에서 논문으로서의 완성도가 높지 않고, 사서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기록을 꿰어맞춰 놓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필자는 도막도막 뭉쳐 있거나 끊겨 있는 실타래를 어떻게 묶고 이를 것이냐가 관건이라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흡족한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다만 소득이라면 묶고 이를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리라.

중산국을 고찰하면서 첫째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기자의 후예로 자성(子姓)이라는 설과 희성(姬姓)으로 백적이라는 설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주나라의 후예라는 것은 터무니없고 백적이라는 양옥승의 말에 공감하였고, 화이(華夷)의 민족에 관해서는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기연구실에서 규명한 세계도표(世系圖表)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둘째, ‘어디에서 살았느냐?’이다. 필자는 지금의 섬서성의 북쪽 내몽고 지방에서 백적(白狄)이 세력을 구축하고 태행산맥 일대로 진입하였고, 진(晉)의 압박으로 중산 지방에 정착하게 된 것으로 가정하여 이 논문을 전개하였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제도권 밖의 처지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방외의 민족에서 중원의 민족으로 입성했다는 말이다.

셋째, 중산국의 ‘흥망사’를 그렸다. 본고에서는 세계(世系)를 바탕으로 중산국을 위주로 해서 흥망사를 그렸다. 중산무공이 고(顧)에 정착하고 칭호를 획득할 만큼 국세가 강성할 때가 있었

48) 사마천, 《사기》 〈효무본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가연구실, 《신주사기》 9권 〈효무본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p149.). 合茲中山 有黃白雲降

지만, 소국(小國)으로써 맞이해야 하는 비극을 느낄 수 있었다.

넷째, 중산국 멸망 이후, 중상의 지명에 관하여 통일 진나라부터 당대(唐代)까지 지명변천사를 적었다. 지명변천사의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산이라는 지명이 향산, 또는 상산이라는 지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산국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 논고를 작성하면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한정된 사료와 자료 때문에 어려워 아쉬움이 많았던 반면, 연구에 대한 의욕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사료와 자료의 확보를 충분하게 하여 좀더 좋은 논문을 써야겠다는 다짐도 해 보면서 학자들의 좋은 논문도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서적 및 논문〉

[토론]

김수지(순천향대)

중산국 고찰-토론 질의문

1. “사마천이 방대한 사적을 서술하면서도 짧지 않은 역사와 중원문화와 북방문화가 교차하는 중산국을 소홀히 다루었는데, 이는 북방의 적족(狄族)이 세운 나라이고, 참고할 수 있는 사료와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중산을 빼버리고 전국(戰國) 8웅이 아닌 7웅으로 정리한 것은 진나라가 통일하기 70여 년 전, 나라의 존재가 없어짐으로써 드라마틱한 요소가 적다는 판단에서 중산국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된다. 중원(中原)의 문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선(朝鮮), 흉노(匈奴), 남월(南越) 등을 〈열전〉 속에 포함하면서도 이마저도 배제하였으니, 이러한 의심이 가게 하는 요인이다.”

=>사마천은『사기(史記)』「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서 『사기』의 구조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흠어진 천하의 옛 이야기들을 망라하되, 왕들이 일어난 처음과 끝을 탐구하고 그 흥망성쇠를 관찰하며 사실 진행에 따라 고증해 간략히 삼대의 사실을 추구하고 진나라와 한나라의 사실을 기록했는데, 위로는 현원으로부터 아래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12본기로 기록하되, 모두 조목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사적에는 시대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연대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10표를 만들었다. 예악의 증감, 법률과 역법의 개정, 병권, 산천, 귀신, 하늘과 인간의 관계, 시대와 세상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8서를 지었다. 28개의 성좌(星座)는 북두칠성을 두고 30개의 바퀴살은 한 개의 바퀴통을 향하고 있어 그 운행이 무궁하다. (천자를) 보필했던 고굉(股肱 팔다리)의 신하들을 배열하여 충신으로 도를 행함으로써 주상(主上)을 받들었던 내용을 모아 30세가(世家)를 지었다. 의(義)를 돕고 재기가 높이 뛰어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명을 천하에 세운 사람을 모아 70열전(列傳)을 지었다.”

사마천이 말한 이 내용은『사기』가 중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천자(天子)를 중심으로 한 천하사상(天下思想), 다시 말하면 중국적 세계질서의 사상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적 세계질서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국적 세계질서와 관계가 없다고 인식되었던 내용은『사기』에 실려 있지 않다. (주..한국고대사신론(韓國古代史新論), 윤내현, 일지사, 246쪽)

-여기서 중국적 세계질서에 포함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이(異)민족이 중국의 천자에게 멸망당하거나 투항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70열전에 나오는 이민족 이야기들은 전부 중국 천자에게 멸망 당하는 시점부터 기술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국사라고

생각한것, 중국사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것들 만 『사기』에 기록했다는 것. 다시말하자면, 사마천은 중국사를 쓴것이고, 중국이 이민족을 정복해 중국사로 들어오게 된 경로를 쓴것.

-사마천이 중국사를 썼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기』를 보면 사마천이 왜 위만조선 이야기인 「조선열전」을 썼는지 이해할 수 있음. 사마천은 기자를 상왕실의 후예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견해에 의하면 “중산국”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내용이 왜 사기에 실려 있지 않은지 이해할 여지가 생긴다. 즉, 중산국은 그 전신이 선우(鮮虞)국인데, 선우가 백적의 한 부류이거나 아니면 상나라 기자의 후예 중 일원이거나 또는 주나라 희성의 후예 중의 일부이거나 그 출신 성분이 어느 쪽이든 일단 중산국을 최종 멸망시킨 나라는 조나라이고, 조나라는 결국 진(秦)나라의 통일로 흡수되는 것이니, 중산국이 이족이 세운 나라인데 중국사로 들어오는 과정은 결국 중산국을 멸망시킨 조나라로부터 시작되는 것. 따라서 『사기』 「진본기」와 「조세가」에서만 언급되고 별도의 열전이 없는 것.

2. “중산국이 형성된 배경에 관해서 살펴보면 중산국을 선우(鮮虞)의 후신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각종 사료를 통한 많은 사학자의 고증에서 이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대체로 춘추시대 말기에 백적의 선우가 지금의 섬서성 북쪽 내몽고 지역에서 산서성과 하북성 일대로 이동하여 터를 잡았고, 무공(武公)이 산서(山西)성 태원(太原)의 동북쪽 오대산(五臺山) 자락 선우수(鮮虞水)의 부근에서 즉위한 후 진(晉)나라의 압박으로 인하여 태행산을 넘어 하북(河北)성에 고(顧)에 자리 잡고 나라의 안정을 꾀함으로써 중산국이 되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선우라는 용어는 이미 춘추시대의 사서, 《좌전(左傳)》과 《국어(國語)》에 등장하고 있다.”

“선우의 민족성에 관해서 주장하는 것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한 부류는 기자의 후예설이다. 응소(應劭)는 《풍속통의(風俗通義)》에서 “선우는 기자의 후예이고 자성(子姓)이다.”라고 하였고, 《선우왕비문(鮮虞璚碑文)》에도 “(선우)의 이름은 황이며, 자는 백겸이다. 그의 선조는 은나라 기자(箕子)의 후예에서 나왔다.”라고 하여 선우가 상나라 계통의 동이족임을 밝힌 것이다.”

“또 한 부류는 백적이라는 설이다. 《세본(世本)》, 〈씨성(氏姓)〉편에는 “선우는 희성(姬姓)이고 백적(白狄)이다.”라고 하였고, 〈조세가〉의 집해(集解) 주(注)에서 무공에 관하여 “서광은 서주 환공(桓公)의 아들이다. 환공은 효왕(孝王)의 아우이고 정왕(定王)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고 하였으나, 색은(索隱)에서 “살펴보니 중산은 옛 선우국으로 희성이다. 《세본(世本)》에서 이르되 중산 무공이 고(顧)에 거처했고 환공 때 영수로 옮겼으며 조나라 무령왕에게 멸망했는데, 누구의 자손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서광이 서주 환공의 아들이라고 했으나 또한 근거한 바가 없으니, 대개 그 실상을 능히 알지 못했을 따름이다.”라고 하여 희성을 인정하면서도 서광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중산국의 민족성에 관하여 자성(子姓)냐, 희성(姬姓)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다.”

“필만(畢萬)의 후예나 곽국의 일부 세력이 섬서(陝西)성 북쪽으로 가서 백적(白狄)이 되었다는

것이다.”

“백적의 땅에서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 한다. 만약 이곳으로 이동하여 정착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도권 밖의 처지에서 제도권으로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방외의 민족에서 중원의 민족으로 입성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선우는 백적의 일부이다./ 선우는 기자의 후예이다./ 중산 무공이 서주 환공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출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른 이론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산국이 그 전신 선우국 에서부터 중산국이 되어 자리를 잡았던 ‘위치와 문화’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즉,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의미”라고 쓰셨는데, 이것은 지리 지형과 관련해서 음산산맥 태행산맥 항산산맥 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와 그리고 산맥을 넘어 산맥 안 평원으로 들어왔을 때의 삶의 양식과 문화가 달라진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지적하는 문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중산국의 전신 선우(국)이 물리적 지리적으로 그 출신이 백적인데, 분명히 백적 즉 지형적으로 산맥 넘어 산맥 밖에 있었던 족이 분명한데 그 후에 사가들에 의해 계속 ‘자성’ ‘희성’으로 출신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진 것은 선우를 물리적 DNA(biological dna) 정체성으로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선우국이 산맥을 넘어 안쪽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그 정체성을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sociological dna 또는 meme)을 기준으로 파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타고나는 물리적 바이올로지컬적 정체성은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지리 지형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와 그에 따른 문화의 변화로 쇼설로지컬적 정체성(사회적으로 습득하고 선택한 정체성)으로 변화하는데, 해당 당사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도 변화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도 변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선우(국)가 산맥을 넘어 안쪽에 정착하면서 변화한 생활양식과 문화는 백적으로서의 문화에 상과 주의 문화가 혼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후세에서 ‘백적’ ‘자성’ ‘희성’이라는 이론이 분분해졌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도3] 선우의 위치



[지도4] 선우중산의 위치

“서기전 530년에 “진(晉)나라 장군 순오가 선우에게 고나라 도읍 석양[지금의 하북성 진주시]을 치겠다고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기록, “진나라 순오가 저옹으로부터 상군을 이끌고 선우를 침략해 중인[지금의 하북성 당현 서북쪽]에 이르러서 충거를 몰고 다투고 전리품을 크게 획득하여 돌아왔다.”는 기록, 서기전 507년에 “선우 사람이 진나라의 군사를 평중[하북성 당현의 서북쪽]에서 무찔렀다.”는 기록, 서기전 459년 ~ 서기전 457년에 “진나라가 중산을 공격해서 궁어의 언덕[지금의 하북성 역현 경내]을 빼앗았다.”는 기록, 서기전 457년에 “진나라가 신치목자를 파견하여 적(翟)을 공격해서 좌인(左人), 중산(中山)을 빼앗았다.”는 기록, 《후한서(後漢書)》〈정국지(鄭國志)〉에 “신시에 선우정이 있고, 옛나라는 자성이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선우·중산의 위치를 태행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서성[태행산맥 서쪽]과 하북성[중산] 일대임을 알 수 있다.”

“《후한서》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북평(北平)이 중산국에 속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후한서》, 〈제기제일상(帝紀第一上)〉편의 주(注)에서 “북평은 중산국에 속하는데, 지금의 이주 영락현이다.⁴⁹⁾”라고 하였고, 《자치통감(資治通鑑)》 40권에서도 “북평은 중산국에 속하는데, 지금의 이주 영락현이다.”라고 했다. 북평은 지금의 하북성 서쪽 래원(涞源)현인데, 태행산(太行山), 연산(燕山), 항산(恒山)의 세 산이 만나고, 거마하(拒馬河), 이수(易水), 래수(涞水)의 근원이 되는 곳이다. 보정시에서 서북쪽으로 약 200Km정도의 거리로 태행산맥 동쪽 기슭이 된다. 《세본(世本)》에는 “중산무공은 고(顧)에 거주했고, 환공이 영수(靈壽)로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유(高誘)는 고(顧)를 노로중산(盧奴中山)이라고 했는데, 노로중산은 곧 지금의 정주(定州)시를 가리킨다. 또 《사기》〈위세가〉에 “악양이 위문후의 장군이 되어 중산을 정벌하여 취하니 위문후가 악양을 영수에 봉했다.”라고 했다. 영수는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평산현(平山縣)으로 하북성 중서부, 호타하의 북쪽이고 서쪽에는 태행산에 접해 있는 곳이다. 중국의 《유기백과(維基百科)》에서는 “하북성 중부 태행산 동쪽 기슭의 일대에 위치하여 중산국은 당시 조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했다. 《사기》〈조세가〉에는 “지금 중산국은 우리의 배 속에 있고, 북쪽으로는 연나라가 있다.””

“중산국의 유물유적이 발견된 곳도 중산국의 한 위치가 된다. 1973년부터 중산지역의 유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하북성 석가장시에서는 적석묘 및 많은 동이족의 유물이 발굴됨으로써 중산국의 영지였음을 추정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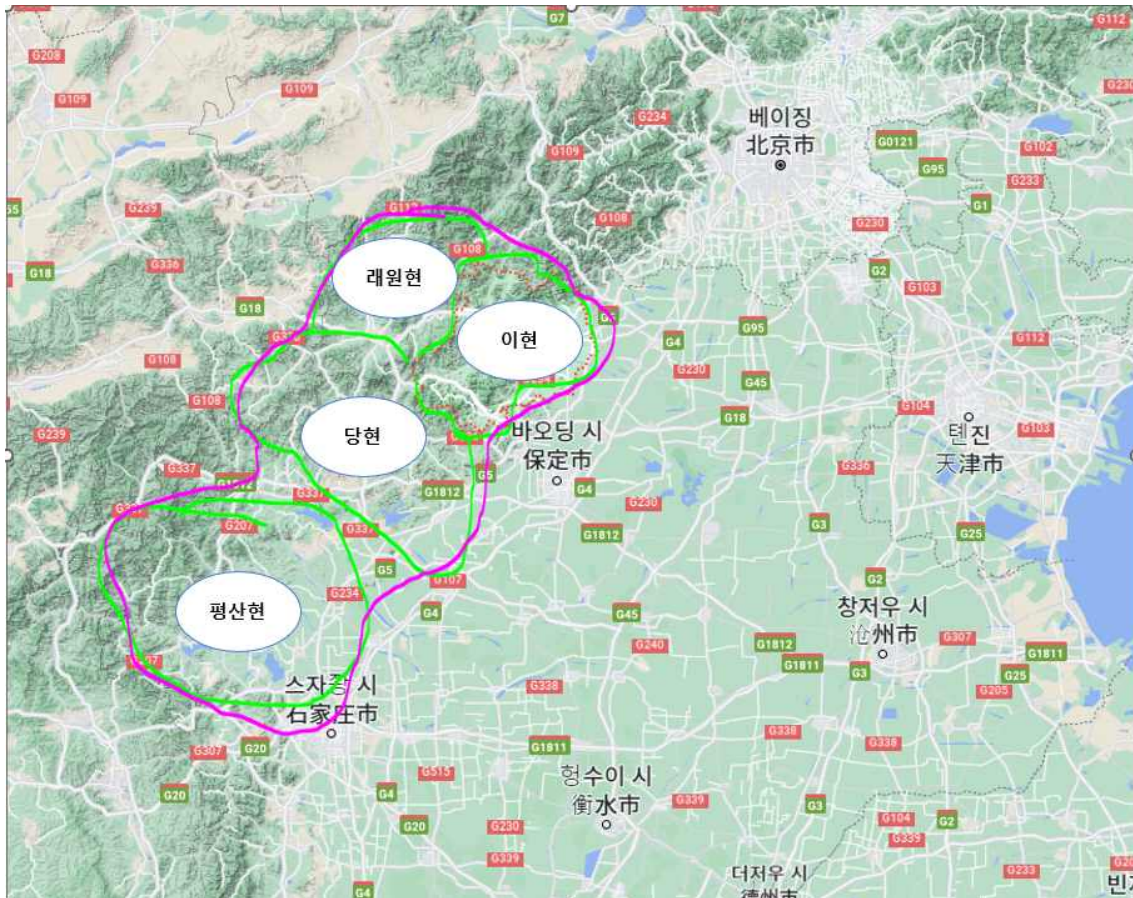


[지도5] 태행산맥 동쪽으로 이동한 중산의 강역

3. 지리 지형적 위치와 잦은 공방전과 멸망..

중산국은 결국 조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도 한때 전국 8웅으로 거론될 수도 있을 정도의 국력이 있었고 제, 위나라와 연합하여 조나라를 토벌하거나 제나라와 연합하여 연나라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조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중산국은 최종 멸망당하기전에도 이미 한번 멸망 당한 후 20여 년이 지난 후에 재건되기도 했습니다. 멸망 당한 여러 이유 중에서 중산국의 지리 지형적 위치 조건이 멸망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우 사람이 진나라의 군사를 평중[**하북성 당현의 서북쪽**]에서 무찔렀다.”는 기록, 서기전 459년 ~ 서기전 457년에 “진나라가 중산을 공격해서 궁어의 언덕[지금의 **하북성 역현(이현) 경내**]을 빼앗았다.”는 기록....북평은 지금의 하북성 서쪽 **래원(涞源)현**인데, 태행산(太行山), 연산(燕山), 항산(恒山)의 세 산이 만나고, 거마하(拒馬河), 이수(易水), 래수(涞水)의 근원이 되는 곳이다. 보정시에서 서북쪽으로 약 200Km정도의 거리로 태행산맥 동쪽 기슭이 된다... 영수는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평산현(平山縣)**으로 **하북성 중서부, 호타하의 북쪽이고 서쪽에는 태행산에 접해 있는 곳**이다. 중국의 《유기백과(維基百科)》에서는 “하북성 중부 태행산 동쪽 기슭의 일대에 위치하여 중산국은 당시 조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했다. 《사기》〈조세가〉에는 “**지금 중산국은 우리의 배 속에 있고, 북쪽으로는 연나라가 있다.**”





[지도기] 중산유물 출토지

시대	사건 년도	사적 기록 내용	출전 및 근거
선우시대	전 774년	성주(成周)의 북쪽으로 위, 연, 적, 선우, 노, 낙, 천, 서, 포가 있다고 함.(선우라는 용어 처음 등장)	국어
	전 680년경	춘추시대 제환공(齊桓公)이 서쪽으로 백적의 땅을 정벌하여 빼앗음.	국어
	전 530년	진(晉)의 순오가 선우에게 고나라 도읍 석양을 치겠다고 길을 빌려달라고 함. 돌아오다가 진에게 침략당함.	춘추좌전
선 우 · 중 산시대	전 507년	선우 사람이 진나라의 군사를 평중에서 무찌름.	좌전
	전 459년 ~ 전 457년	진나라에게 중산을 공격 당해 궁어[窮魚之丘]을 빼앗김.	죽서기년
	전 457년	진나라의 신치목자에게 좌인(左人)과 중산(中山)을 빼앗김.	열자
중산시대	전 414년	중산무공 초립(初立), 오대산 기슭에서 고(顧)로 이동하여 정착.	조세가
	전 406년 ~ 전 403년	위나라가 악의를 장군으로 삼아 3년 전쟁. 패배하여 멸망함.	악의열전
	전 380년	20여 년만에 나라를 재건하고 환공 즉위. 그후 중산왕 조(釐)에 이르기까지 전성기를 이룸.	전국책 등
	전 377년 ~ 전 376년	방자(房子)와 중인(中人), 두 곳에서 조나라 군대와 교전함.	조세가
	전 369년	조나라 국경과 장성을 구축함.	조세가
	전 332년	제, 위와 연합하여 조나라를 토벌.	조세가
	전 323년	중산 조(釐)왕 시기 제, 위, 조, 연과 함께 왕의 칭호를 받음.	전국책

전 314년	제나라와 손잡고 연나라를 침공하여 북쪽으로 500리, 성 10곳을 빼앗음.	조(轅)왕의 정(鼎)
전 306년 ~ 전 300년	조나라에게 5차에 걸쳐 침략당함. 영토와 국력 축소됨.	조세가
전 299년	중산왕 ^{中山王} 은 제나라로 도망가 죽음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음.	진본기
전 296년	조나라에게 멸망당함	조세가

4. 멸망후..중산국이 있던 지역(또는 그 인근지역)에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있었나?

조나라는 서기전 296년에 조나라에게 멸망 당해서 중산국 영토는 조나라에게 넘어갑니다. 후에 결국 진나라 진시황에 통일함으로 중산국 영토는 진나라 영토가 되고 진나라는 곧 망하고 그 지역은 한나라 영토가 됩니다.



〈진시황본기〉에 중산과 관련한 기록으로는 “진왕 정 19년(서기전 228년), 왕전, 강외가 조나라 땅 동양(東陽)을 모두 평정하고, 조나라 왕 천(遷)을 사로잡았다. 군사를 이끌고 연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중산에 주둔했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왕전과 강외로 하여금 조나라를 공격하게 해서 정복하고 그 군사를 중산에 주둔시켰다는 내용이다. 진시황은 제나라 정복을 마지막

으로 통일한 후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郡縣制)를 시행하는데, 전국을 36개 군으로 편성하면서 중산을 항산군(恒山君)이라고 명명했다.

한나라 고조는 초패왕 항우를 무너뜨리고, 중원을 통일하면서 군국제(郡國制)를 시행하게 되는데, 중산은 진나라가 편제한 것에 따라 그대로 항산군으로 명명했으나, 이후 때, 항산국으로 승격하고 초대왕으로 유불의(劉不疑)를 삼았다. 효무제 때 항산을 상산으로 개명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중산을 국으로 승격시키고 항산을 상산(常山)으로 개명한 이유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효문제의 휘(諱)가 유항(劉恒)이므로 기휘(忌諱)하기 위한 것이다. <한서 지리지(漢書地理志)> 하편에 “고제께서 다스리던 군으로 효경제 3년에 나라로 삼았으며, 왕망(王莽) 때는 상산(常山)이라 불렀고, 기주(冀州)에 귀속하였다.”라고 했다. 그리고 노로(盧奴), 북평(北平), 북신성(北新城), 당(唐), 심택(深澤), 고행(苦陘), 안국(安國), 곡역(曲逆), 망도(望都), 신시(新市), 신처(新處), 무극(毋極), 육성(陸成), 안험(安險), 14현을 편속하였는데, 이곳을 황제의 원유(園圃)로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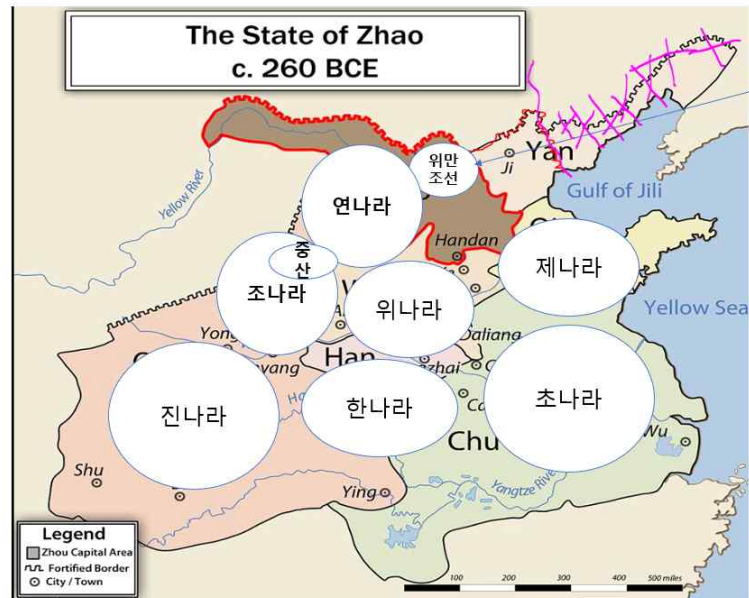
그런데.. “중산국(中山國)...즉, 선우국(鮮于國)이... 기자조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산국이 있었던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이 후일 위만조선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기(史記) 조세가(趙世家)는 B.C 414년 중산국(中山國) 무공(武公)이 초립(初立)했다고 기록했다. 그 전에는 백적(白狄)의 선우부(鮮虞部)의 나라이기 때문에 선우국(鮮虞國)으로 불리다가 무공(武公) 때 정식 제후(諸侯)가 되어 국명이 중산국(中山國)으로 되었던 것으로 비정된다. B.C 408년 위(魏)나라에 병합되고 B.C 380년 환공(桓公) 때 재건되었는데, 이후에는 위(魏)나라와 연맹 관계가 되며 조(趙)나라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한고조(漢高祖) 시대, 유방(劉邦)은 고향 친구 노관(盧綰)을 연왕(燕王)에 봉분했으나, 노관(盧綰)이 동호족(東胡族)에 투항하여 제후국은 와해되었다. 한(漢) 무제(武帝) 시대에는 우거왕의 아들 장항(長降)을 기후(幾侯)에 책봉하여 하북성 중산 일대를 지배하게 하였으나, 모반을 일으켜 참수되었다. 5호 16국 시대에는 전조(前趙), 전연(前燕), 후연(後燕), 적위(狄魏), 선우조(鮮于朝), 전진(前秦), 하(夏)나라 등이 할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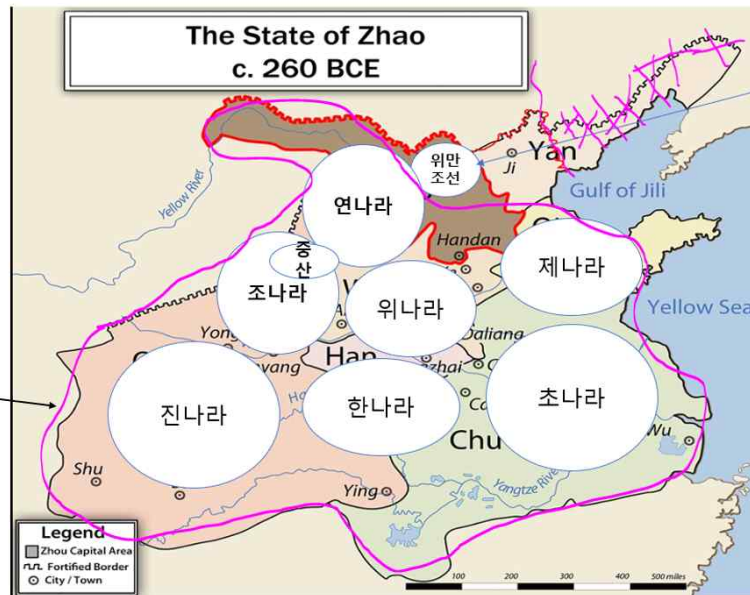
한(漢)나라 이후 선우(鮮虞, 鮮于)씨가 생성되는데 선우국(鮮虞國), 중산국(中山國)과 연관 짓는 이론이 생겨났다. 선우(鮮虞), 선우(鮮于), 두가지 복성이 있었는데 현재에는 선우(鮮于)씨만 존재한다. 산융(山戎)과 같은 이민족의 하나였던 정령, 즉 철륵으로 불린 민족에 선우(鮮于)씨가 있었다.

위만조선과
그 후 낙랑군이
보정시에 있었다
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에
의해 전국시대와
진의 통일이후
서한때 지도를
그려보자.



위만조선
전에는
기자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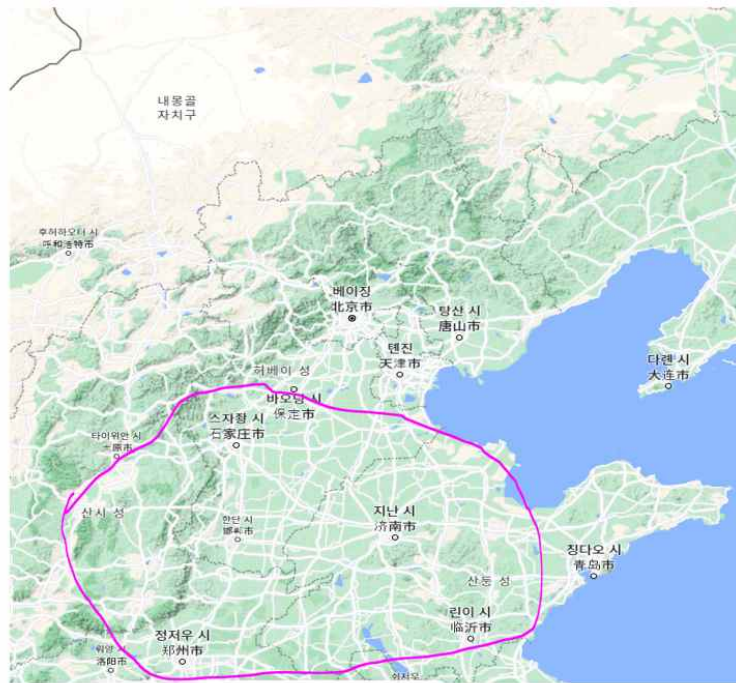
위만조선과
그 후 낙랑군이
보정시에 있었다
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에
의해 전국시대와
진의 통일이후
서한때 지도를
그려보자.



위만조선
전에는
기자조선

통일진나라
영역과
서한영역

중산국은
 조나라에 복속되고
 조나라는 결국 통일진나라
 영역이되도
 진나라에 이어 그 영역은
 서한이 이어받는다.
 중산국 지역에 위만조선이
 있었다는 주장에 의하면
 서기전 195년에
 성립한 위만조선은
 연나라 동쪽에 있었던
 지역이자 진의영역을
 이어받은 서한의 영역이
 보라색 영역이 된다.
 그러나 베이징 텐진, 탕산시
 지역에서도 통일진나라와
 서한 유물이(진한시대 유물)
 발굴된다.



《사기》로 본 고대 요동

최원태·정암(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 차 례 -

1. 머리말
2. 전국시대 연나라와 고조선 위치(경계)
3. 전국시대의 요동
4. 진말·한초의 요동
5. 맺음말

1. 머리말

요동은 중국 고대 왕조에서 볼 때 ‘동쪽의 먼 변경지역’이라는 뜻이다. 고대의 요동이란 현재의 요하 동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동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침략에 의하여 동쪽 경계가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점점 동쪽으로 옮겨진 것이다. 지금 강단사학계는 고대의 요동을 현재의 요동과 같이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고조선뿐만 아니라 고구려 등 고대국가의 강역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요동이라는 특정 지역의 명칭이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더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중국에서 서기전 4세기에는 현재 북경 인근을 요동으로 보았고, 전국시대 연나라 전성기 때인 연소왕(서기전 311-279) 때 연나라 진개의 침략(서기전 300년경) 이후에는 난하 유역과 이동을 요동으로 보았다. 그 이후 한무제가 위만조선 침공 이후인 서기전 108년 이후부터는 현재의 요하 서쪽을 요동으로 칭할 때도 있었고, 현재의 요하 동쪽을 요동으로 칭할 때도 있었다. 이렇듯 요동이라는 명칭은 전쟁 등 시대의 상황변화로 중국의 역대 왕조가 동쪽으로 확장함에 따라 이동하여 나타난다.

요동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난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중국에서 볼 때 ‘동쪽의 먼 변경지역’이라는 경계가 불명확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요동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중국의 가장 동쪽 변경에 있는 행정구역으로서의 ‘요동군’이다. 사마천의 『사기』를 토대로 고대 요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잘못된 고대의 강역을 바로 잡고자 고대의 요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전국시대 연나라와 고조선 위치(경계)

고대의 요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시대의 연나라와 고조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나라는 서기전 11세기경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의 동생 소공성(召公奭)을 제후에 봉하면서 시작되었다. 비록 약체이기는 했지만 전국시대에는 전국7웅에 속하

기까지 했으며, 연소왕(서기전 311-279) 때에는 진개가 동호를 공격하고 악의가 제나라를 공격하는 등 일시적인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연소왕이 사망한 이후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 57년이 지난 서기전 222년 진(秦)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2-1 진개 침입(서기전 300) 이후의 고조선과 연나라 위치¹⁾

『사기』「흉노열전」에 “연나라 또한 장성을 쌓아 조양에서부터 양평(襄平)에 이르렀다.” 양평에 대해 <사기색은>에서 주석하기를 “위소는 양평은 지금 요동(군)의 치소라 했다.”²⁾ …… “시황제는 몽염(蒙恬)에게……황하를 이용하여 요새를 만들게 하는 한편, ……산맥·구릉·계곡을 따라 보충해야 할 곳은 손을 더 보아서 임조(臨洮)를 기점으로 요동(遼東)에 이르기까지 만여 리에 달하는 장성(長城)을 쌓았다.”³⁾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의 양평은 현재 하북성 노룡현 일대를 말하고, 요동은 난하 유역의 창려 지역이다. 여기서는 요동이 갈석산 인근이었다는 점만 지적하고, 자세한 것은 다음 장 ‘전국시대의 요동’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사기』「화식열전」에는 연나라가 “발해와 갈석 사이”라고 설명되어 있다.⁴⁾ 서한시대에 저술된 『회남자』「인간훈(人間訓)」에는 “(진나라가) 성을 쌓았는데 서쪽으로 유사(流沙)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요수(遼水)와 만나며, 동쪽은 조선과 연결되었다”⁵⁾라고 되어 있다. 『염철론』「험고(險固)」에는 “연나라가 갈석에 의해 막혔고, 야곡(邪谷)에 의해 끊겼으며, 요수로 둘러싸였다”⁶⁾라고 되어 있다. 『한서』「지리지」<연지>조에 “연나라 도읍 계(薊)는 남쪽으로 제(齊)·조(趙)와 통하고, 발해와 갈석 사이에 있는 도회지이다”⁷⁾라고 되어 있다.

이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연나라는 발해만, 갈석산, 요수(현재의 난하)를 경계로 조선과 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대, 즉 서기전 239년에 저술된 『여씨춘추』「유시람(有始覽)」에는 당시의 국경에 있었던 9개 요새(要塞)가 기록되어 있는데,⁸⁾ 그 가운데 연나라의 것으로는 거용새(居庸塞)와 영자새(令疵塞)가 나온다.

담기양이 주편한 『중국역사지도집』에 거용새는 북경 북쪽 창평 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영자새는 난하 유역의 영지(令支)와 함께 표시되어 있다.⁹⁾ 이는 연나라 국경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서』「영행전(佞幸傳)」<등통>조의 요외(徼外)에 대한 안사고의 주석은 “요(徼)는 새(塞)와 같다”¹⁰⁾라 했고, 『사기』「경포열전」의 주석 <색은>에 의하면 “요(徼)는 변경의 정장(亭鄣)을 뜻하며, 요새로 변경을 둘러쳐 늘 지키는 것으로 변경의 요새를 말하고 있다.”¹¹⁾ 다시 말하면 전국시대 연나라에는 북쪽 변경의 거용새(居庸塞)와 동쪽 변경의 영자새(令疵塞: 난하 서안에 소재)가 있어 연장성의 설치 위치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 영자새가 『사기』「조선열전」에 나오는 ‘요동의 옛 요새’로 위만이 요새를 나가 패수를 건넜다는 요새

1) 최원태, “고조선과 전국시대 연의국경,” 『역사와융합』 제3호. 96-101쪽에서 발췌 정리함.

2) 燕亦筑長城，自造陽至襄平。襄平에 대한 주석：索隱韋昭云：「今遼東所理也。」

3) 始皇帝使蒙恬，因河為塞，因邊山險塹谿谷可繕者治之，起臨洮至遼東萬餘里。

4) 夫燕亦勃、碣之間。

5) 築修城。西屬流沙，北擊遼水，東結朝鮮

6) 燕塞碣石，絕邪谷，繞援遼。

7) 薊，南通齊、趙，勃、碣之間一都會也

8) 何謂九塞 大汾，冥陁，荊阮，方城，殽，井陘，令疵，句注，居庸。

9)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제1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41-42쪽

10) 漢書 佞幸傳：「徼猶塞也。東北謂之塞，西南謂之徼。塞者，以障塞為名。徼者，取徼遮之義也。

11) 史記 鯨布列傳：徼謂邊境亭鄣。以徼繞邊陲，常守之也

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사기』 「조선열전」에 “처음 연나라 전성기 때에 일찍이 진변과 조선을 공략해서 복속시키고, (그 땅에) 관리를 두고 장새(鄣塞)를 축성한 적이 있었다.”¹²⁾라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연소왕 때 진개가 조선을 침략하여 그 지역에 관리를 두고 변경에 장새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진나라가 연을 멸하고 요동외요(遼東外徼)인 변방 요새를 속하게 한 것으로 보아 이 요동외요는 장성의 동북쪽 인근인 청룡하 상류 지역과 갈석산 동편 석하(石河: 산해관 인근) 동쪽 지역이 요동외요인 진고공지(秦故空地)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요동외요는 『염철론』 「비호」에 “대부가 말하기를 옛적에 사이(四夷)가 쳐들어와 피해를 입혔는데 조선은 요(徼)를 넘어 연나라의 동쪽 땅을 빼앗았다.”¹³⁾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연나라가 조선을 침략하고 장새(鄣塞)를 설치했으나, 다시 조선이 공격하여 빼앗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후 (요동외요 일대는)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다가 한나라가 일어나자 멀고 지키기 어려워 서쪽으로 후퇴하여 요동의 고새를 수축하고, 패수를 경계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요수에 대하여 살펴보자.

『중국고금지명대사전』을 보면 “유수(濡水)는 지금의 난하(灤河)이다”¹⁴⁾라 했고,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에도 “현재의 난하(灤河)에 유수(濡水)”¹⁵⁾라 표기했다. 『수경주』 「유수(濡水)」조를 보면 “유수는 새(塞) 밖으로부터 와서 동남쪽으로 흘러 요서군 영지현(令支縣) 북쪽을 지난다”¹⁶⁾라고 했다. 내용을 풀면 다음과 같다.

“현수(玄水)는 또한 서남쪽으로 흘러 고죽성(孤竹城) 북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흘러 유수(濡水)로 들어간다. 옛 지리지에서 말하기를 현수(玄水)는 동쪽으로 흘러 유수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모두 동쪽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지리지에서 말하기를 ‘영지현(令支縣)에 고죽성이 있고 옛 고죽국이라’고 했다. 사기에서 말하기를 ‘고죽의 군(君) 두 아들은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인데……한(漢) 영제(靈帝) 때에 요서태수 염번(廉翻)이 꿈속에서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죽(孤竹) 군(君)의 아들 백이(伯夷)의 아우라 했다. ……진서(晉書) 지도지(地道志)에서 말하기를 요서 사람이 요수(遼水)에 관(棺)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했다. 말하기를 나는 고죽국의 임금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깨뜨릴 수 있는가? 그래서 사당을 지어졌는데 사당은 산위에 있고 성은 산의 옆 비여현 남쪽 20리 강물들이 모이는 곳이다.’”¹⁷⁾

또한 서한의 유향에 의하여 저술된 『설원』 「변물(辯物)」편에 “제(齊) 환공(桓公)이 북쪽으로 고죽을 정벌하러 가는데, 비이(卑耳)의 계(谿) 10리를 아직 못가서 멈추어 잠깐 보고 화살을 들었으나 쏘지 않았다. 탄식하며 말하기를 ‘일이 이루지 못할 것 같다. 키가 아주 큰 사람이 있는데 갓을 쓰고 아주 큰 인물이 갓추어 진 좌거의(左袪衣)한 자가 말을 타고 앞으로 달려갔

12) 始全燕時嘗略屬真番、朝鮮，為置吏，筑鄣塞

13) 大夫曰：往者，四夷俱强，并爲寇虐：朝鮮逾徼，劫燕之東地

14) 臧勵穌,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書店出版社, 2015. 1281-1282쪽

15)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제2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27-28쪽

16) 濡水從塞外來，東南過遼西令支縣北.

17) 玄水又西南逕孤竹城北，西入濡水. 故地理志曰..玄水東入濡，蓋自東而注也. 地理志曰..令支有孤竹城，故孤竹國也. 史記曰..孤竹君之二子伯夷 叔齊..漢靈帝時，遼西太守廉翻夢人謂已曰..余孤竹君之子，伯夷之弟..晉書地道志曰..遼西人見遼水有浮棺，欲破之. 語曰，我孤竹君也，汝破我何為？因為立祠焉. 祠在山側，城在山側. 肥如縣南十二里，水之會也.

다.’ 관중(管仲)이 말하기를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저 사람은 길을 아는 신이다. 말을 달리는 앞으로 길을 인도할 것이다. 좌거의한 사람 앞에 물이 있는데 왼쪽으로 건널 것이다.’라고 했다. 10리를 가니 과연 물이 있는데 요수(遼水)라고 표해놓았다. 왼쪽으로 건너니 복사뼈까지 오고 오른쪽으로 건너니 무릎까지 와서 이미 건너는 일이 과연 이루어졌다.”¹⁸⁾라고 되어 있다.

『한서』「지리지」〈요서군〉조를 보면 “요서군은 진(秦)나라 때 설치했다. 영지현에는 고죽성(孤竹城)이 있다. 비여(肥如)현에는 현수(玄水)가 동쪽으로 유수(濡水)로 들어간다. 유수(濡水) 남쪽으로 해양현으로 들어간다”¹⁹⁾라고 했다.

『회남자』「시칙훈」에 “다섯 방위가 있다. 동방의 끝은 갈석산으로부터 조선(朝鮮)을 지나 대인국(辰國?)을 통과하면 동쪽의 해 뜨는 곳에 이른다”²⁰⁾라고 되어 있다. 회남자는전한 무제 때 회남왕 유안(서기전 179?-122)이 저술한 책이다. 여기에는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침략하기 전의 상황이 언급되어 있는데, 갈석산 동쪽에는 위만조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시대 연나라 이후부터 한무제가 조선을 침략하기 전까지는 동쪽 경계가 지금의 요서지역인 난하 동쪽 부근으로 비슷하다.

『한서』「엄주오구보서엄종왕가전」조 가연지(賈捐之)전에 “서쪽으로 여러 나라가 연결되어 있어 안식(安息)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갈석을 지나 현토와 낙랑으로 군을 삼았으며, 북쪽으로는 흉노를 만리 밖으로 몰아내서 다시 병영과 요새를 일으켰다.”²¹⁾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기사는 전한시대 가연지가 한무제가 평정한 남월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자 군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내용으로, 갈석산 동쪽에 조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서들 기록을 종합해보면 요수(遼水)는 한나라 당시 유수(濡水)로 불렸으며, 요서·영지·고죽성·비여·현수(玄水) 등의 주요 명칭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명칭은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²²⁾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의 난하 하류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오늘날의 난하(灤河)가 요수(遼水)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고, 전국시대에 진개가 침입(서기전 300)한 이후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는 갈석산과 난하 유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2-2 전국시대의 연나라 국력(서기전 350-222)

이 절에는 『삼국지』「동이열전」의 〈위략〉에 나오는 것처럼 연나라가 과연 조선을 2천여 리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을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과 현재의 대다수 강단사학자들은 이를 믿고 한반도까지 연장성이 들어온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책(戰國策)』「연책(燕策)」에 “연문후(서기전 361-333)가 말하기를 과인의 나라는 작은 데다가 서쪽으로 강한 진나라의 강한 압박이 있고, 남쪽으로는 제·조 두나라와 접경하고 있소. 제·조 두나라는 강국이고, 지금 그대가 조왕의 가르침을 전해 주었소. 과인은 합종으로 연나라를 안정시킬 생각이오. 그대 말을 좇아 나라를 들어 합종시킬 생각이오”²³⁾

18) 齊桓公北征孤竹，未至卑耳谿中十里，闔然而止，瞠然而視有頃，奉矢未敢發也。喟然歎曰..事其不濟乎。有人長尺，冠冕大人物具焉，左祛衣走馬前者.. 管仲曰..事必濟，此人知道之神也。走馬前者導也，左祛衣者前有水也。從左方渡.. 行十里果，有水曰遼水表之。從左方渡至踝，從右方渡至膝，已渡事果。

19) 遼西郡，秦置.. 令支，有孤竹城.. 肥如，玄水東入濡水。濡水南入海陽。

20) 五位東方之極 自碣石山過朝鮮 貫大人之國 東至日出之次。

21) 西連諸國至于安息，東過碣石以玄菟、樂浪為郡，(比)(北)卻匈奴萬里，更起營塞。

22) 譚其驤，『中國歷史地圖集』，제2책，진·서한·동한시기，中國地圖出版社，1982，9-10쪽，27-28쪽，61-62쪽

23) 燕王曰：“寡人國小，西迫強秦，南近齊、趙。齊、趙，強國也。今主君幸教詔之，合從以安燕。敬以國從。”蘇秦將為從，

『사기』「연소공세가」에 “연소왕(서기전 311-279)은 “우리는 국토가 작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원수를 갚을 수 없다. ……태사공이 말하기를. 연나라는 밖으로는 만맥 등 여러 종족들과 대항하고 제(齊)·진(晉)나라에 대항하면서 강국사이에 끼어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느라 국력이 가장 약했고,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른 경우도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²⁴⁾

『사기』「소진열전」 소진이 각 제후(왕)들에게 합종유세시 “연문후(서기전 361-333)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약소하고 서쪽으로는 강대한 조나라가 꺾박하고 남쪽으로는 제나라에 근접해 있소. 제·조는 강성한 나라인데 그대는 반드시 합종을 이루어 연나라를 안전하게 해준다 하니 과인은 거국적으로 그대를 따르겠소.”²⁵⁾

[조숙후(서기전 349-326) 설득 유세시] “서쪽으로는 상산(常山)이 있고 남쪽으로는 장하(漳河)가 있으며 동쪽으로 청하(清河)가 있고 북쪽으로는 연나라가 있습니다. 연(燕)나라는 본래 약소국으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²⁶⁾

[제위왕(서기전 356-314)이 연나라 10성을 탈취한 사건에 대한 반환 설득 유세시] “지금 연나라는 비록 약하고 작지만 연나라왕은 진나라왕의 작은 사위입니다.”²⁷⁾

[연역왕(서기전 332-320)에게 설득시] “위기에 빠진 약한 연나라의 국왕을 섬기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²⁸⁾

『사기』「소진열전」 소대가 연왕 쾌(서기전 321-312)에게 유세시에 “연나라 왕이 말하기를 ‘제나라는 본래 나의 원수로 내가 토벌해야 하는 국가이오. 단지 나는 국력이 미약하고 역량이 충분치 못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뿐이오…….(소대가 말하기를) 천하에는 전투력을 가진 일곱 나라가 있는데 그 중 연나라는 약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²⁹⁾

『사기』「장의열전」 장의가 연소왕(서기전 311-279)에게 유세시(서기전 311) “과인이 만이로서 구석진 곳에 처해 있어서 다 큰데도 식견이 어린아이와 같소. 서쪽으로 진나라를 섬기기 바랄뿐이오. 항산의 끝에 있는 5개성을 바치겠다.”³⁰⁾

『사기』「진섭세가」 한광이 연나라 공격시(서기전 209) 옛 연나라의 호문귀족들이 권하며 “연나라는 비록 작을지라도 또한 만승병거의 나라이므로 장군이 자립하여 연나라 왕이 되기를 바라오.”³¹⁾

『사기』「저리자감무열전」 감라가 조도양왕(서기전 244-236)을 설득하면서 하는 말에 “대왕께서 5개성을 베어 신에게 주셔서 하간(河間)의 땅을 확장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연나라 태자단을 돌려보내고 강한 조나라와 연합하여 약한 연나라를 치게 하겠습니다……조나라는 연나라를 쳐서 상곡의 30개성을 빼앗고는 그 가운데 11개의 성을 진(秦)나라에 주었다.”³²⁾라고 되어 있다.

『사기』「악의열전」에 “연나라는 나라가 작고 멀리 구석진 곳에 있어 제나라를 제압할 힘이 없었다……. (연소왕이 악의에게) 우리나라가 약한 것도 헤아리지 않고 제나라를 치는 것을 과인의 임무로 생각할 뿐이오.”³³⁾라고 되어 있다.

24) 孤極知燕小力少，不足以報。太史公曰：燕（北）〔外〕迫蠻貉，內措齊，晉。崎嶇疆國之間，最為弱小，幾滅者數矣。

25) 文侯曰：「子言則可，然吾國小，西迫疆趙，南近齊，齊、趙疆國也。子必欲合從以安燕，寡人請以國從。」

26) 西有常山，南有河漳，東有清河，北有燕國。燕固弱國，不足畏也。

27) 今燕雖弱小，即秦王之少壻也。

28) 事弱燕之危王哉。

29) 王曰：「夫齊者固寡人之讎，所欲伐也，直患國敝力不足也。凡天下戰國七，燕處弱焉。」

30) 燕王曰：「寡人蠻夷僻處，雖大男子裁如嬰兒，…，請西面而事秦，獻恆山之尾五城。」

31) 燕故貴人豪傑謂韓廣曰：「楚已立王，趙又已立王。燕雖小，亦萬乘之國也，願將軍立為燕王。」

32) 王不如齎臣五城以廣河間，請歸燕太子，與疆趙攻弱燕…趙攻燕，得上谷三十城，令秦有十一。

『사기』「염파인상여열전」(무현이 연나라로 가려고하자 가신이던 인상여가 설득시)에 “조나라는 강하고 연나라는 약합니다. 가게 되면 (연나라에서)포박하여 다시 보낼 것이다.”³⁴⁾라고 되어 있다.

『삼국지』「무제기」 건안 19년(214) ‘조조가 영을 내리며’에 “소진은 약소국이었던 연나라를 구했다.”³⁵⁾라고 되어 있다.

위에 기록된 사료를 보면 전국시대의 연나라는 진개 침입 이전부터 나라가 작고 약했으며, 특히 『사기』「연소공세가」 말미에 태사공이 연나라를 평가하면서 말하기를 ‘연나라는 밖으로는 만맥 등 여러 종족들과 대항하고 제(齊)·진(晉: 趙·魏·韓)나라에 대항하면서 강국사이에 끼어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느라 국력이 가장 약했고,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른 경우도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과 후대인 삼국시대 때 조조도 연나라를 약소국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전국시대의 연나라는 약소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대는 전국시대 7웅 중 연나라가 가장 약하다고 했고, 만약 연나라가 현재의 요동까지 강역이었다면 사서에 한결 같이 국토가 작고 약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토의 면적도 작을 뿐 아니라 국력도 약한 그런 연나라가 현재의 요동까지 강역을 넓힐 수도 없고 유지했을 리도 없는 것이다. 다만 연나라의 전성기인 연소왕 때 제나라에 대한 보복공격을 하기전(서기전 284) 후방을 방비하기 위해 동호(東胡)에 인질로 잡혀있던 진개가 돌아와 동호와 조선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서기전 300년경)하여 상곡지역부터 난하 유역 인근인 갈석산 부근까지 연장성을 쌓고 그 안쪽에 5군을 설치했던 것이다.

3. 전국시대의 요동

3-1 요동의 개념

러시아 역사학자인 유엠부틴의 『고조선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견해로는 강 이름인 요하보다는 지명이 요동이 먼저 나타난 것 같다. 즉 요동은 천하의 동쪽변경을 의미하는 ‘극동’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지명이 나타날 때는 요서라는 말이 아직 없었다. 요서는 요수(멀리 떨어져 있는 강)라는 이름이 하나의 강명으로 정착된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요동이라는 땅이름과 요수라는 강 이름은 중국이 동북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는 가정은 아주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요하강의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위치해 있는 현재의 요서의 일부도 전국시대에는 요동에 속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원전 3세기까지 조선의 서쪽국경은 지금의 하북성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었다.”³⁶⁾

요동의 개념과 장성의 동단에 대한 윤내현의 『고조선연구』를 보면 “고대의 요동은 고조선과 중국의 국경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연나라나 진제국이 쌓았던 장성은 국경선상에 위치해 있었다. 요동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요수 또는 요하의 동부지역을 뜻한다고 한다, 고대에는 그 개념이 달랐다고 한다. 요동이란 극동이라는 뜻으로 중국인들은 그들이 영토인 천하의 동쪽 끝을 극동이라는 의미로 요동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요동은 원래 요수나 요하의 동쪽이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동이라는 말은 요수라는 강명이 먼저 생기고 그것을 기준

33) 燕國小，辟遠，力不能制...不量輕弱，而欲以齊為事

34) 夫趙彊而燕弱..今君乃亡趙走燕，燕畏趙，其勢必不敢留君，而束君歸趙矣

35) 蘇秦濟弱燕

36) 유엠부틴, 『고조선연구』, 아이네아스, 2019. 36쪽

으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동이라는 말은 전국시대에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이 문헌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러나 요서라는 말은 그 보다 늦은 전국시대 말기에야 보인다. 전국시대 말기에 연나라가 장성을 쌓고 그 안쪽에 요서군을 설치함으로써 요서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다……요동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넓은 의미의 요동지역을 뜻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동이다. 이 요동은 지리 범위가 분명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며, 대부분 중국영토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내의 행정구역인 요동군을 말하는 것이다.”³⁷⁾

북한의 역사학자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에 “(산해경 해내북경의 조선은 열양의 동쪽에 있는데 바다의 북쪽이고 산의 남쪽인데, 열양은 연나라에 속해 있다. 의 광박의 열수에 대한 주석 ‘열은 강의 이름이다. 요동에 있다’에 대한 설명) 요동이란 명칭은 연이 고조선을 침공하여 광대한 영토를 빼앗기 전시기 즉 기원전 3세기 이전시기에도 연의 영토가 아닌 용동이 있었던 것이다. 『전국책』 「연책」. 그 요동을 오늘의 우리나라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하는 론자도 있으나 그것은 부정확한 설이며……요컨대 그 요동은 오늘의 난하 이동이라는 뜻을 우선 이야기 해둔다.”³⁸⁾

위의 유엠부턴과 윤내현의 연구내용을 보면 고대의 요동은 중국영토 동쪽 끝이라는 의미의 극동이라는 것이다. 요동은 요수라는 강(동쪽으로 멀리 있는 강)이 있기 전부터 불리고 있었다고 하고 요수는 나중에 요동군과 요서군의 행정구역을 설치 할 때 요동지역을 흐르는 강이 있어 요수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리지린은 전국시대의 열수를 난하(灤河)로 보고 그 당시의 요동과 고조선 위치를 난하 이동으로 보고 있다. 사서의 기록을 보면 양자(요동과 요동군)를 혼합하여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진나라에서 쌓은 만리장성의 동단을 동쪽 경계의 끝인 요동이라고 기록한 것이며,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요동일 수도 있고 경계가 있는 행정구역인 요동군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추가로 설명하면 『사기』 「몽염열전」에 “장성을 임조에서 요동까지 쌓았다”고 할 때 요동은 요동군을 표현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지역이 요동이라는 의미의 일반적인 요동일 수도 있다.

『후한서』 「동이열전」 <고구려>조에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으로 천리 지점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행정구역인 요동군의 치소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후한서』 「본기」 <광무제기> 건무 6년(30)에 나오는 낙랑군에 대한 주석에 “낙랑군은 옛날 조선국이며, 요동에 있다”고 한 요동은 요동군이 아닌 일반적인 요동의 지역(일정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요동이라는 개념은 중국에서 볼 때 동쪽의 먼 변경지역을 뜻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의 요동과 중국의 군현 설치시 군의 명칭인 행정구역상의 요동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2 진개 침입 (서기전 300년경) 이전의 요동

『사기』 「소진열전」과 『전국책』 「연책」에 소진이 연문후(서기전 334)에게 합종을 위한 유세시에 한 내용에 “연문후를 찾아가 이같이 말했다. 연나라는 동쪽으로 조선(朝鮮)과 요동(遼東)이 있고, 북쪽으로 임호(林胡)·누번(樓煩), 서쪽으로 운중(雲中)과 구원(九原), 남쪽으로 호타하(呼沱河)와 역수(易水)가 있습니다. 영토는 사방 2천 리입니다.……남쪽으로 갈석산(碣石山)과

37)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2004. 180-182쪽

38) 리지린(이덕일 해역), 『고조선연구』, 말, 2018, 68쪽

안문(雁門)의 풍요로움이 있고 북쪽으로 대추와 밤의 이익이 있다.”³⁹⁾

이 당시 연나라 강역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전국시대의 유세가 소진(활동기간: 서기전 337-312?)은 동주(東周) 낙양 출신으로 약육강식하는 전국시대에 각 제후국(전국7웅)을 방문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위치·경계·지형·군비 등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각 나라의 군주 앞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좋은 뜻의 말을 할수도 있으나 대략적인 위치와 강역을 가늠할 수 있다.

『사기』「소진열전」에 소진이 각나라의 군주에게 유세하는 내용을 보면 진(秦)나라 방문(서기전337년) : 진혜문왕(서기전 337-311)에게 말하기를 “진나라는 사방이 막힌 나라로서 산에 둘러싸여 있고 위수를 두르고 있으며, 동으로는 함곡관과 황하가 있으며, 서로는 한중이 있고 남쪽으로는 파촉이 있으며, 북쪽으로 대(代)와 마음이 있다. 이는 하늘의 곳간이다.”⁴⁰⁾

연(燕)나라 방문(서기전 334) : 연문후(서기전 361-333)에게 유세시에 “연나라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고, 북쪽으로는 임호와 누변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운중과 구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호타하와 역수가 있습니다……남쪽으로는 갈석(색은: 상산 구문현), 안문[정의: 안문산은 대(代)에 있으며, 연(燕)의 서문이다]과 같은 풍요로움이 있고……또한 무릇 진나라가 연나라를 치려면 운중과 구원을 넘고 대(代)와 상곡을 지나려면 땅이 수천 리에 두루 미친다. ……지금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고자 명령을 내린다면 열흘도 못되어 수십만의 군사가 동원(東垣: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에 석가장시 동쪽⁴¹⁾)에 진을 치게 될 것입니다. 호타하를 건너고 역수를 건너서 4, 5일이 되지 않아 연나라 도읍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⁴²⁾라는 내용이 있다.

조(趙)나라 방문(서기전 334) : 조숙후(서기전 349-326)에게 유세시에 “서쪽에는 상산(常山)이 있고 남쪽으로는 장하(漳河)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청하(清河), 북쪽으로는 연나라가 있다. 연나라는 본디 약한 나라로 두려워할 것이 못됩니다. 진나라가 한·위를 공격하면……연나라는 운중을 지킨다.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면 조나라는 상산을 지킨다.”⁴³⁾라고 되어 있다.

『사기』「장의열전」에 장의(활동기간: 서기전 328?-309)가 연소왕(서기전 311-279)에게 유세시(서기전 311)에 “이제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기지 않는다면 진나라가 운중과 구원으로 군사를 내려보내 조나라 군대를 몰아 연나라를 공격한다면 역수와 장성은 대왕의 소유가 아닐 것입니다……연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만이(蠻夷)로서 편벽된 곳에 있어서 비록인 성인 남자지만 식견은 어린아이와 같아 올바른 계책을 채택하기에는 부족했소. 지금 상객이 다행히 가르쳐주니 청컨대 서쪽으로 진나라를 섬기고 항산(恆山: 현 하북성 보정시 래원(涞源) 동남쪽 백석산(白石山) 인근) 끝에 있는 5개의 성을 바치고자 합니다.”⁴⁴⁾라고 되어 있다.

『사기』「흉노열전」에 “진(晉)나라 북쪽에는 임호와 누변의 용이 있고 연나라 북쪽에는 동호와 산융이 있다. 각기 나누어 흩어져 계곡에 거주하면서 각각의 군장이 있다(이시기는 대략

39) 北說燕文侯曰:“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呼沱、易水, 地方二千餘里, …南有碣石、鴈門之饒, 北有棗、栗之利.

40) 秦四塞之國, 被山帶渭, 東有關河, 西有漢中, 南有巴蜀, 北有代馬, 此天府也

41)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1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37-38쪽

42)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呼沱、易水, 地方二千餘里, …南有碣石、鴈門之饒, 北有棗栗之利…且夫秦之攻燕也, 踰雲中、九原, 過代、上谷, 彌地數千里…今趙之攻燕也, 發號出令, 不至十日而數十萬之軍軍於東垣矣. 渡呼沱, 涉易水, 不至四五日而距國都矣

43) 西有常山, 南有河漳, 東有清河, 北有燕國. 燕固弱國..不足畏也…秦攻韓魏..燕守雲中 秦攻燕, 則趙守常山.

44) 今大王不事秦, 秦下甲雲中、九原, 驅趙而攻燕, 則易水長城非大王之有也..燕王曰:「寡人蠻夷僻處, 雖大男子裁如嬰兒, 言不足以采正計. 今上客幸教之, 請西面而事秦, 獻恆山之尾五城

서기전7세기경 상황).⁴⁵⁾

『사기』「조세가」 조무령왕(기원전 325-299). 19년(서기전 307) 무령왕이 신궁에서 성대한 조회를 개최(호복작용이 전쟁시 편리함을 역설하면서)에 “지금 중산국은 우리나라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연나라, 동쪽으로는 동호, 서쪽으로는 임호·누번·진(秦)·한(韓)나라의 국경과 접하고 있다……우리나라 동쪽으로 황하와 박락수가 있어 제(齊)·중산(中山)국과 공유하고 있으나 선박이 없다. 상산(常山)에서부터 대(代)에 이르는 상당(上黨)의 동쪽에는 연(燕)과 동호(東胡)의 변경이 있고 서쪽으로는 누번·진(秦)·한(韓)나라의 변경이 있다……복장을 바꾸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배워 연나라와 삼호(三胡: 임호·누번·동호), 진(秦)·한(韓)나라의 변경을 지키고자 한다……조양자(서기전 475-425)가 용을 병합하고 대(代)를 점거하여 오랑캐 각 부족을 물리쳤다.”⁴⁶⁾라는 내용이 있다.

조무령왕(기원전 325-299). 20년(서기전 306)에 “왕은 중산국의 영토를 공략 영가(寧葭: 석가장 서북)에 이르렀고, 서쪽으로 호(胡)의 땅을 침략 유중(榆中)에 이르렀다……대(代) 땅의 재상 조고가 호(胡) 땅에 주둔관리하며 호병(胡兵)을 모집했다.”⁴⁷⁾라고 되어 있다.

조무령왕(기원전 325-299). 26년(서기전 300)에 “다시 중산국을 공략했다. 이로써 탈취한 땅이 북쪽으로 연(燕)과 대(代)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운중과 구원에 이르렀다.”⁴⁸⁾라고 되어 있다.

조혜문왕 3년(서기전 296)에 “중산국을 멸하고 그 왕을 부시로 이주시켰다. 영수(寧壽)를 기점으로 이로부터 북방지역이 조나라에 귀속되어 대(代) 땅으로 향하는 길이 막힘없이 잘 통하게 되었다.”⁴⁹⁾라고 되어 있다.

『전국책』「조책」 조무령왕(趙武靈王)(기원전 325-299) 때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황하와 박락수로 각각 제나라와 중산국과 함께 이용하는데 사용할 배가 없소, 또 상산에서 대(代)에 이르기까지 상당의 동쪽으로는 연(燕)과 동호(東胡)와 경계를 이루고⁵⁰⁾『사기』「조세가」 조무령왕(기원전 325-299)19년과 내용동일]

『사기』「흉노열전」에 “조무령왕은 조나라의 풍속을 개혁하여 호복을 입고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가르쳐 북쪽으로 임호(林胡)와 누번(樓煩)을 무찔러 장성을 쌓고 대(代)에서부터 음산(陰山)산맥 기슭을 따라 고궐(高闕)에 이르는 지역을 요새지로 만들고 운중(雲中)·안문(雁門)·대(代) 등 세 군을 설치했다. 그 뒤 연(燕)나라는 현장 진개(秦開)가 동호에 인질로 가 있으면서 그들의 신뢰를 받았다. 그가 연나라로 돌아온 후, 군대를 이끌고 동호를 습격하여 패주 시켰다. 이 때 동호는 천여 리나 후퇴했다. 연나라 역시 조양(造陽)에서 양평(襄平)에 이르는 장성을 쌓고 상곡(上谷)·어양(漁陽)·우북평(右北平)·요서(遼西)·요동(遼東)의 여러 군을 두어 호(胡)를 방어 했다. 당시 중국에는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전국7웅(戰國七雄)이 있었는데 그중 3개국이 흉노와 경계를 맞대고 있었다.……뒤에 진나라가 6국을 멸망시키고(기원전 221) 시황제는 몽염(蒙恬)에게 10만의 군사를 주어 북쪽의 흉노를 치게 했다. 몽염은 하남(河南)땅을 모두 손에 넣었다, 그리고 황하를 이용하여 요새를 만드는 한편……또한 산맥·구릉·계곡을 따

45)而晉北有林胡、樓煩之戎，燕北有東胡、山戎。各分散居谿谷，自有君長

46)今中山在我腹心，北有燕，東有胡，西有林胡、樓煩、秦、韓之邊。吾國東有河、薄洛之水，與齊、中山同之，無舟楫之用。自常山以至代、上黨，東有燕、東胡之境，而西有樓煩、秦、韓之邊。變服騎射，以備燕、三胡、秦、韓之邊。而襄主并戎取代以攘諸胡

47)王略中山地，至寧葭；西略胡地，至榆中。代相趙固主胡，致其兵

48)復攻中山，攘地北至燕、代，西至雲中、九原。

49)滅中山，遷其王於膚施。起靈壽，北地方從，代道大通

50) 今吾國東有河、薄洛之水，與齊、中山同之，而無舟楫之用。自常山以至代、上黨，東有燕、東胡之境，

라 보충해야 할 곳은 손을 더 보아서 임조(臨洮)를 기점으로 요동(遼東)에 이르기까지 만여 리에 달하는 장성(長城)을 쌓았다.”⁵¹⁾라고 되어 있다.

위 자료들에 기록된 각 나라의 위치는 방위 설명시 일부는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펴보면 전국시대 연나라는 『전국책』 「연책」과 『사기』 「소진열전」에는 연나라의 위치와 상황이 비슷하게 되어 있으나, 『사기』 「흉노열전」(서기전 7세기경)에 연나라 북쪽에는 동호와 산융이 있다가 서기전 4세기에는 산융이 사라지고 『사기』 「조세가」와 『전국책』 「조책」의 기록처럼 동호만 남게 된다. 임호와 누번은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에서 조나라의 북쪽에 표시⁵²⁾하고 있어 조나라의 북쪽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燕)의 계(薊)를 기준 동쪽으로 요동과 조선이 있었던 것이다.

기원전 4세기의 연나라 강역은 북쪽으로는 동호가 있는(대의 동북쪽은 동호와의 경계) 조양(造陽: 현 장가구시 회래)과 현재의 탁록을 넘지 못하고(조양과 탁록은 동호가 거주), 동쪽으로 현재의 북경을 넘지 못했으며, 서쪽으로는 대(代: 현재 하북성 울현)의 동쪽과 항산(恒山: 현 보정시 涞源 남쪽 백석산) 인근 지역까지 이고, 남쪽으로는 호타하 북쪽, 창주(滄州)시 북쪽 하간(河間)시와 정주(定州)시 정도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보정(保定)시 및 낭방(廊坊)시 전체와 천진(天津)시와 창주(滄州)시 그리고 북경시 서남의 일부로 그 강역이 작았던 것으로 비정된다.

따라서 소진이 말한 “연나라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다”는 표현은 지도(1)과 같이 서기전 334년경 시점으로 연나라의 장수 진개가 동호를 침략(서기전 300년경)하기 전의 상황으로서 연장성을 쌓고 그곳에 상곡·어양·우북평·요서·요동군 등 5개의 군을 설치하기 이전이다. 연나라에서 바라보는 동쪽의 요동은 현재 북경의 중심을 흐르는 영정하(상류 상건하)를 중심으로 하여 북경의 동쪽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영정하를 중심으로 하여 고조선과의 경계지역인 중립지대(완충지대: 영정하 기준 동쪽방향. 천진시 일대)를 동쪽의 변경인 극동으로 불리는 요동(지역)으로 불렸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한서』 「지리지」 <어양군> 조 “진나라가 설치했다. 어양현. 고수(沽水)가 해외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 천주(泉州: 어양군 속현)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 데 750리를 흐른다”⁵³⁾라고 되어 있어 이 어양군은 현 조백하(潮白河)의 강을 따라 남쪽 바다까지 설치됨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연나라 진개가 동호와 조선을 쳐서 빼앗아 군을 설치한 지역으로 이 부근인 조백하 중·하류 지역을 요동으로 불리웠을 것으로 비정된다.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에 진(秦)나라와 전한(前漢)의 어양군의 위치⁵⁴⁾도 비슷하게 표시되어 있다.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의 지도⁵⁵⁾를 보면 연나라 기준 북쪽방향인 상곡과 조양, 계(薊)의 위쪽은 고리국(맥국: 동호)으로 표시했고, 동쪽(현재의 당산시 옥전의 동쪽)은 고조선 지역으로 표시했다.

51) 趙武靈王亦變俗胡服，習騎射，北破林胡、樓煩。築長城，自代并陰山下，至高闕為塞。而置雲中、鴈門、代郡。其後燕有賢將秦開，為質於胡，胡甚信之。歸而襲破走東胡，東胡卻千餘里。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當是之時，冠帶戰國七，而三國邊於匈奴。後秦滅六國，而始皇帝使蒙恬將十萬之眾北擊胡，悉收河南地。因河為塞。因邊山險塹谿谷可繕者治之，起臨洮至遼東萬餘里。

52)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제1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33-34쪽

53) 漁陽郡, 秦置。漁陽, 沽水出塞外, 東南至泉州入海, 行七百五十里。有鐵官

54)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제2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9-10쪽, 27-28쪽

55) 리지린(이덕일 해역). 『고조선연구』, 말, 2018, 56쪽



<지도1> 서기전 4세경 연나라 강역과 요동 인근지역

이런 동시대에 동호와 조선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료인 서한시대에 저술된 『염철론(鹽鐵論)』 「벌공(伐功)」 편에 “연(燕)나라가 동호(東胡)를 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천여 리의 땅을 취했으며, 요동(遼東)을 넘어 조선(朝鮮)을 공격했다.”⁵⁶⁾

같은 서기전 4세기에 연나라의 북쪽과 동쪽 지역에서 동호와 조선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심백강은 북송 때 편찬된 무경총요(武經總要)를 인용 현재의 조하(潮河)가 북송때 까지 조선하(朝鮮河)로 불리었다고 보고 있다.⁵⁷⁾ 따라서 현재 조백하 지역에 조선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상황을 모두 종합해보면 연나라의 장군 진개가 현재 북경을 기준으로 북쪽의 동호(東胡)를 치고 동쪽으로는 요동(遼東)을 넘어서 조선을 공격했다는 것을 볼 때 동호만 쳐서 1천여 리를 물러나게 하여 연장성(燕長城)을 쌓은 것이 아니고, 조백하(潮白河) 유역의 동쪽에 있는 조선도 같이 쳐서 빼앗은 땅에 조양(造陽: 장가구시 회래)에서 양평(襄平: 하북성 노룡, 갈석산)까지 연장성을 쌓고 그 안에 상곡·어양·우북평·요서·요동군 등 5군을 설치 호(胡)를 방어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요동 또한 현재 북경의 동쪽지역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연장성 설치후 동호가 아닌 호(胡)를 방어했다고 표현한 것은 고대에는 조선도 호(胡: 『한서』 「지리지」 <현토군> 조 주석에 “응소는 옛 진번으로 조선후국이다”⁵⁸⁾)라고도 호칭했음을 볼 때 동호와 조선을 포함한 표현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6) 燕襲走東胡，闢地千里，度遼東而攻朝鮮。

57) 심백강,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 바른역사, 2015, 13-40쪽.

58) 應劭曰：「故真番，朝鮮胡國」

3-3 진개 침입(서기전 300년경) 이후 요동

전국시대 연나라 전성기인 연소왕(서기전 311-279) 때인 서기전 300년경 연나라 장군 진개가 동호(東胡)를 침략 후 천여 리를 물리친 다음 서쪽 기점인 조양(造陽)에서 동단의 양평(襄平)까지 장성을 쌓아서 호(胡)를 방어했다고 한다. 이때부터는 연장성 동단 이동이 일반적인 중국의 동북쪽 변경인 동쪽 끝을 의미하는 요동이 된다.

그러나 진개가 동호를 물리치고 장성을 쌓은 이후에도 다시 동호는 대(代)의 주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

『사기』「조세가」에 “조혜문왕 26년(서기전 273)에 동호를 대(代) 땅에서 몰아내고 취했다”⁵⁹⁾라고 되어 있고, 『사기』「염파인상여열전」에 조효성왕(기원전 265-245) 때에 이목은 조나라 북쪽 국경인 대(代)와 안문(雁門) 사이에서 흉노를 수비하고 있었는데 흉노의 선우가 쳐들어오자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목은 10만 명이 넘는 흉노 기병을 공격하여 죽이고, 담람 부족을 멸하고, 동호를 쳐부수고 임호를 항복시켰다. 그 뒤 10년 동안 흉노는 조나라 변경성에 가까이 오지 못했다⁶⁰⁾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동호가 서기전 3세기까지 조나라 대(代)와 주변인 태항산맥 북부지역과 연나라 사이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흉노열전」에 “연나라 또한 장성을 쌓아 조양에서부터 양평(襄平)에 이르렀다. 양평에 대해 사기색은에서 주석하기를 위소는 양평은 지금 요동(郡)의 치소라 했다”.⁶¹⁾ “시황제는 몽염(蒙恬)에게 시켜……황하를 이용하여 요새를 만드는 한편……또한 산맥·구릉·계곡을 따라 보충해야 할 곳은 손을 더 보아서 임조(臨洮)를 기점으로 요동(遼東)에 이르기까지 만여 리에 달하는 장성(長城)을 쌓았다.”⁶²⁾

그러면 여기서 먼저 진나라 당시 요동(遼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기』「진시황본기」에 보면 “봄에 2세(호해)가 동쪽으로 순행하니 이사가 따랐다. 갈석산(碣石山)에 이르러 바다를 따라 남쪽 회계산에 도착하여, 시황제가 세운 글 비석에 모두 글자를 새겼는데, 비석의 한쪽 측면에 수행한 신하들의 이름을 새기고 선제의 성공과 성덕을 밝혔다. 황제가 말했다. 금석에 새긴 것은 모두 시황제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제 호칭을 이어받아 금석에 새긴 글귀에 시황제라 부르지 않는다면, 세월이 오래 흐른 후에는 후대에 계승한자가 행한 것처럼 되니, 시황제가 이룬 공적과 성스러운 덕에 걸맞지 않게 될 것이요. 승상 이사, 신하 거질, 어사대부 덕이 죽음을 무릅쓰고 말했다. 신들이 청하옵건데 황제의 조서를 이 비석에 다 새겨, 이것으로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황제는) 명을 내려 재가하노라. 마침내 요동(遼東)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⁶³⁾

이 기록은 진2세(호해) 원년(서기전 209), 동쪽 군현을 순시할 때의 내용으로 먼저 갈석산에 도착한 후 태산을 거쳐(『사기』「봉선서」참고) 회계산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갈석의 비문에 수행한 신하들의 이름만 새기고 시황제라는 칭호를 새기지 않으면 다른 황제가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신하들을 질책하니 신하들이 다시 갈석산에 가서 비석에 시황제라는 글귀를 새기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요동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갈석산 지역이 당시의 요동

59) 惠文王..二十六年，取東胡歐代地。

60) 李牧..大破殺匈奴十餘萬騎。滅襜褁，破東胡，降林胡，單于奔走。其後十餘歲，匈奴不敢近趙邊城。

61) 燕亦筑長城，自造陽至襄平。襄平에 대한 주석：索隱韋昭云：「今遼東所理也。」

62) 始皇帝使蒙恬..因河為塞..因邊山險塹谿谷可繕者治之，起臨洮至遼東萬餘里。

63) 春，二世東行郡縣，李斯從。到碣石，並海，南至會稽，而盡刻始皇所立刻石，石旁著大臣從者名，以章先帝成功盛德焉：皇帝曰：「金石刻盡始皇帝所爲也。今襲號而金石刻辭不稱。始皇帝，其於久遠也。如後嗣爲之者，不稱成功盛德。」丞相臣斯、臣去疾，御史大夫臣德昧死言：「臣請具刻詔書刻石，因明白矣。臣昧死請。」制曰：「可。」遂至遼東而還

(군)이었음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장성의 기점인 조양(造陽)과 동단인 양평(襄平)에 대한 위치를 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조양은 당나라 때 두우가 편찬한 『통전(通典)』의 규천군(媯川郡)조를 보면 “규주는 지금의 회용현(懷戎縣)이다……회용현은 한의 반현 땅이다. 한나라의 상곡군성이 이곳에 있다. 탁록산과 치우성이 있으며……사기에 이르기를 연나라 장성을 축성했는데 조양에서 양평에 이른다. 조양이 곳 이곳이다. 한무제가 흉노를 파하여 하남의 땅을 취하고, 상곡의 두벽현과 조양 땅을 오랑개에게 주었다. 위소가 말하기를 이곳(조양)이 상곡에 있다.”⁶⁴⁾

회용현(懷戎縣)이 조양(造陽)임을 알 수 있다.

『신당서(新唐書)』 「지리지(地理志)」 규주 규천군(媯州 媯川郡)조를 보면 “회용현(懷戎縣)(上). 천보연간에 규천현을 쪼개서 설치했다가 곧 없앴다. 규수가 가운데를 지나간다. 북쪽 90리에 장성이 있는데 개원연간에 장설이 쌓은 것이다. 동남쪽 50리에 거용새가 있고, 동쪽으로 노룡(새)과 갈석이 연이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행산과 상산이 이어져 있는데 실로 천하에 험한 곳이다. 철문관이 있고, 서쪽으로 영무군이 있다. 또한 북쪽으로 광변군이 있는데 옛날 백운성이다.”⁶⁵⁾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에 보면 회용현이 현재 “관청수고가 있는 하북성 회래현(懷來縣) 지역에 표시”⁶⁶⁾되어 있어 여기가 연장성의 서쪽 기점이 된다. 『신당서』에서 북쪽 90리에 있는 장성은 당나라 때 쌓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장성의 기점이 적성(赤城)현 독석구진(獨石口鎮)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 동단인 양평은 『한서』 「지리지」 요동군조에 “요동군은 진(秦)나라때 설치했으며, 유주에 속한다……현은 18개이다. 양평현에 목사관이 있다. 왕망은 창평이라 했다.”⁶⁷⁾

『진서』 「지(志)권14 지리상(地理上)」 평주(平州)조에 “후한말 공손도는 스스로 평주목이라 불렀다. 그 아들 공손강·공손강의 아들 공손문의 또한 요동에서 할거(割據)했으며, 동이의 아홉 종족이 복종했다. 위나라 때 동이교위를 설치했으며, 양평(襄平)에 거주하고, 요동·창려·현도·대방·낙랑5군으로 나누어 평주로 했다가 후에 유주로 합했다.”⁶⁸⁾

『후한서』 「원소유표열전」을 보면 “공손강은 요동인으로 아버지는 공손도이다……공손강이 거주했던 양평에 대해 주석하기를 양평은 현인데 요동군에 속해 있다. 옛성이 지금 평주 노룡현(盧龍縣) 서남에 있다.”⁶⁹⁾

주석자는 당나라 고종의 아들 장희태자 이현이다. 『구당서』 「지리지」에 당나라의 평주 노룡현은 후한시대 요서군 비여현⁷⁰⁾인데, 노룡현은 지금까지도 명칭 변경없이 하북성에 있다. 노룡은 현재 난하 하류 유역에 있는데 갈석산과 인접한 지역이다. 당시의 요동군 양평은 지금의 노룡현 서남쪽에 있었다는 것이 된다.

『진서』 「당빈(唐彬)전」에 “마침내 구경(舊境)을 개척하니 물리친 땅이 천 리였다. 진장성(秦長城)의 요새를 다시 수리했는데 온성(溫城)에서 갈석(碣石)에 미쳤으며, 산과 계곡을 이어 뻗

64) 媯川郡. 媯州今理懷戎縣...懷戎漢潘縣地. 漢上谷郡城在此. 有涿鹿山及蚩尤城. ..史記云:「燕築長城, 自造陽至襄平.」造陽即此. 漢武破匈奴, 取河南地, 棄上谷之斗僻縣造陽地以與胡. 韋昭云「在上谷」

65) 懷戎. 上. 天寶中析置媯川縣, 尋省. 媯水貫中. 北九十里長城, 開元中張說築. 東南五十里有居庸塞, 東連 盧龍 碣石, 西屬 太行 常山, 實天下之險. 有鐵門關. 西有寧武軍. 又北有 廣邊軍, 故白雲城也.

66)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卷5. 中國地圖出版社. 1982. p48-49

67) 遼東郡. 秦置. 屬幽州...縣十八. 襄平, 有牧師官. 莽曰昌平.

68) 後漢末, 公孫度自號平州牧. 及其子康 康子文懿竝擅據遼東, 東夷九種皆服事焉. 魏置東夷校尉, 居襄平, 而分遼東 昌黎 玄菟 帶方 樂浪 五郡為平州, 後還合為幽州

69) 公孫康, 遼東人. 父度...襄平, 縣, 屬遼東郡, 故城在今平州盧龍縣西南.

70) 구당서 지리지 평주 노룡현조 : 盧龍後漢肥如縣, 屬遼西郡

친 것이 또한 3천 리였다.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봉화대가 서로 바라보도록 했다. 이로 인해 변방의 경계가 안정되었다.”⁷¹⁾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삼국·서진 시기)에 온현(溫縣)이 낙양 동북쪽 황하 북쪽에 있고 갈석산은 현 창려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다.⁷²⁾ 이것은 그 당시 갈석부터 낙양의 북쪽 온성까지 연산산맥과 태항산맥을 이어 능선의 요새에 봉화를 올릴 수 있는 봉화대를 구축하여 외적의 침략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대명일통지』권5 「영평부(永平府)」<능묘(陵墓)>조에 “공손총(公孫塚)은 적봉령 남쪽 길 봉화산에 공손신강(公孫神康)의 무덤이 있다. 한말(漢末)에 공손도가 평주(平州)에 의거하고 아들 공손강에게 전했다. 어찌 그의 장지가 여기에 있는 것인가?⁷³⁾ 또 같은 책 <산천(山川)>조에 “적봉령은 영평부성 서쪽 40리 위에 공손신강(公孫神康)의 묘(墓)가 있다.”⁷⁴⁾

명나라 때 영평부는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 일대를 말한다. 이곳에 후한 말 공손씨 일가인 공손도부터 그 아들인 공손강·공손공, 손자인 공손연(문의)까지 50년 동안(189-238년) 요동 태수등을 맡아 그 인근지역까지 장악 할거하고 공손연이 연왕을 칭하다가 서기 238년 위(魏)나라 사마의의 공격으로 멸망한 지역인 것이다. 대방군까지 설치한 공손강의 무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곳이 후한 말의 요동군지역이고 치소인 양평이었다는 『후한서』 「원소유표열전」의 양평에 대한 장희태자 이현의 주석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위 기록들을 볼 때 연장성은 조양(造陽: 『중국역사지도집』에 회융현은 현재 “관청수고가 있는 하북성 회래현(懷來縣) 북경 서북쪽 위치함”⁷⁵⁾)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단을 양평(襄平: 하북성 노룡현. 갈석산)이라 했고, 진장성을 축성할 때 동단을 요동(遼東)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연나라의 장성은 서기전 3세기 초반(서기전 300년경 이후)에 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진나라에 서기전 222년에 멸망한 것을 감안할 때, 진장성의 축성은 진나라가 전국시대 6국을 멸하고 통일시킨 서기전 221년 이후에 장수 몽염을 시켜 전국시대 세 나라(秦·趙·燕)의 장성을 보수 연결하여 쌓은 것으로써, 연장성의 동단인 양평과 진장성의 동단인 요동은 동일한 지역이라고 본다. 따라서 연진(燕秦)시대의 행정구역상 요동군은 현재 노룡현 일대로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요동은 난하 유역 이동의 갈석산 동쪽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전국시대 중기 연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연나라의 전성기는 연소왕(서기전 311-279) 시기로 부친인 연왕 쾌(서기전 320-312)가 재상(子之)을 신임 모든 왕의 권한을 넘기는 실정(失政)으로 장군 시피(市被)가 재상을 공격하는 등 수 개월 동안 내란이 일어나자 제선왕(재위: 319-301)이 연나라를 공격하면서 연왕 쾌와 재상이 죽는 대혼란을 겪는다. 연소왕은 이런 혼란 속에서 망하기 일보 직전에서 왕위에 올랐다. 연소왕은 제나라에 대한 복수를 위해 부국강병을 실현코자 자신의 자세를 낮추면서 각국의 현사(賢士)들을 후대하여 모집하는데 악의(樂毅)·추연·극신 등 많은 인사들이 몰려왔다.

마침내 연소왕 28년(서기전 284) 연나라가 부강해짐에 악의를 상장군으로 임명 진(秦)·초(楚)·한(韓)·조(趙)·위(魏) 등 5국과 연합하여 제나라를 공격, 제나라 도읍인 임치(臨淄)를 점령하자 제민왕은 도망가서 거(莒)에서 죽고 70여개 성을 함락시켜 6년 동안 제나라를 점령

71) 遂開拓舊境，卻地千里。復秦長城塞，自溫城泊于碣石，縣互山谷且三千里，分軍屯守，烽堠相望。由是邊境獲安

72)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제3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35-36쪽, 41-42쪽.

73) 公孫塚 在 赤峯嶺 及道南 烽火山有 公孫神康墓 漢末 公孫度 據平州 傳子康 豈其所葬與

74) 赤峯嶺 在 府城 西四十里 上有 公孫神康墓

75)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제1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33-34.

주둔했다. 이후 연소왕이 죽고(279년) 아들인 태자 연혜왕(278-272)이 즉위하자 태자 때부터 악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연혜왕은 제나라 장수 전단의 반간계에 휘둘러 사령관직을 기겁장군으로 대행케 하자 악의는 조나라로 도망간다. 기겁은 즉목에서 전단에게 화우지계로 대패, 기겁은 죽고 연나라 병사들은 모두 철수하게 되자 제나라는 예전의 함락된 성을 모두 되찾았다. 이 연혜왕부터 연나라는 다시 힘없는 약소국으로 전락하여 연왕 희 때 멸망(서기전 222)하게 된다.

연혜왕 이후 『사기』「연소공세가」「표」「자객열전」, 『전국책』「연책」 등의 기록에 의한 연나라의 상황을 보면 연혜왕 7년(서기전 272) 한·위·조 세 나라가 힘을 합쳐 연나라를 쳤다.(『전국책』「연책」에는 제·한·위 세 나라). 연무성왕 7년(서기전 265) 제나라 전단이 연나라로 쳐들어와 중양(中陽: 하북성 唐현 서북) 땅을 차지했다. 연왕 희(喜) 4년(서기전 251) 조나라를 쳤으나 오히려 조나라 장군 염파에게 대패 연나라 도움을 포위하자 연왕은 5개성을 떼어주고 화친했다.

연왕 희 12년(서기전 243) 조나라 장수 이목이 연나라를 공격 무수와 방성 등 2곳을 점령했다. 연왕이 극신을 장군으로 삼아 조나라를 공격했으나 조나라의 방현에게 대패, 극신을 죽였다. 연왕 희 23년(서기전 232) 연태자 단이 진나라에 인질로 갔다가 연나라로 도망쳐 왔다. 시황제 20년(서기전 227) 연태자 단이 형가를 시켜 시황제를 암살하려다 실패하자. 시황제는 장군 왕전으로 하여금 연나라를 공격케 해 도움인 계성을 함락(서기전 226)시키자 연왕 희와 태자 단은 정병을 이끌고 동쪽 요동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진나라 장군 이신(李信)이 계속 추격한다. 이때 대(代)왕 가(嘉)의 계책을 채택 연수(衍水) 가에 숨어있는 태자 단의 목을 베어 진나라에 보내니 진나라 군사들은 물러가고 연왕 희는 요동(遼東)으로 옮겨가 생활하다가 5년 뒤(서기전 222년) 진나라가 다시 연나라를 치고 연왕을 사로잡아 연나라는 멸망한다.

여기에서 해당 사료를 찾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기』「연소공세가」에 “연왕 희 27년(서기전 228) 진나라가 조왕 천(遷)을 사로잡아 조나라를 멸망시키자 조나라 공자 가(嘉)는 대(代)로 도망가서 스스로 대(代)왕이 되었다. (형가사건 이후) 장군 왕전에게 연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연왕 희 29년(서기전 226) 진나라가 연나라 도성(薊)을 함락하자 연왕 희는 요동으로 거처를 옮기고 태자 단의 목을 베어 진나라에 바쳤다. 연왕 희 33년 (서기전 222년) 진나라가 요동을 점령하여 연왕 희를 사로잡아 마침내 연나라를 멸했다. 이해에 (연왕을 잡고 돌아오는 길) 진나라 장수 왕분이 또한 대(代)왕 가(嘉)를 사로잡았다.”⁷⁶⁾라고 되어 있다.

『사기』「자객열전」(형가사건 이후)에 “이 일로 진(秦)왕은 크게 노하여 더욱 군사를 일으켜 조나라에 이르게 하고 왕전의 군사에게 조서를 내려 연나라를 치게 했다. 10월 도움인 계성이 함락되자 연왕 희와 태자 단 등은 정예병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달아나 요동을 지켰다. 진나라 장수 이신(李信)이 연왕 희를 급히 추격하자 대(代)왕 가(嘉)는 곧 연왕 희에게 서신을 보내 말했다. ‘진나라가 연나라를 더욱 급박하게 쫓는 것은 태자 단 때문입니다. 지금 왕께서 실로 단을 죽여 진왕에게 바친다면 진왕은 반드시 (추격을) 풀 것이며, 사직도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후 이신이 단을 추격하자 태자 단은 연수(衍水) 가에 몸을 숨겼다. 연왕은 이에 사자를 보내어 태자단을 베어 진나라에 바치고자(『사기』「표」에는 태자단의 머리를 얻었다고 했음) 했다. 진나라는 다시 군사를 내어 공격했다. 5년 뒤(서기전 222) 진나라는 마침내 연나라를 멸하고 연왕 희를 사로잡았다.”⁷⁷⁾라고 되어 있다.

76)二十七年，秦虜趙王遷，滅趙。趙公子嘉自立為代王..二十九年，秦攻拔我薊，燕王亡，徙居遼東，斬丹以獻秦..三十三年 秦拔遼東，虜燕王喜，卒滅燕。是歲，秦將王賁亦虜代王嘉

『사기』『진시황본기』에는 20년(서기전 227) “연(燕)과 대(代)나라는 군사들을 발병하여 진나라 군사들을 공격했으나 진나라 군사들이 연나라를 역수(易水) 서쪽에서 격파했다.”⁷⁸⁾ 21년(서기전 226) “더욱 군사들을 징발해 왕전의 군대에 보내서 마침내 연나라 태자의 군대를 격파하고 연나라 계성을 빼앗아 태자 단의 머리를 취했다. 연나라 왕은 동쪽 요동을 수습하고 그곳의 왕이 되었다.”⁷⁹⁾라고 되어 있다.

『사기』『육국연표』에 시황제 20년(서기전 227) “연나라 태자가 형가를 시켜 왕을 찌르려다 발각되었다. 왕전이 장수가 되어 연나라를 공격했다. 연왕 희29년(서기전 226년) 진나라가 연나라의 계를 함락시키고 태자단을 잡았다. 왕은 요동으로 옮겨갔다.”⁸⁰⁾라고 되어 있다.

위 사료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연나라 마지막왕인 연왕 희가 도성인 계(薊: 현 북경 서남)가 함락되자 태자 단과 정예병을 이끌고 동쪽으로 도망갈 때 요동으로 옮겨가서 거처했다고 했다. 이로써 북경의 동쪽을 요동이라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왕 희가 도주한 곳은 남쪽 방향은 평야지대이고 바다로 막혀 있기 때문에 급히 추격하는 진나라 군사를 따돌리기가 어려워 동북 연산산맥 방향으로 조백하(潮白河)를 건너 산악지역인 난하 유역 쪽(노룡현 방향)으로 도망간 것으로 판단된다. 조나라가 멸망한 후 조나라 공자 가(嘉)는 대(代: 현 하북성 울현) 땅으로 옮겨 왕을 자처하고 있으면서 진나라 왕전이 연나라를 공격할 때 같이 연나라와 연합하여 역수(易水) 서쪽에서 진나라와 전투를 벌이지만 패하고, 결국 연나라 도성인 계(薊)가 함락되었다.

그러자 연왕 희가 요동으로 도주할 때 진나라 장군 이신(李信)의 빠른 추격을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代)왕 가(嘉)는 연왕 희(喜)에게 서신으로 계책(태자 단의 목을 베어 진나라에 바치면 추격을 멈출 것)을 내자 연왕 희가 그 계책을 따라 태자 단의 목을 베어 바치게 된다. 진나라 장군 이신이 태자 단의 머리를 얻자 우선 목표를 달성해서 퇴각하게 된 것은 아직 6국 전체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2개국(韓·趙)만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된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서신을 주고 받을 정도의 거리는 가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당시의 대(代)의 위치는 현 하북성 울현(蔚縣) 동쪽으로⁸¹⁾ 북경과는 그리 먼 지역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본다.

현 북경에서 현재의 요동인 요양(遼陽) 동쪽 태자하까지의 거리는 2천여 리가 되는데(“윤내현 교수의 『고조선 연구』에 의하면 정약용이 압록강을 패수로 보고.. <위략>에 연나라가의 진개가 조선의 서방 2천리를 뺏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북경으로부터 의주(義州)까지 거리는 2천1백리가 되므로 진개의 침략으로 조선은 압록강 서쪽을 모두 잃었을 것이다.”⁸²⁾) 이 요동까지 가는 데는 난하를 건너고 연산산맥을 넘고 조양과 대릉하를 지나 요하의 늪지대와 요하를 건너야 하며 요양을 거쳐 태자하까지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생각된다. 여기서 현재의 요하 동쪽인 요동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5년 뒤(서기전 222) 초나라까지 멸망(서기전 223)시킨 이후 진나라 장군 왕분이 먼저 요동(난하 부근)을 점령하여 연왕

77) 於是秦王大怒，益發兵詣趙，詔王翦軍以伐燕。十月而拔薊城。燕王喜、太子丹等盡率其精兵東保於遼東。秦將李信追擊燕王急，代王嘉乃遣燕王喜書曰：「秦所以尤追燕急者，以太子丹故也。今王誠殺丹獻之秦王，秦王必解，而社稷幸得血食。」其後李信追丹，丹匿衍水中，燕王乃使使斬太子丹，欲獻之秦。秦復進兵攻之。後五年，秦卒滅燕，虜燕王喜

78) 燕、代發兵擊秦軍，秦軍破燕易水之西。

79) 乃益發卒詣王翦軍，遂破燕太子軍，取燕薊城，得太子丹之首。燕王東收遼東而王之

80) (秦):二十.燕太子使荊軻刺王，覺之。王翦將擊燕。

(燕):二十九 秦拔我薊，得太子丹。王徙遼東

81)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제1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 37-38쪽

82)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2004, 234쪽

희를 사로잡고, 그해에 돌아오면서 전에 연나라와 함께 진나라를 공격한 대(代)를 공격해 대왕가(嘉)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행군의 진행 방향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연소왕(서기전 311-279) 때는 연나라는 도읍인 계(薊: 『위서』 「지형지」 <유주, 연군. 계현>에 “연소왕릉과 연혜왕릉이 있다”⁸³⁾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호타하 북쪽, 서쪽으로 상산 인근, 동쪽으로 장성을 따라 난하 유역(갈석산)까지 강역을 유지했으나 연소왕이 죽은 후에는 연나라가 급격히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

위에 기록된 『사기』 「진시황본기」 21년 조에 진나라 왕전의 공격으로 도읍인 계성이 함락되자 동쪽으로 가서 요동을 수습하고 그곳에서 5년간 왕노릇을 한 것으로 보아, 요동 지역(현 당산시, 진황도시 일부)은 진개가 공격하여 빼앗고 장성을 쌓아 5개군(상곡·어양·우북평·요서·요동)을 설치했으나, 연혜왕(서기전 278-272) 이후 국력이 쇠퇴하여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고 어지러웠음을 알 수 있다.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에 따르면 “연나라와 고조선간의 공통된 방언(方言)이 있었다. 양웅(楊雄: 서기전 53-서기 18)의 『방언(方言)』에는 연나라 동북변과 고조선 열수 간에 사용된 26개 방언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방언이 통용되는 지역에 고조선과 연의 양국민이 섞여 살았고, 이 방언이 고조선이 오랜 세월을 두고 이 지역에 거주 했기에 조선의 영향을 받은 연나라 방언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⁸⁴⁾라고 되어 있어 5개군 지역에는 기존에 그곳에 거주하던 동호와 조선의 유민들이 연나라 사람들과 섞여 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왕 희가 요동으로 도망갈 당시는 전쟁 중이라 요동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쪽도 연나라 행정구역인 어양·우북평·요서·요동군 등이 있었을 것인데 수습했다고 한 것은 아마 기존의 주민들이 고조선계여서 자치적으로 생활하다가 왕이 요동으로 도망왔으니 주민들이 불안과 반발 등이 있었을 수 있어 주민들을 위무하고 잠시 왕노릇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서기전 300년 이후에는 진개가 침략한 이후 연장성을 쌓고 그 장성 안쪽에 5개군(상곡·어양·우북평·요서·요동)을 설치했음에도, 요동은 <지도2>와 같이 현 북경의 동쪽 지역을 포괄하는 명칭이었으며, 또한 연나라 동쪽 경계인 난하주변과 동쪽을 요동이라고 불렀다고 사료된다.

83) 燕郡. 薊 二漢屬廣陽, 晉屬. 有燕昭王陵、燕惠王陵、狼山神、戾陵陂

84) 리지린, 『고조선연구』, 말, 2018, 100-101.



<지도2> 서기전 300년경 이후 연나라 강역과 진개 침입 이후의 5군 설치

4. 진(秦)말·한(漢)초의 요동

4-1 진(秦)의 통일과 요동

진(秦)나라가 통일한 이후의 강역은 『사기』 「진시황본기」에 “진나라의 영토는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고 조선에 닿았다. 서쪽으로 임조와 강중에 이르렀으며, 남쪽으로 북향호에 이르고 북쪽으로 하수에 의지해 요새로 삼고 음산과 나란히 하여 요동에 이르렀다. 여기서의 바다(海)에 대해서 주석 <사기정의>에서는 바다는 발해 남쪽의 양주·소주·태주 등에 이르는 동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동북쪽에 조선국이 있다”⁸⁵⁾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바다는 지금의 강소성과 절강성 등지가 된다. 그리고 동북쪽에 조선이 있다고 했으므로 하북성 등 발해지역의 어느 부분이 되는 것이다. 북쪽으로는 음산산맥과 나란히 동쪽으로 요동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이 요동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난하 하류 유역의 갈석산이 있는 지역이 요동이고 조선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기』 「몽염열전」에 “진나라가 이미 천하를 병합한 후에 몽염으로 하여금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가서 용적(戎狄)을 내쫓고, 하남 지역을 거두어 장성을 쌓게 했다. 지형에 따라 험난한 곳을 이용하여 성채를 쌓으니 임조에서부터 요동(遼東)까지 길이가 만여 리나 되었다.”⁸⁶⁾라고 되어 있다.

『사기』 「흉노열전」에 “황하를 이용하여 요새를 만드는 한편, 하수를 따라 44곳에 현(縣)성을

85) 地東至海暨朝鮮，西至臨洮、羌中，南至北嚮戶，北據河爲塞，並陰山至遼東。正義 暨，海謂渤海南至揚、蘇、台等州之東海也。暨，及也。東北朝鮮國。

86) 秦已并天下，乃使蒙恬將三十萬衆北逐戎狄，收河南。築長城，因地形，用制險塞，起臨洮，至遼東，延袤萬餘里

쌓고, 죄수들로 이루어진 병사를 옮겨다가 이를 지키게 했다. 구원에서 운양에 이르는 직도를 개통시켰다. 또한 산맥·구릉·계곡을 따라 보충해야 할 곳은 손을 더 보아서 임조를 기점으로 요동(遼東)에 이르기까지 만여 리에 달하는 장성을 쌓았다.⁸⁷⁾

위 사료에 보이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진장성, 즉 만리장성이다. 진시황이 장성을 쌓게 된 배경은 통일 이후 순행차 갈석산에 갔을 때(서기전 215) 연나라 사람 노생이 준 참위서에서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胡)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진시황은 몽염에게 30만 군사로 북쪽의 호(胡)를 공격해 하남(河南) 지역을 빼앗았다. 이때부터 흉노 등 이민족을 방어하기 위해 하수 북쪽부터 음산산맥을 따라 요동까지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든 것이다.

이 장성은 진나라가 새로 쌓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진(秦)·조(趙)·연(燕)의 것을 보수하고 연결하고 쌓은 것이었다. 그래서 연장성의 동단과 진장성의 동단은 동일한 지역이다.

진장성 축조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문헌에서 찾아보자.

『진서』「당빈(唐彬)전」에 “마침내 구경(舊境)을 개척하니 물리친 땅이 천 리였다. 진장성(秦長城)의 요새를 다시 수리했는데 온성(溫城)에서 갈석(碣石)에 미쳤으며, 산과 계곡을 이어 뻗은 것이 또한 3천 리였다.”⁸⁸⁾

『요사』「지리지」<남경도>난주(灤州) 영안군(永安軍)조에 “본래는 옛 황락성(城)이다. 성은 난하가 둘러싸고 있으며, 노룡산은 남쪽에 있다……부소천(扶蘇泉)이 있는데 맛이 매우 달고 좋아서 진(秦)나라 태자 부소가 북쪽에서 장성을 쌓고 일찍이 이곳에 머물렀다.”⁸⁹⁾

『대명일통지』「영평부(永平府)」<산천(山川)>조에 “부소천(扶蘇泉)은 난주(灤州)에 있는데, 샘이 맛이 매우 달고 좋아서 진(秦)나라 태자 부소(扶蘇)가 북쪽에서 장성을 쌓고 일찍이 이곳에 머물렀다.”⁹⁰⁾

『대명일통지』「영평부(永平府)」<고적(古蹟)>조에 “진장성은 영평부성 북쪽 70리에 있다. 즉 진(秦) 장군 몽염(蒙恬)이 축성한 곳인데 지금 보수한 유지(遺址)가 있다.”⁹¹⁾ 당시 태자 부소는 몽염 장군이 만리장성을 쌓는 일을 할 때 감군으로 있었다. 명나라 때 영평부(永平府) 지역이 진(秦)장성 동단이며, 난하 하류(갈석산 인근) 유역으로 당시의 요동인 것을 알 수 있다.

4-2 진말(秦末)·한초(漢初)의 요동

이 절의 시간적 범위는 서기전 210년부터 서기전 195년까지이다. 다시 말하면 진시황이 죽고 진2세가 집권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유방이 항우를 죽이고 천하를 통일하고, 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 흉노로 도망가고, 위만이 조선으로 망명하여 준왕을 내쫓고 위만조선을 세웠다가 한무제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이다.

이때는 매우 혼란한 시기이다. 진시황의 폭정으로 각 지역에서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이었다. 서기전 209년 진승과 오광이 난을 일으켰다. 이 난을 기폭제로 통일 전 6개국에 속한 지역에서 항우와 유방 등의 군웅들이 일어나 진(秦)나라의 각 군현들을 공격하고 관중으로 진군한다. 항우는 진나라 마지막 왕 자영을 죽이고 함양의 궁들을 불태웠다. 그는 이어서 패왕이

87)因河為塞，築四十四縣城臨河，徙適戍以充之。而通直道，自九原至雲陽，因邊山險澁谿谷可繕者治之，起臨洮至遼東萬餘里

88)遂開拓舊境，卻地千里。復秦長城塞，自溫城泊于碣石，縣互山谷且三千里

89)本古黃洛城 灤河環繞 在盧龍山南...扶蘇泉 甚甘美 秦太子扶蘇 北築長城 嘗駐此

90)扶蘇泉 在灤州 甚甘美 秦太子扶蘇 北築長城 嘗駐此

91)秦長城 在府城 北七十里即 秦將蒙恬所築 今因其遺址加修焉

되어 진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참여한 각국의 장수들에게 천하를 나누어 왕과 제후를 봉한다(서기전 206). 그 이후 한(漢)의 유방은 관중(옛 진나라 지역)을 공격하고 동쪽으로 진군하여 항우와 5년간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서기전 202년 항우를 죽이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된다. 이후 유방은 공을 세운 장수들을 제후왕에 봉하지만, 반란 등의 이유로 차츰 이성제후들을 제거해 나간다. 연왕 노관도 진희와 관련된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흉노로 투항하고, 당시 연나라에 있던 위만도 동쪽의 패수를 건너 조선으로 망명한다. 그곳에서 위만은 준왕을 공격하여 쫓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우게 된다.

이 시기의 요동에 대한 사향을 살펴보자.

항왕이 진나라를 멸망시킨 후 각 장수들을 제후왕으로 봉할 때의 상황을 『사기』「항우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연왕(燕王) 한광(韓廣)을 옮겨 요동왕으로 삼았다. 연나라 장군 장도(臧荼)는 초나라를 따라 조나라를 구원했고 또 따라서 관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장도를 세워 연왕으로 삼고 계(薊)에 도읍했다.”⁹²⁾ (한나라 원년)……장도는 자신의 나라로 가서 연왕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한광을 요동(遼東)으로 쫓아내려 했으나 한광이 듣지 않았다. 그러자 장도는 한광을 무종에서 공격해 살해하고 한광의 땅을 겸병해서 왕이 되었다.⁹³⁾ 요동왕에 대한 주석 집해는 ‘서광은 무종(無終)에 도읍했다.’(지도3 참고)



<지도3> 진말·한초의 연국과 요동국

92) 徙燕王韓廣為遼東王。燕將臧荼從楚救趙，因從入關，故立荼為燕王，都薊

93) 臧荼之國，因逐韓廣之遼東，廣弗聽，荼擊殺廣無終，并王其地

『사기』「진초지제월표」에는 내용이 좀 더 자세하다.

“서기전 206년 12월[진력(秦曆) 기준] 장도가 항우를 따라 관중에 들어갔으므로 연나라를 나누어 요동국을 만들었다. 주석 색은에서는 (나눈 것이) 연국과 요동국이다.”⁹⁴⁾ “서기전 206년 1월[한력(漢曆) 기준] 요동은 연국을 나누어 요동국을 만들었다.”⁹⁵⁾ “서기전 206년 2월 연국은 왕 장도가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연나라 장수였다. 요동은 한광 31월 왕 한광이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연왕이었다.”⁹⁶⁾ “서기전 206년 3월 연국은 장도 2월 계(薊)에 도읍했다. 요동은 한광 32월 무종(無終)에 도읍했다.”⁹⁷⁾ “서기전 206년 8월 장도가 한광을 무종(無終)에서 쳐서 멸했다.”⁹⁸⁾

여기서 말하는 요동국의 도읍 무종이 현재의 어디인가를 살펴보자.

『구당서』「지리지」 계주(薊州) 옥전현(玉田縣)조에 “한나라 때 무종현이며 우북평군에 속했다…… 만세통천 2년(697)에 옥전현으로 고쳤다.”⁹⁹⁾

위의 기록들을 볼 때 한광은 서기전 209년 9월에 연나라를 치러갔다가 호족들의 권유로 스스로 연왕에 올라 왕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부하인 장도를 조나라를 구원할 때 항우에게 보낸다. 그 후 장도는 항우를 따라 관중까지 가서 진나라를 멸하고 그 공으로 연나라를 둘로 나누어 장도를 연왕에 봉하자 연왕이던 한광은 요동국으로 좌천된 것이다. 한광으로서는 불만이 많아 충돌하다가 결국 연왕 장도에게 살해당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요동국의 도읍이 무종(無終)인데 그곳은 지금의 하북성 당산시 옥전이다. 옥전은 북경에서 가까운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혹자가 이 요동국을 현재의 요동에 비정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의 요동 지역까지가 진나라 강역이었다면 도읍을 무종이 아니라 심양이나 요양 등에 두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산시 옥전에 도읍을 두고 지금의 심양이나 요양까지 다스렸다고는 볼 수 없다. 변경지역으로 좌천시켜 임명하는 자에게 그렇게 큰 영토를 줄 리도 없다. 만약 현재의 요동지역(심양·무순 등)이 서기전 300년 무렵 진개가 침입한 이후부터 연나라 땅이었고 진나라 땅이었다면 그렇게 큰 영토를 다스리게 해주었는데, 요동국왕에 임명된 한광이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사기』「장이진여열전」에 (항우가 제후왕을 봉할 때 장이는 조왕에 봉하고 진여는 3개현의 제후에 봉함했다. 여기에 화가 난 진여가 항우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제왕 전영이 조나라에 반기를 들자 진여는 이에 하열을 보내어 전영을 설득하며 말했다. 항우는 천하를 다스림이 공평하지 못하여 참여한 장수들은 모두 좋은 땅에 왕으로 보내주고, 이전의 왕은 나쁜 땅으로 옮겨 버렸기에 현재 조왕은 대(代)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신에게 군대를 빌려 주신다면 제가 가진 남피의 땅으로 대왕의 나라를 보호하는 엄폐물이 되겠습니다.”¹⁰⁰⁾

이 「장이진여열전」의 기록은 항우를 따라 관중까지 들어간 장수들은 모두 좋은 지역의 왕으로 봉함을 받았고, 기존의 왕들은 나라를 나누어 변방이나 좋지 않은 지역으로 좌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조왕 혈은 대국(代國: 상산의 북쪽 변방지역)으로, 전불은 교동국(산동

94) 二十九.臧荼從入，分燕為二國。【索隱】燕、遼東也

95) 三十.燕. 分為遼東

96) (연)王臧荼始，故燕將. (요동) 三十一.王韓廣始，故燕王

97) (연)二.都薊. (요동)三十二.都無終

98) (요동)三十七.臧荼擊廣無終，滅之

99) 玉田.漢無終縣，屬右北平郡...萬歲通天二年，改為玉田縣

100) 及齊王田榮畔楚，陳餘乃使夏說說田榮曰：「項羽為天下宰不平，盡王諸將善地，徙故王王惡地，今趙王乃居代！願王假臣兵，請以南皮為扞蔽

반도 동쪽 지역)으로, 위표는 서위국(산서 하동 지역), 한광은 요동국(연나라 동쪽 변방) 등 변방이나 좋지 않은 지역으로 보내고, 아울러 진여갈이 관중에는 못갔지만 진나라를 몰아내는데 노력한 사람들은 3개현에 봉해지는 등 형평에 안 맞는 조치에 기존의 왕들과 진나라를 몰아내는 데 동참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왕이었던 한광을 좌천시켜 요동국왕에 봉했는데, 도움이 현재의 당산시 옥전임을 고려할 때 그 규모가 연국보다 작았을 것이다.

이후 장도와 한(漢)의 제후국이 된 연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사기』「고조본기」 5년(서기전 202)에 “(항우를 죽이고 평정한 이후) 10월 연왕 장도가 반란을 일으켜 대(代)를 공격해 함락시켰다. 고조가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 공격해서 연왕 장도를 사로잡았다. 곧바로 태위 노관을 연왕으로 세웠다.”¹⁰¹⁾

『사기』「한신노관열전」 고조 12년(서기전 195).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자) ”고조가 변패를 시켜서 연나라를 치게 했다. 연왕 노관이 궁인과 가축, 기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장성 아래 머물면서 상황을 살폈다. 고조의 병이 나오면 자신이 들어가서 사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4월에 고조가 봉어하자, 노관은 드디어 자기 무리들을 거느리고 도망쳐 흉노 땅으로 갔다. 흉노는 그를 동호(東胡)의 노왕(盧王)으로 삼았다. 그러나 다른 오랑캐들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하게 되자, 노관은 늘 한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한 해 남짓 지내다가 그는 오랑캐 땅에서 죽었다.”¹⁰²⁾

장도는 항우가 봉한 연왕으로서 항우가 죽자 제거될까 두려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고조가 반란을 일으킨 연왕 장도를 제거하고 서기전 202년 후9월에 자기 친구인 노관을 연나라 왕에 봉하게 된다. 그러나 노관도 서기전 196년 진희의 반란에 휘말리면서 모반을 하게 된다. 고조는 노관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변패를 시켜서 치게 하고 다시 주발을 상국으로 삼아 노관을 치게 된다. 주발이 계(薊)를 함락시키고 서북쪽의 저양, 혼도 등으로 진격해오자 연왕 노관은 궁인과 가축, 기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상곡(장가구시 선화구 쪽 추정) 방향으로 도망쳐 장성 아래 머물러 상황을 살피면서 고조의 병이 나오면 들어가 사죄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기전 195년 4월에 고조가 봉어하자 노관은 드디어 자기 무리들을 거느리고 흉노로 도망가자 흉노는 그를 동호의 노왕(盧王)으로 삼았다. 그러나 다른 오랑캐들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하게 되자 노관은 늘 한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며 한해 남짓 지내다가 그곳에서 죽는다.

그러면 여기서 상곡 쪽 장성 아래서 머문 것은 이 장성이 흉노와 한나라의 경계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변패와 주발이 연나라를 토벌하는 과정을 보자.

『사기』「번역등관열전」에 “연나라의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자 변패는 상국(相國)의 신분으로 노관을 공격하여 계(薊) 남쪽에서 그의 승상인 저(抵)를 격파하고 연나라의 19개현과 51개 향읍을 평정했다.”¹⁰³⁾

『사기』「강후주발세가」 고조 12년(서기전 195년 2월) “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자 주발은 상국의 신분으로 변패를 대신하여 부대를 이끌고 계(薊)현을 함락시켰고, 노관의 대장 저(抵), 승상 인, 군수 경, 태위 약, 어사대부 시를 생포하고 혼도(渾都: 상곡군 속현)을 도륙했

101) 十月，燕王臧荼反，攻下代地。高祖自將擊之，得燕王臧荼。即立太尉盧綰為燕王。

102) 漢十二年..使樊噲擊燕。燕王綰悉將其宮人家屬騎數千居長城下，侯伺，幸上病愈，自入謝。四月，高祖崩，盧綰遂將其眾亡入匈奴，匈奴以為東胡盧王。綰為蠻夷所侵奪，常思復歸。居歲餘，死胡中

103) 其後燕王盧綰反，噲以相國擊盧綰，破其丞相抵薊南，定燕地，凡縣十八，鄉邑五十一

다. 상란(上蘭: 상곡군 소재)에서 노관의 군대를 대파했고, 또 저양(沮陽: 상곡군 속현)에서 노관의 군대를 격파하고 곧장 장성까지 추격했다. 상곡군 12개현, 우북평군 16개현, 요서와 요동 2군의 29개현, 어양군 22개현을 평정했다. ……3개성을 함락시켰고 5개군 79현을 평정하였으며, 승상과 대장 각 1명씩을 포로로 잡았다.”¹⁰⁴⁾

※ 『한서』 「지리지」: 상곡군 12현, 어양군 12현, 우북평군 16현, 요서군 14현, 요동군 18현은 주발이 공격하여 평정한 요서·요동군 29개현과 『한서』 「지리지」의 요서·요동군 32개현으로 다른 것은 주발의 연나라 공격(서기전 195년) 시점과 『한서』 「지리지」 작성 시점(서기 2년)과는 193년의 시차가 발생하여 한무제의 조선 침략 후 한군현 설치 과정에서 요동군 등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고 본다.

『한서』 「지리지」 〈연지〉조에 (낙랑)군은 처음에 요동군에서 관리를 뽑아 (관리해) 왔는데 관리가 (낙랑군에) 와서 보니 백성들이 문들 닫고 감추지 않았다. 장사꾼들이 왕래한 뒤에는 밤에 도둑질을 하니 풍속이 점점 각박해져 법으로 금하는 것이 60여조에 이르렀다고 한 것을 보면, 낙랑군 지역(옛 위만조선 강역)의 일부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요동군에 편입했을 개연성이 있다.

『사기』 「조선열전」에 “연왕 노관이 배반하여 흉노에 들어가니, (위)만은 망명하여 천여 명의 무리를 모아 추결을 하고 만이의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쳐 (요동의) 요새를 나와 패수를 건너서 진나라의 옛 빈땅 상·하장에 머물렀다. 진번과 조선에 차츰 부려지고 속해 있다가 만이와 옛 연(燕)·제(齊)의 망명자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매 왕함에 도움을 정했다.”¹⁰⁵⁾

위의 세 기록을 종합해 보면 한(漢)의 제후국인 연나라에도 전국시대 연나라 및 통일후 진나라와 같은 5개군이 있었고 장성까지 추격했다는 것은 장성까지가 이민족과의 경계였음을 알 수 있다. 상곡과 어양의 장성 북쪽은 흉노(匈奴: 서기전 206년경 흉노가 동호를 멸망시킴)가 있었고 난하 중하류의 동쪽에는 조선(朝鮮)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명일통지』 「영평부(永平府)」〈명환한(名宦漢)〉조에 “주발(周勃)이 상곡으로 장수가 되어 노관(盧綰)의 군사를 추격 격파하고, 장성에 이르러 우북평 16현, 요동 29현을 안정(평정)했다.”¹⁰⁶⁾

위 기록인 『사기』 「강후주발세가」와 『대명일통지』 「영평부(永平府)」〈명환한(名宦漢)〉조를 보면 강후 주발이 평정한 우북평군 16개현, 요동(요서 포함) 29개현이 명나라 시대의 영평부 관내에 소재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나라 때 영평부는 현재의 난하(瀾河)를 중심으로 북쪽은 장성, 서쪽으로 당산시 일부와 동쪽 진황도시(산해관 까지)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¹⁰⁷⁾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 당시(漢初: 서기전 195년경)의 우북평·요서·요동군이 소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주발이 평정한 상곡군·어양군은 북경의 서북쪽과 동쪽 인근으로 명나라 때 경사(京師) 순천부(順天府)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난다.(주 104와 같음)

『사기』 「화식열전」에 “연(燕) 또한 발해와 갈석 사이에 있는 도회지이다. 남쪽으로는 제(齊)·조(趙)와 통하고 동북쪽으로 흉노와 근접해 있다. 상곡(군)에서 요동(군)에 이르기까지는 멀

104) 燕王盧綰反，勃以相國代樊噲將，擊下薊，得綰大將抵、丞相偃、守陘、太尉弱、御史大夫施，屠渾都。破綰軍上蘭，復擊破綰軍沮陽。追至長城，定上谷十二縣，右北平十六縣，遼西、遼東二十九縣，漁陽二十二縣…下城三，定郡五，縣七十九，得丞相、大將各一人

105) 燕王盧綰反，入匈奴，滿亡命，聚黨千餘人，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渡泅水，居秦故空地上下鄣，稍役屬真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險

106) 周勃以相國爲將 擊 盧綰軍追 至長 安定 右北平十六縣 遼東二十九縣

107)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7책. 中國地圖出版社. 1982.p44-45

리 있어 백성이 적었으며, 자주 침입을 당했다. 그들의 풍속은 조(趙)·대(代)와 유사하며, 이곳에는 생선과 소금·대추·밤 등이 많이 난다. 북쪽은 오환·부여와 가까이 있고, 동쪽은 예맥·조선·진번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¹⁰⁸⁾

『한서』「지리지」<연지(燕地)>조에 “상곡(군)에서 요동(군)에 이르기까지 땅은 넓은데 백성은 희박하여 여러 번 오랑캐의 침략을 당했다. 풍속이 조(趙)·대(代)와 비슷하고, 물고기·소금·대추·밤의 풍요로움이 있다. 북쪽으로 오환과 부여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진번과 이익을 얻는다.”¹⁰⁹⁾

『사기』「화식열전」과 『한서』「지리지」<연지>조를 보면 상곡(군)에서 요동(군)까지 설명하면서 풍속이 조(趙)·대(代)와 비슷하다고 했다. 현재의 요동지역에는 고구려·부여 등이 있었는데 그들의 풍속이 과연 조(趙)·대(代)와 비슷한 것인가? 풍속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닌데 후한서나 삼국지 동이전에 동이의 풍속이 다름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요동은 당연히 난하 유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진말·한초 당시 요동국의 영역은 북쪽은 장성 이남, 천진시 일부, 당산시, 진황도시 일부인 난하 유역(갈석산)까지로 본다. 다시 말하면 연(燕)·진(秦) 시기 행정구역인 어양군 일부,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 정도를 점유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진말·한초에도 군(郡)은 있었지만 북경 동쪽을 여전히 요동(遼東)이라고 인식했음 알 수 있다.

5. 맺음말

전국시대 요동의 개념은 동쪽의 먼 변경지역을 뜻하는 일반적 의미의 요동과 행정구역으로서의 요동군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연나라 진개가 동호·조선을 침입하기 이전의 요동은 동쪽으로 고조선과 경계를 이루며 중립지대(완충지대)로 추정되는 영정하에서 조백하 등의 동쪽을 가리켰던 것으로 여겨진다. 진개가 침입한 후 설치한 어양군을 설명할 때 어양현을 흐르는 고수(沽水: 현 조백하)가 동남쪽으로 흘러 천주(泉州: 어양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한 점으로 보아 합당하다고 본다.

『사기』「흉노열전」은 연장성 구간을 조양에서 양평까지라고 말한다. 양평은 현재 하북성 노룡현 지역에 해당하는데, 그곳에는 갈석산이 있었다. 따라서 연나라 진개가 동호·조선을 침입한 이후의 요동은 갈석산이 소재하는 창려·노룡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으로서의 요동군과도 겹친다. 또한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여 도읍 계(薊)를 함락하자 연왕 희와 태자 단이 동쪽으로 도망갈 때 요동으로 갔다고 한 점으로 보아 기존의 북경 동쪽에 설치되었던 어양·우북평·요서·요동 인근 지역을 여전히 일반적인 의미의 요동으로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지명으로 보면 당산시와 진황도시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진장성은 진시황이 몽염을 시켜 쌓은 성이다. 그때의 구간은 임조에서 요동까지였다. 진말·한초의 요동도 갈석산이 있는 창려현 부근으로 연나라가 쌓은 연장성과 동일한 장소였다. 또한 항우가 진나라를 평정한 후 장수들을 제후왕에 봉할 때 기존의 연나라를 연국과 요동국으로 나누어 시행했는데, 연국은 장도를 봉하여 계(薊)에 도읍하고, 요동국은 본래 연왕이었던

108) 夫燕亦勃、碣之間一都會也。南通齊、趙，東北邊胡。上谷至遼東，地踔遠，人民希，數被寇，大與趙、代俗相類，而民雕悍少慮，有魚鹽棗栗之饒。北鄰烏桓、夫餘，東綰穢貉、朝鮮、真番之利

109) 上谷至遼東，地廣民希，數被胡寇，俗與趙、代相類，有魚鹽棗栗之饒。北陳烏丸、夫餘，東賈真番之利

한광을 봉하여 무종(無終: 현 하북성 옥전)에 도읍하게 된다. 이때에도 요동은 난하 하류의 갈석산 인근을 말하고 있으며(秦나라 당시 요동군으로 추정), 요동국은 무종에 도읍한 것으로 보아 우북평군·요서군·요동군 등을 포함하는 나라로 볼 수 있다. 그 동쪽 경계는 당연히 난하 유역까지였다. 이 요동국은 여전히 일반적인 의미의 요동으로도 불리고 있었다.

참고문헌

- 『史記』 「秦始皇本紀」, 「項羽本紀」, 「燕召公世家」, 「趙世家」, 「陳變世家」, 「匈奴列傳」, 「蘇秦列傳」, 「張儀列傳」, 「朝鮮列傳」, 「貨殖列傳」, 「鯨布列傳」, 「樂毅列傳」, 「樗里子甘茂列傳」, 「蒙恬列傳」, 「張耳陳餘列傳」, 「韓信盧綰列傳」, 「樊鄴滕灌列傳」, 「降侯周勃世家」, 「表」
- 『漢書』 「地理志」, 「佞幸列傳」
- 『後漢書』 「本紀」, 「袁紹劉表列傳」
- 『晉書』 「唐彬傳」
- 『魏書』 「地形地」
- 『三國志』 「武帝紀」 「烏桓鮮卑東夷傳」
-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 『新唐書』 『舊唐書』 「地理志」
- 『遼史』 「地理志」
- 『戰國策』 「燕策」 「趙策」
- 『呂氏春秋』 「有始覽」
- 『鹽鐵論』 「險固」, 「備胡」
- 『說苑』 「辯物」
- 『淮南子』 「時則訓」 「人間訓」
- 『水經注』 「濡水」
- 『大明一統志』 「永平府」
- 潭其驤. 『中國歷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1982.
- 臧勵蘇.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書店出版社. 2015
- 윤내현, 『한국고대사신론』. 만권당, 2017.
-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2004.
- 유엠부틴(이병두 번역. 유정희 해재). 『고조선연구』, 아이네아스, 2019.
- 리지린(이덕일 해역). 『고조선연구』, 말, 2018.
- 사마천, 『신주사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2021.
- 문성재, 『한국고대사와 한중일 역사왜곡』, 우리역사연구재단, 2014.
- 심백강,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 바른역사, 2018.
- 김운회, 『우리가 배운 고조선은 가짜다』, 역사의아침, 2012.
- 정범진 외 옮김, 『사기세가』(상하), 까치, 1994.
- 정범진 외 옮김, 『사기열전』(상중하), 까치, 1995.
- 권오현 역해, 『사기열전』(Ⅰ, Ⅱ), 일신서적출판사, 1991.
- 김성구 발췌 번역, 『중국정사조선열국전』, 동문선, 1996.
- 이덕일.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 『역사와융합』 제1집, 2017, 45-81.

네이버. 방랑자의 블로그(동호의 역사), 2019. 6. 6.

[진개의침입-서기전300년. 송(宋)의 여조겸(呂祖謙:1137~1181)의 대사기(大事記)와 청나라때의 황식삼(黃式三:1789~1862)의 주계편략(周季編略)에 기록됨]

[토론]

“《사기》로 본 고대의 요동” 토론문

박종민(순천향대)

정암박사님, 최원태 선생님 이번에 사기로 본 고대의 요동 논문을 보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우선 요동의 의미를 하나로 보지않고 ‘극동’을 뜻하는 범요동과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요동군’으로 나누어 본 부분은 요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요한 논문인거 같습니다. 또한 중국 역사서가 말하는 천하의 동북쪽이 요동인데 이 위치를 전국시대 말부터 진말한초까지 어디인지 밝혀서 중국의 동북영토를 넘어선 곳에 이민족이 있었고 중국 입장에서 이민족의 역사가 곧 한국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논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 요동의 위치 관련된 목차만 정리하면 1) 진개침입 이후(서기전 300) 연나라-고조선의 경계, 2) 진개 침입 이전의 요동과 진개침입 이후 요동, 3) 통일 진의 요동, 4) 초한시기 요동, 5)전한시기 요동으로 나눈 것으로 논문을 서술하여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논문을 보고 생긴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질문은 총 7개입니다.

1) 연나라 중심지 문제

- 『사기』「화식열전」에는 연나라가 “발해와 갈석 사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한서』「지리지」<연지>조에 “연나라 도읍 계(薊)는 남쪽으로 제(齊)·조(趙)와 통하고, 발해와 갈석 사이에 있는 도회지이다”라고 설명되어있어서 이 부분에서 계의 위치를 지금 북경 부근 또는 천진 부근으로 보면 창려현 갈석과 발해 사이에 계의 위치가 궁금합니다.(최원태선생님)

- 『사기』「주본기」《사기정의》 주석을 보면 연나라와 계나라가 따로 있고 연나라는 연나라 소공이 봉해진 제후국이고 계나라는 요임금의 후손을 봉한 곳이라고 하여 달리보고 있습니다. 이후 연나라가 강해지고 계나라가 약해지자 연나라가 계나라를 합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연나라 도읍과 계의 위치를 같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 고대사 연구자는 『한비자』 「유도」 편에 전국시대 때 “연양왕(燕襄王: 연소왕의 이명) 하수(河水)를 경계로 삼고 계(薊: 연하도)를 도읍으로 삼아 탁(涿: 지금의 하북성 탁현)과 방성(方城: 지금의 하북성 고안현 부근)을 에워싸서 제(齊)나라를 잔폐시키고 중산(中山)을 평정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북경 지역과 천진 지역의 계를 인정하지 않고 연하도(지금 하북성 보정시 역현 부근)를 계로 보는데 이 연하도 등장 배경과 시기 그리고 북경 계와 천진 계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원태선생님)

2) 요새와 연장성 위치 비정문제

- 『여씨춘추』 「유시람(有始覽)」에는 당시의 국경에 있었던 9개 요새(要塞)가 기록되어 있는데, 9개 요새중 영자새의 위치를 지금 중국학계에서 노론새로 보고 지도상에는 위치를 약간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요. 다르게 볼 수 있는 요새가 현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원태선생님)

- 현재 학계는 전국시대 연나라 장성 동단인 양평을 지금 요녕성 요양으로 비정하고 장성은 산맥, 구릉, 계곡을 따라 쌓는데 이게 지리적으로 가능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고대에는 국경이 산과 강으로 생긴다고 하였는데 전국시대에 어떻게 산과 강으로 막혀있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암박사님)

3) 갈석산

- 진개 침입 이전의 요동을 근거로 『사기』 「소진열전」과 『전국책』 「연책」에 소진이 연문후(서기 전 334)에게 합종을 위한 유세시에 한 내용에 연나라 사방을 설명하고 “남쪽으로 갈석산(碣石山)과 안문(雁門)의 풍요로움이 있고 북쪽으로 대추와 밤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는데 남쪽으로 갈석산과 안문산이 있다고 한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갈석산은 구문현갈석산(지금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正定)현 부근)으로 볼수 있다고 해도 안문산은 연나라 북쪽에 있는데 이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하고 『전국책』의 사료적 가치가 궁금합니다. (최원태선생님)

4) 동호

- 『사기』 「흉노열전」의 동호는 흉노의 동쪽에 있어서 동호라 불리었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동호가 조선과 같은 것으로 보아 우리 민족과 연결시켰는데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기 이전과 이후 동호가 언제 어디서 활동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동호의 후신인 민족들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한국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태선생님과 정암박사님)

연구윤리교육

이찬구(겨레열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바른역사학술원 연구윤리 규정

1. 본 학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학문 영역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학술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이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제1장 저자의 연구윤리

제1조(표절)

-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 (2) 타인의 연구물을 참조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저작물 일부분을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출판 업적)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문의 주저자나 공동저자의 표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3)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 (4) 연구물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로 적절하게 기여도를 표시한다.
- (5) 공동연구의 경우 1저자, 2저자..., 교신저자 등으로 공동저자 모두 명기하며, 소속, 직위, (이메일) 등 저자정보는 각주로 표시한다.
- (6)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중복 게재)

-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해서는 안 된다.
- (2)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복수의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는 것 또한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 (3)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4)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나 일부를 재출판하는 경우에는 재사용 부분의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각주로 밝힌다.

제4조(인용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학회에서 정한 인용 규칙에 부합하게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 (2) 미출간물이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으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힌다.
- (4) 인용을 표기할 때는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부분인지 독자가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제5조(논문 수정)

- (1)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한다.
- (2)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소명한다.

제2장 편집위원의 윤리

제6조(게재 결정)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동시에 게재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7조(심사 태도)

-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과 관련된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
- (2)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의뢰)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 (2)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심사위원의 친분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비밀 유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 (2)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나 투고 논문의 내용, 또는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10조(결과 통지)

-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 (2)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제11조(공정 평가)

- (1)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 (2)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신념을 심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제12조(저자 존중)

- (1) 심사위원은 학문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게 표현하고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2)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3조(비밀 유지)

- (1)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나 논문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 (2)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규정의 서약

제14조 (규정의 서약)

- (1) 이 학회의 신규 회원은 입회 과정에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 (2)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윤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한다.
- (3) 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논문 작성과 관련한 ‘연구윤리서약 확인서’

를 제출한다.

제15조 (위반의 범위)

- (1) 연구윤리규정 위반은 연구의 수행이나 논문 게재의 과정에서 행해진 표절이나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 행위,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등을 포함한다.
- (2)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는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이라 함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시효는 없다.

부칙

제1조(규정 개정)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2조(규정 적용)

- (1)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출간된 논문집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원용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 (2) 기존의 규정에 따라 서약한 회원은 윤리규정이 수정되더라도 별도의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규정 시행)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창립회칙)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바른역사학술원 2023년 정기 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펴낸곳: 바른역사학술원

발 행: 2023년 2월 17일

학술원 홈페이지: <http://www.brhistory.re.kr>
